



# 서울대미주동창회보

www.snuaa.org

The Seoul National University Alumni News in the USA

221호 2012년 9월

서울대 미주 동창회  
1225 W.190th St. #465  
Gardena CA. 90248 USA  
Tel: 310-515-7888 Fax: 310-515-7883  
e-Mail: snuaausa@yahoo.com



제2회 'Brain Network Workshop'

## LA. JJ Grand Hotel서 개최 대성황

우리 동문이 아니면 듣기 어려운 강연, 매년 지속돼야  
다른 지역 동문도 참여 필요, 분야 더욱 넓히기를

미주 동창회(회장 김은중·상대 59) 주최로 지난 9월 22일 LA의 JJ Grand Hotel에서 열린 '제2회 Brain Network Workshop' 이 대성황을 이뤘다.

이준(중대 69) 기금모금위원장의 사회로 열린 이날 미주 동창회 김은중 회장은 인사말씀을 통

해 "이 워크숍을 위해 귀중한 시간을 배려해주신 동문 교수님들, 그리고 워크숍을 위한 기금모금에 협력해주신 모든 동문들에게 감사한 감사를 드린다"고 격려하고 "이 워크숍이 참가하신 여러 분들께 아주 유익한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하용술(문리대 67) 교수(University of Washington)와 고병철(임대 59) 명예교수(University of Illinois at Chicago), 이재진(임대 55)명예교수(Clarkemont Western College), 그리고 박노희(치대 62) 학장(UCLA School of Dentistry and Distinguished

Professor of Medicine)이 각각 주제발표를 했다. 하용술 교수는 '남북한 관계와 통일전망', 고병철 명예교수는 '오마야 대통령의 한반도 정책', 이재진 명예교수는 '통일을 위한 역사적 시각'을 주제로 각각 강연했다. 이어 박노희 학장은 'Can we slow down the aging process and age-related diseases?'를 주제로 건강에 관한 강연을 해주었다. <4-7면 참조>

이날 워크숍을 주관한 동문들은 환영말씀 "미주 학회와 우리 동문 석학들이 금년에는 세계 경제 속에서의 동북 아시아 우리 국가의 상황과 방향을 자세하게 잘

← '제2회 Brain Network Workshop'이 끝난 후 미주 동창회 임원들과 강사진이 한 자리에 모였다. 뒷줄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박노희 고문, 상주용 사무총장, 지인주 편집위원장, 재영에 남기주 동창회장, 김호석 재무과장, 오영조 미주 동창회 전 회장, 백옥자 총무과장, 김재영 감사, 오인환 미주 동창회 차기 회장, 하용술 교수, 박노희 학장, 김은중 회장, 이재진 명예교수, 고병철 명예교수.

절여주었다"고 말했다. 또한 "우리 동포들의 가장 큰 관심사 중 하나인 건강 문제에 대한 최신 정보를 터득할 수 있는 좋은 계기였다"고 말했다.

미주 동창회 오인환 차기 회장은 이 워크숍 참가를 위해 멀리 워싱턴에서 내방했다.

오 차기 회장은 "정쟁한 동문 학자들의 수준높은 강연은 우리 동문들에게서가 아니라 듣기 어려운 것이다. 너무나 훌륭하고 자랑스러운 워크숍이라 매년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할 것이다. 다른 지역 동문들도 같이 참여해 줄 수 있는 것이 정말 야망이다. 이 내용을 모두 미주 동문 웹사이트에 올려서 다른 동문들도 감상할 수 있게 하는 방안도 있다."

<2면 계속 참조>

**<워크숍> 제13대 미주 동창회장 선출공고 - 6면**

**<My Journey to America> 권준희의 교수 ...19면**

**<회고(會后)로로 Home Coming Day> ...29면**

NON-PROFIT  
US POSTAGE PAID  
GARDENA, CA  
PERMIT No. 177

### 2012 영국의 QS 세계 대학 평가

#### 모교 서울대 5계단 올라 37위

영국의 세계적 대학평가기관 QS(Queensland 1 Symonds)가 지난 9월 10일 발표한 '2012 세계대학 평가'에서 서울대가 세계 37위로 49위에서 5계단 상승했다. (도쿄 참조)

글로벌 대학 순위는 미국 MIT가 1위로, 2위는 영국 케임브리지대, 3위 하버드대(미국), 4위 UCLA(영국), 5위 옥스퍼드대(영국) 순이었다.

한국의 대학은 이 외에 KAIST 63위, 포스텍 37위, 연세대 112위, 고려대 137위, 성균관대가 179위

에 각각 올랐다.

세계 '톱 100'에 드는 학교는 2007년에는 서울대 한 곳에서 지난해와 올해는 서울대-카이스트-포스텍 3개교로 늘었다.

세계 '톱 200' 대학도 지난해 5개에서 올해 6개로 늘어났다.

QS 세계대학 평가가 시작된 2004년 이후, 그리고 2007년 세계 200위 대학 순위 안에 든 한국의 대학은 서울대와 KAIST 두 곳 뿐이었지만, 5년 만인 2012년 6곳으로 늘어난 것이다. <2면 계속>

### QS 2012년 세계대학 평가 순위

2012	2011	대학명	2012	2011	대학명
1	3	MIT(미)	15	11	스탠퍼드(미)
2	1	케임브리지(영)	16	16	존스홉킨스(미)
3	2	하버드(미)	17	17	미시간(미)
4	7	UCL(영)	23	22	홍콩대
5	5	옥스퍼드(영)	25	28	싱가포르국립
6	6	임페리얼(영)	30	25	토론토대(캐)
7	4	예일(미)	37	42	서울대
8	8	시카고(미)	63	90	카이스트
9	13	프린스턴(미)	97	98	로스텍
10	12	컬럼비아(미)	112	129	고려대
11	10	컬럼비아(미)	137	190	연세대
12	9	벤실베이니아(미)	179	239	성균관대
13	18	ETH리히(스)	249	314	한양대
14	15	코펜(미)	270	245	명지대

'미주 동창회보'는 **동문들의 동창회비(구독료 포함 1년 75달러)**로 제작되고 있습니다. 새로운 회기가 7월 1일부터 다시 시작됐습니다. 다음 주소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SNUAA. 1225 W. 190th St. #465. Gardena, CA. 90248**



이번 Brain Network Workshop 계속을 해는 지난 해와 달리 긴장에 관한 분야가 추가됐는데 아주 반가운 일이다. 앞으로 과학 분야 등 Field를 더욱 넓혔으면 한다. 아울러 우리 동창회 내에 미국의 'Brookings Institution Road Cooperation' 과 같은 연구 그룹을 만들 것'을 제안했다. 이나 가 분야 강연 뒤 동문들은 활발하게 질의를 이어갔다.

"남북한 관계와 통일 전망" 을 주제로 발표한 하용승 교수는 본 강연에서 앞서 "우리가 부른 애국가에 앞서 '우리의 소원은 통일' 을 불렀으면 얼마나 좋았을 것, 하고 생각했다"고 말해 좌중의 박수를 받았다.

의대 출신의 도 동문은 "북한 미국의 관계를 북한-중국 관계 보다 더욱 친밀하게 해놓으면 북한의 개혁과 개방이 보다 더 빨라질 수 있을 것"이라는 주장도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느냐"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하용승 교수는 "북한과 관계는 한 마디로 '불가근(不可近不可遠)'으로 북한식 공산사회주의란 유일시 공산 사회주의와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6·8이회담은 성공 가능성이 전혀 없이 이제까지 미국은 북한에 이용만 당했다"고 말했다.

하 교수는 이어 "역사적으로 볼 때 사회주의의 붕괴는 경제 문제에서 시작됐다. 북한의 개혁은

60-70년대 한국식 모델을 따를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북한의 목표는 과거부터 '무조건 적화통일'인데 아직도 그렇구나"는 사회학과 출신 동문의 질문에 고병철 명예교수는 "현재 북한은 가장 기본적인 식량문제도 많이 겪는 연구자나 무 많은 등 경제 실태에다가 남한의 국제 신장으로 적화통일은 불가능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재진 교수는 '북한의 조기 붕괴 가능성 여부'를 묻는 질문에 "빈민이 늘 행복을 이룰 것"이라는 말이 있으나 북한은 정치는 사회 구조가 달라 쉽게 짐작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 김선중 회장 전야 만찬 베풀어

김선중 미주 동창회장은 Brain Network Workshop이 열리기 바로 전 날인 21일 오후 5시 반부터 Palos Verdes Estate에 위치한 자택에 강사진과 미주 동창회 임원진을 초대해 만찬을 베풀었다.

서태영을 마추한 눈부신 경

관을 자랑하는 자택에서 일원진들은 1년만에 다시 만난 감연과 반가운 해를 즐겼다.

하용승 교수는 올해가 저수지나 고병철 명예교수와 이재진 명예교수는 지난 해에 이어 다시 이 Workshop에 강사로 초빙돼 왔기 때문이다.\*\*\*

Workshop 행사 전 날 김선중 회장 만찬에 모인 동문들.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이종도 기금도금 위원장, 백옥자 총무국장, 박성훈 고문, 이세진 교수 부인, 지진수 편집위원장, 김재형 감사, 김명연 IT위원장, 박성훈 고문 부인, 심주경 사무총장, 이상대 선의국장, 김효서 재무국장, 김선중 회장 부부(김혜성 이사), 하용승 명예교수, 하용승 교수, 이재진 명예교수.

### 제2회 Brain Network Workshop주역 이종도 박사

#### “동창회위해 마땅히 할 일을 한 것뿐”



서 'Fund Rasing 글쓰기 대회'를 주관한 인사간 2인이 달라 리를 모으는 피(?)를 발휘했다.

물론 이같은 질의는 적극 힘벽에 나선 미주 동창회 회장을 비롯한 임원진과 적극적으로 동참해준 여타 동문들의 힘이 있었기 때문이다.

여하간 이종도 박사는 이 공으로 김선중 미주 동창회장으로부터 '혁신상'이라는 내용이 가득한(?) 상을 받기도 했다(18년 초).

이이 이 박사는, 22인의 본 Workshop에서 강연한 동문들과 화 초점을 모두 설의했다.

그런데 이 박사는 "동창회를 위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한 것"이라며 "동문 여러분의 적극적인 힘 덕 덕분에 Workshop을 성공적으로 치러 기쁘다"고 결론내 렸다.\*\*\*

제2회 Brain Network Workshop은 이종도(장대 65·미주 동창회 기금도금 위원장) 박사의 위해 기획, 연출됐다.

이 행사의 기금과 운영을 위해 지난 19일 캘리포니아의 Rolling Hills Country Club에

원장은 "올해 총 200여 대학에 인문6개, 중국7개, 일본10개가 포함됐다. 한국과 인접한 중국·일본 세 나라 인구를 비교해 보면 한국 대학이 얼마나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지"라고 말했다.

QS 세계대학평가는 연구·교육·졸업생·국제화 등 4개 분야를 주요 기준으로 한다. 연구 분야는 '교수 1인당 논문 피(被)인용 수(206)'와 '학제 평가(40%)'로 이뤄진다.

세계 학사 4년제 평가는 '학사 학사'는 미국이 54개로 가장 많았고 이어 영국 30개, 독일 11개, 일본 10개, 캐나다 9개, 호주 8개, 중국·스위스 7개, 한국 6개, 홍콩 5개, 프랑스 4개 등이었다.

QS 마틴 인스(Inno) 혁신사수위

〈전 세계대학 평가 계속〉  
QS 측은 "올해 세계 500위 안에 든 한국 대학 13개 중 11개 대학이 지난해보다 순위가 상승했다"고 말했다.

켈 소터(Kel Soter) 평가총괄 책임 사수는 "올해 세계 100위권 내에 든 대학들은 지난 해와 비교해 외국인 학생 비율이 10% 이상 늘었다"며 "점점 많은 학생이 다른 나라 캠퍼스에서 공부하면서 대학 캠퍼스 국제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국가별로 세계 200위권 내 대학 수는 미국이 54개로 가장 많았고 이어 영국 30개, 독일 11개, 일본 10개, 캐나다 9개, 호주 8개, 중국·스위스 7개, 한국 6개, 홍콩 5개, 프랑스 4개 등이었다.

QS 마틴 인스(Inno) 혁신사수위

이름다운 California 주 Bishop 오서 2012년 9월 1일~9월 3일

### 시사만평

박준창(인문대 79·번호사)

꿈같은 동문회 캠핑

아름다운 California 주 Bishop 오서  
2012년 9월 1일~9월 3일

차 례	Related Diseases?	11-14. 미주 동문들	22.8명 간담회
3.그날의 5.16, 오늘날의 6.16/ 김정은 북한의 덩치모형 될 수 있다고 생각/ 시 김삼	8.<관악사대>노디카에/오마리나와 토피나의 속	15-18. 미주 지역 동창회 소식	23. <동문회 캠프> 2012년 9월 1일~9월 3일
4.이희복장수이마. 대동원의 한미도 정철	9.<프로메테우스> 5월 11일에서 4.5월	19. My Journey to Americas? 겐자스 주님	24. <수업>박옥자
5.<이희복장수이마> 대동원의 한미도 정철	9.<관악사대>결론은 어차피 부자연속이론	20. 인문은 공저자 동문/나/ 돈/이/호에 두	25. <국립 동문동맹> 2012년 9월 1일~9월 3일
6.<이희복장수이마> 대동원의 한미도 정철	9.<관악사대>결론은 어차피 부자연속이론	21. 인문은 공저자 동문/나/ 돈/이/호에 두	26. <국립 동문동맹> 2012년 9월 1일~9월 3일
7.On we slow down the Aging process and Ag-	10.인문은 공저자 동문/나/ 돈/이/호에 두	22. <국립 동문동맹> 2012년 9월 1일~9월 3일	27. <국립 동문동맹> 2012년 9월 1일~9월 3일

고국 시사 칼럼

그날의 5.16, 오늘의 5.16



유인열(문리대 61졸)  
조선일보 전 수필

이미 공과(功過)가 많은 5.16, 재빨리 눈썹 '독재자' 딸은 안 된다. '는 전하 맞... 유신은 실패한 실험이 아니라... 5.16은 산업화-근대화 단계의 '공과'... 그 후 출현된 박정호는 '공과'... 5.16은 실패한 실험의 원인

2012년 대통령 선거 가도(街道)가 느닷없이 '5.16'이라는 '쟁'이 일어났다.

5.16, 유신-산업화-근대화의 정치-경제학에 대해서는 국내의 학자들에서 그동안 술한 논문으로, 저서로, 세미나로 다뤄진 만큼 되었다.

그러나 왜 이 해독은 주제가 마치 일제기 한 뉘대로 다루어질까? 없었다는 양 '왜든 부디 다시 마르보카'는 석으로 정정화될 것은 순전히 한국적인 정서현상일 것이다.

5.16은 권토중래(權土重來)를 버린는 책으로서 "모처럼 거머쥔 정권을 이임박에게 빼앗겼다고 절제부하할 노릇임이 아니라... 또? 그것은 박정호의 밑에... 라는 상징적 것이다.

그대서 짚던 것이 "5.16은 나쁜 것, 박정호는 독재자, 박근래는 독재자의 딸, 그대서 박근래는 안된다"는 프레임이다.

이해서 원해와 미래를 다룬 범한 어...야의 선지언이 때...인 "과거로의 시간여행"으로 돌아오라고 했다.

그렇다면 골때림도 더 됐을 이 '질투만 맺어준다'를 한 번쯤은 또 읽고 넘어가야 하게 되었다.

그리면서 5.16과 유신을 어떻게 봐야 할 것인가?

세계 지리인 중앙정보부장

이 세태 출신인 대통령을 세웠다... 5.16은 유신-산업화-근대화의 정치-경제학에 대해서는 국내의 학자들에서 그동안 술한 논문으로, 저서로, 세미나로 다뤄진 만큼 되었다.

"5.16"은 물론 군사정권의(junta)의 쿠데타였다... 그러나 공화국 이후의 산업화와 근대화는 한국의 추상강은 야당까지도 부인 못할, 그리고 국민 세대가 놀란 성공회적이 발전적인 사회변동이었다.

"명칭이 어 뭐라고 불어든... 5.16은 이 정에서 출발한다... 그러나 8월 16일 일어난 '민중항쟁'과는 사후적인 파사의 차원에서 같은 것으로 볼 수 없다.

물론 "그 당시 박정호가 아니라 누가 있었다라고 정정화될 수 있을 것이다... 5.16은 유신-산업화-근대화의 정치-경제학에 대해서는 국내의 학자들에서 그동안 술한 논문으로, 저서로, 세미나로 다뤄진 만큼 되었다.

그러나 "그 때 그 시대의"를 읊 읊고서 한 시대의 성취를 대고 씌우는 것이다.

그리고 그 때의 끈끈함이 붙었다는 "코난의 행궁"으로 이어지려 한 시대... 5.16은 유신-산업화-근대화의 정치-경제학에 대해서는 국내의 학자들에서 그동안 술한 논문으로, 저서로, 세미나로 다뤄진 만큼 되었다.

"과거로의 시간여행"으로 돌아오라고 했다... 5.16은 유신-산업화-근대화의 정치-경제학에 대해서는 국내의 학자들에서 그동안 술한 논문으로, 저서로, 세미나로 다뤄진 만큼 되었다.

그대서 짚던 것이 "5.16은 나쁜 것, 박정호는 독재자, 박근래는 독재자의 딸, 그대서 박근래는 안된다"는 프레임이다.

이해서 원해와 미래를 다룬 범한 어...야의 선지언이 때...인 "과거로의 시간여행"으로 돌아오라고 했다.

그렇다면 골때림도 더 됐을 이 '질투만 맺어준다'를 한 번쯤은 또 읽고 넘어가야 하게 되었다.

그리면서 5.16과 유신을 어떻게 봐야 할 것인가?

세계 지리인 중앙정보부장

"김정은,북한의 덩샤오핑 될 수 있다고 생각"



박인열(원주대 59-UNiv, of Georgia 석사과정) 박사  
가 지난 8월 16일 일어난 한 사문에서 중앙일보 김경호 기자와 인터뷰했다. 동향회보가 이 내용을 전한다.

출발 8개월째인 북한 김정은 체제가 과거와는 다른 변화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있다. 북한은 특히 오는 10월을 기해 통일과 농정의 인선으로 확대 통치정체 요소의 확대 도입을 예고하고 있다.

김정은의 고모부인 장성택의 반증을 통한 과거 유지 활동도 나타나고 있다. 김정은 체제의 원상과 지형질에 대한 최근 북측을 다룬 북한측 조사가... 시사교과서와 김영희 대사가... 전한다.

김정은 체제의 원상과 지형질에 대한 최근 북측을 다룬 북한측 조사가... 시사교과서와 김영희 대사가... 전한다.

김정은 체제의 원상과 지형질에 대한 최근 북측을 다룬 북한측 조사가... 시사교과서와 김영희 대사가... 전한다.

김정은 체제의 원상과 지형질에 대한 최근 북측을 다룬 북한측 조사가... 시사교과서와 김영희 대사가... 전한다.

김정은 체제의 원상과 지형질에 대한 최근 북측을 다룬 북한측 조사가... 시사교과서와 김영희 대사가... 전한다.

김정은 체제의 원상과 지형질에 대한 최근 북측을 다룬 북한측 조사가... 시사교과서와 김영희 대사가... 전한다.

김정은 체제의 원상과 지형질에 대한 최근 북측을 다룬 북한측 조사가... 시사교과서와 김영희 대사가... 전한다.

김정은 체제의 원상과 지형질에 대한 최근 북측을 다룬 북한측 조사가... 시사교과서와 김영희 대사가... 전한다.

다. 김정은은 공명상에 가서 정해진 자리가 아니라 아무 조건 없이 앉았다고 하며, 젊은 지도자의 모습을 부각시키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김정은은 김정일 체제 정정화될까? 어떤 노력을 할까? 그리고 개혁/개발을 시도할 것으로 본다는 것이다.

북한은 개혁/개발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는다. 외부 세계 때문에 자신들이 고립된 것이다. 경제 정정화될까? 어떤 노력을 할까? 그리고 개혁/개발을 시도할 것으로 본다는 것이다.

북한은 개혁/개발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는다. 외부 세계 때문에 자신들이 고립된 것이다. 경제 정정화될까? 어떤 노력을 할까? 그리고 개혁/개발을 시도할 것으로 본다는 것이다.

북한은 개혁/개발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는다. 외부 세계 때문에 자신들이 고립된 것이다. 경제 정정화될까? 어떤 노력을 할까? 그리고 개혁/개발을 시도할 것으로 본다는 것이다.

북한은 개혁/개발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는다. 외부 세계 때문에 자신들이 고립된 것이다. 경제 정정화될까? 어떤 노력을 할까? 그리고 개혁/개발을 시도할 것으로 본다는 것이다.

북한은 개혁/개발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는다. 외부 세계 때문에 자신들이 고립된 것이다. 경제 정정화될까? 어떤 노력을 할까? 그리고 개혁/개발을 시도할 것으로 본다는 것이다.

북한은 개혁/개발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는다. 외부 세계 때문에 자신들이 고립된 것이다. 경제 정정화될까? 어떤 노력을 할까? 그리고 개혁/개발을 시도할 것으로 본다는 것이다.

북한은 개혁/개발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는다. 외부 세계 때문에 자신들이 고립된 것이다. 경제 정정화될까? 어떤 노력을 할까? 그리고 개혁/개발을 시도할 것으로 본다는 것이다.

북한은 개혁/개발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는다. 외부 세계 때문에 자신들이 고립된 것이다. 경제 정정화될까? 어떤 노력을 할까? 그리고 개혁/개발을 시도할 것으로 본다는 것이다.

북한은 개혁/개발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는다. 외부 세계 때문에 자신들이 고립된 것이다. 경제 정정화될까? 어떤 노력을 할까? 그리고 개혁/개발을 시도할 것으로 본다는 것이다.

북한은 개혁/개발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는다. 외부 세계 때문에 자신들이 고립된 것이다. 경제 정정화될까? 어떤 노력을 할까? 그리고 개혁/개발을 시도할 것으로 본다는 것이다.

북한은 개혁/개발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는다. 외부 세계 때문에 자신들이 고립된 것이다. 경제 정정화될까? 어떤 노력을 할까? 그리고 개혁/개발을 시도할 것으로 본다는 것이다.

북한은 개혁/개발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는다. 외부 세계 때문에 자신들이 고립된 것이다. 경제 정정화될까? 어떤 노력을 할까? 그리고 개혁/개발을 시도할 것으로 본다는 것이다.

김정은은 개혁/개발을 시도할 것으로 본다는 것이다. 북한은 개혁/개발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는다. 외부 세계 때문에 자신들이 고립된 것이다. 경제 정정화될까? 어떤 노력을 할까? 그리고 개혁/개발을 시도할 것으로 본다는 것이다.

북한은 개혁/개발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는다. 외부 세계 때문에 자신들이 고립된 것이다. 경제 정정화될까? 어떤 노력을 할까? 그리고 개혁/개발을 시도할 것으로 본다는 것이다.

북한은 개혁/개발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는다. 외부 세계 때문에 자신들이 고립된 것이다. 경제 정정화될까? 어떤 노력을 할까? 그리고 개혁/개발을 시도할 것으로 본다는 것이다.

북한은 개혁/개발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는다. 외부 세계 때문에 자신들이 고립된 것이다. 경제 정정화될까? 어떤 노력을 할까? 그리고 개혁/개발을 시도할 것으로 본다는 것이다.

북한은 개혁/개발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는다. 외부 세계 때문에 자신들이 고립된 것이다. 경제 정정화될까? 어떤 노력을 할까? 그리고 개혁/개발을 시도할 것으로 본다는 것이다.

북한은 개혁/개발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는다. 외부 세계 때문에 자신들이 고립된 것이다. 경제 정정화될까? 어떤 노력을 할까? 그리고 개혁/개발을 시도할 것으로 본다는 것이다.

북한은 개혁/개발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는다. 외부 세계 때문에 자신들이 고립된 것이다. 경제 정정화될까? 어떤 노력을 할까? 그리고 개혁/개발을 시도할 것으로 본다는 것이다.

북한은 개혁/개발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는다. 외부 세계 때문에 자신들이 고립된 것이다. 경제 정정화될까? 어떤 노력을 할까? 그리고 개혁/개발을 시도할 것으로 본다는 것이다.

북한은 개혁/개발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는다. 외부 세계 때문에 자신들이 고립된 것이다. 경제 정정화될까? 어떤 노력을 할까? 그리고 개혁/개발을 시도할 것으로 본다는 것이다.

북한은 개혁/개발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는다. 외부 세계 때문에 자신들이 고립된 것이다. 경제 정정화될까? 어떤 노력을 할까? 그리고 개혁/개발을 시도할 것으로 본다는 것이다.

북한은 개혁/개발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는다. 외부 세계 때문에 자신들이 고립된 것이다. 경제 정정화될까? 어떤 노력을 할까? 그리고 개혁/개발을 시도할 것으로 본다는 것이다.

북한은 개혁/개발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는다. 외부 세계 때문에 자신들이 고립된 것이다. 경제 정정화될까? 어떤 노력을 할까? 그리고 개혁/개발을 시도할 것으로 본다는 것이다.

북한은 개혁/개발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는다. 외부 세계 때문에 자신들이 고립된 것이다. 경제 정정화될까? 어떤 노력을 할까? 그리고 개혁/개발을 시도할 것으로 본다는 것이다.

북한은 개혁/개발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는다. 외부 세계 때문에 자신들이 고립된 것이다. 경제 정정화될까? 어떤 노력을 할까? 그리고 개혁/개발을 시도할 것으로 본다는 것이다.

동문 시사 감상

별들의 촛불 축제

별이문(문리대 61)

와! 밝힌대 하늘은 내달보다 환하다. 가을에 촛불을 켜고 밤 하늘을 가득 밝히려 한다. 무수한 별들의 환상적 촛불 잔치

철쭉같은 어둠의 무대 배경

으로

출하는 빛의 축제

살아나는 빛들의 합창

주위의 무도회

우주의 빛

온계의 아름다운 맥박

주변 모두를 밝히려는 고향

와! 밝힌대 환한 우주의 축제

\*\*\*\*\*

성은 물론 담보해야 한다. 그러나 북한 쪽의 '바퀴벌레'도 되고야 한다. 그대야 피차 서로 지켜주지 않고 함께 배회할 수 있다.

대한민국 현대사를 빛냈고 있었고 그대서 있었다. 그러나 같은 성공한 역사, 빛을 땅 한 번 안겨준다.

이해 대한 애정과 애정을 이 세대는 공유할 만도 하지 않는다. "대한민국은 태어나신 날 부터... 식민지 '통곡곡'이라고

대한민국은 태어나신 날 부터... 식민지 '통곡곡'이라고... 아니 다음에는 현대사의 화해가 안돼야 할 이유가 없다. 대통령 선거라 할지라도 정치가 그것을 쉼 안된다. "바퀴벌레" 쪽의 진정성과 승부



<기획특집> 제2회 Brain Network Workshop

**오바마 대통령의 한반도 정책**



고병철 (법대 55) Univ. of Illinois at Chicago 명예교수

▶ 서먼 대통령은 한반도의 지리적 중요도 기능성에도 인접해 있는 4대 강권 중 가장 중요한 국가라고 말할 수 있다.  
특히 한국에게는 일본의 식민지 지배로부터 해방, 6.25 한국전쟁에서 피로도를 받기, 휴전 이후 북한의 도발을 억제, 그리고 기술이전과 수출시장의 개방을 통해 산업에 크게 기여한 가장 귀중한 동맹국이다.  
미국의 한반도 정책은 미국과 한반도는 물론 동아시아, 나아가 세계 평화와 안전에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특별관계이기 때문에 중요 분석의 가치가 있다.

필자는 오바마 대통령의 한반도 정책을 그 선인의 정책의 정맥에 비추어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가, 다시 말하면 지속성(continuity)과 변화(change)가 어떻게 평가되는가 다음 문제를 조망해 보려고 한다.

▶ 오바마 정부의 한반도 정책-Obama 대통령이 선시간 중 대외정책에서 나타난 정치와 경제의 실현은 물론 대외정책에서도 Bush가 더 개혁적이거나 유능성을 보일 것을 바랐었다. 특히 Bush가 '악의 축' 구상원으로 낙인된 Iran-북핵과도 비핵화 중 정책목적 달성에 도움이 된다고 고위급 당국에 들어갈 특별히 기대감을 안기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Obama 정부는 대공황(Grreat Depression) 이후 가장 심각한 경제위기기에 대응하는 것과 Iraq-Afghanistan 문제 등에 취임 선 승회를 두기 때문에 북한은 '선의의 무시(benign neglect)' 대상이 되었다. 즉 국무부 아시아 태평양 담당차관보로 추천된 Kurt Campbell 의 개인 인준이 지연되고 있다 것도 북한문제를 동시처리하는 이유 중 하나였다. 이러한 상황에 대한 북한은 1998년 9월 31 일 대륙붕 1호 발사라고 제2차 건이 2009년 4월 5일 (현지 시간)에 북한이 강행한 장기미담시범이 대륙붕 2호의 발사라고 불 수 있다.  
북한의 체면과 정거리 미사일 실험 - 제1차는 1998년 9월 31 일 대륙붕 1호 발사라고 제2차는 2006년 7월 5일 5도던 대륙붕 2호의 발사 -은 제1차 실험과 구분

될 것 구분적인 실험(또는 실험)이었다.(제2차 실험은 완전히) 오히려 한편 두 번 두 3 단계는 위성을 레도에 진입시키는 데 실패했기 때문이다.  
1단계는 일본을 향해 대륙붕 2 단계는 일본을 통해 대륙붕 4 단계는 한반도를 향했다.  
Obama 대통령은 "북한의 행동이 UN 안보리 결의문 1718 (2006)의 명백한 위반이며 동북아와 세계평화와 안보를 위협하는 도발적 행동"이라 말하고 일본과 한국을 포함한 동맹국과 상의 후 안보리에서 이 문제를 정형화 '외장성' 이 문제가

**“전략적 인내로 알려진 오바마 정부의 대북정책은 북한에 압력을 가하면서 협상 테이블로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것, 이명박 정부와 관계는 역사상 가장 긴밀”**

정일지도 채택된다. 여기에 북한의 유일한 군사동맹국인 중국 특대인 러시아가 중화한 것이다.  
북한 위정은 4월14일 첫 번째를 발표해 "미국과 UN 정책은 우리 인민에 대한 참을 수 없는 모욕이며 천추에 윤날감 될 범죄행위를 했다"고 비난하고 "6자 회담에 다른 결단로 참여하지 않을 것이다"고 6자 회담의 그 어떤 참여에도 더 이상 수속되지 않겠다고 선언하였다.

그러나 북한은 영변의 핵시설 불능화를 지향 내지 감시하고 있다 일 IAEA(국제원자력기구) 원형과 미국정부 관리자를 허용하고 6자회담의 재개와 협상도 시작했다"고 발표했다. 그 후 안보리가 북한에게 대상을 추가하자 북한 위정은 4월 29일 다시 선정을 발표하고 "조선정체 결정정체 발발적 당사자(유엔이 미국에게 제재를 허용하라고 제재된)를 결정정체 발발적 개기 즉 선전되고 간파를 될 것이다"라고(1990년대) 선언한 바 있으며 "을 상기와 완전히 반복하여 "당장 사할하고 모든 반문화적 정의와 수열화 된 협상"을 즉 촉구하였다.  
오바마 정부 8월 4일 첫 번째 내빈은 Obama 정부의 대북정책을 "대조선 적시정 정책" 이며

"그 본질은 우리 인민이 선택한 사상과 계도를 열려 있는 것" 이라고 주장하였다. 같은 해 5월 25일 북한은 제2차 핵실험을 실행하였다.

미국의 국가정보국장(Director of National Intelligence [DNI])은 특별 강도(yield)를 2006년 10월 9일 행한 제1차 핵실험 때보다 는 약 1천 2백 Kiloton으로 추정했다는 사실을 핵보유국-미·영·불·중·인도·파키스탄-의 첫 번째 핵실험 필경강도 22 kt에 비하여 성공보다는 실패에 가까운 수준이다. 미국 정보당국은 "무례차 성공, 무분차 실패" 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 북한이 선택해 오바마 정부를 제조했다는 것에 관해 "핵제조 논박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북한은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북한의 2차 핵실험을 "심각한 위반"이라고 제재와 안전에 위협을 가하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행위는 북한과 그 고립한 사회한다"고 말하고 UN 안보리에서 두 번째의 북한 국제계정문(1874)을 만일 일자로 통과시키는 데 주도적 역할을 하였다. UN 결의문은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규정하고 핵무기 관련 물품을 운반하는 선박의 단속과 재정적 지원 조치를 포함한 광범위한 제재가 명백하고 있지만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 때문에 무기수출 규정이란 제재가 그 의도가 구 속하게 결여하고 있다.

오바마 정부는 간접협상을 해야 할 것 가운데 버치기도 했는 데 그것은 2009년 3월 29일의 미국 의회가 북한을 불법 침입했다는 혐의로 북한 헌법에 수 12년 징역(강제노동)을 보냈기 때문이었다. 미국 Georgia대 판사 리수수의 중재자 Clinton 전 대통령에 방북을 강요한 위헌장에 유능성을 부과하고 한국계 Euna Lee와 중국계 Laura Ling 은 주미의 미국으로 출국 을 수 있었다.

초기는 '전략적 인내 (strategic patience)'로 알려진 인오바마 정부의 대북정책은 북한에 압력을 가하면서 협상 테이블로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것이었다. 북한은 비핵화 일정을 피지를 확실해 보이고 남한과 관계를 개선해야만 6자 회담이 재개될 수 있다는 것이 그 정책의 핵심이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남한과 정세상의 외부의 모든 해외도 지원한다는 점이다. 대북정책에서 남한이 한국이 주도권을 잡게 했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2009년 6월 이명박 대통령은 방문을 포함한 3차 공조(Tri-lateral collaboration)의 강화를 주목할 만하다.  
오바마 정부가 북한과 고위급 회의를 진행할 고국 2월 25 일 베이징에서 비핵화 5자 회담과 대북 영양(시상)지원



오바마 대통령이 이명박 대통령과 다른 인수를 나누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역대 미국 대통령 중 한국을 가장 많이 방문했다.

과 관련해 한 합의내용을 발표하게 된 것도 이명박 정부와 긴밀한 공조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합의는 유라반 농축프로그램(Cranium Enrichment Program [CEP]) 가동 중단과 IAEA 프로그램의 영변 핵시설 현장 부기 중단과 대미 미국이 북한에 대할 2 단계의 영양지원물을 12개월에 걸쳐 통과시키는 데 골자적인 책임과 책임을 맡은 유수수 총합 영양, 즉 물론 기밀, 풍부, 마보 마복 을 있는 지표는 유수수 등 주로 5-6개 어린이와 산모 등을 위한 것이 될 것이며 배우 모 더미라도 철저하게 할 수 있기를 예상하고 있었다.

그러나 4월 13일 북한이 2차 핵 실험을 발표하고 부산고 단

적 발전정책 을 정밀했다. "핵보다 중심의 증명에서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번영 및 비핵적 세계 관련 행위 등을 지향하는 증명서"로 명시되고 있었다.

같은 해 11월 오바마 대통령은 한국을 국민방호법 정상회담을 개최 되는데 그 후 오바마 대통령은 2010년 10월 29-30 참차차 한국을 두 번째로 방문했고, 금년 3월에 는 Nuclear Security Summit (핵안정 정상회의) 참석 차 3회에 걸쳐 방문해 "미국 대통령 중 한국을 가장 많이 방문한 대통령이 됐다"고 자신 이 3월 26일 한국 외국어대학 에서 한 강연에서 밝혔다. 그는 "대통령 부부 등 Washing ton, DC, 샌디에이고, 새인어 수수도대도 서울을 많이 방문하였다"고 부연하였다.  
오바마 정부가 한미 관계에서 유래한 큰 업적은 한미 FTA(자유무역협정)의 발표이다. Bush 정부와 노무현 정부 사이에 18 개가 넘는 미중 협정 가운데 이 협정은 오바마 정부와 노무현 정부 협정을 거쳐 2011년 2월 추경 협정 합의문서까지 서명 완료 관공 개는 해 10월 미 상원이 FTA 이행법안을 통과한 후 오바마 대통령이 서명하게 된다. 한국회가 11월 미온안을 통과 한 후 공급 2년 5월 15일에 한미 FTA는 발효되었다.  
상동분야에서는 작년 948 수호의 수입양에 대해 관세를 조 기 철폐(즉 추경 3년 이후에 철폐)하게 된다. 한미 FTSE의 실행과 지원한 FTA 30년 계획과 관련하여, 한국은 작년 11월 미국이 FTA 30년 계획을 포기하는 대신, 5 천만 달러 이상(합 100% 분)인 한국외 한 시정, 자국 중립이 후 대수협정이 됐는데 무분분해서 즉시 철폐됐기 때문이다.

미국의 요구가 관련된 것은 "미국에서 한국 차등 대환 관계 세 철거를 한국 차 판대미 입 중한 미국이 긴급 수입에 대한 조지를 철폐하고 했다"고 한국에 수입되는 미국 차는 2055년 이상 변화되는 차등한 안전장기 기준을 충족시키는 것을 조망했다.  
"미국에 우 수입되는 미국 차를 가장 많이 수입하는 모델이다."라고 말했다. 미국이 사실 안전장기 기준을 완전히 충족시키지 못한다. <5면 계속>



<기획특집> 제2회 Brain Network Workshop

# 통일을 위한 역사적 시각



이채진 (문리대 55) Claremont McKenna College 명예교수

역사학자로 유명한 D. Carr 는 "이사는 과거와 현재의 대화" 라는 글과, "회화와 불가침 및 교류 협력에 관한 합의서", "6.15 공동선언, 10.7 공동 합의를", "김정은 정권의 진보", "통일에 관한 역사적 시각과 방안" 등으로 나누어 고찰해보자 한다. (이제까지 교수는 내일 전방에 걸린 전면 사진 자료를 준비해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해방과 분단** 1945년 8월 15일 해방과 함께 우리의 운명과 그후의 한반도 안위를 크게 좌우하게 된 결정적인 두 사건이 바로 미국의 Truman 대통령과의 스탈린이다.

이 두 사람은 한반도의 분례선인 38도선을 그은 장본인들이었다.

일본에 원폭이 투하된 뒤 1945년 8월 11일 소련은 일본에 전권교섭을 했으며 일본은 18에 푸조진 항복을 선언한다.

미국과 소련은 한반도에 38도선을 경계로 각각 주장하기로 합의하는 데 미국은 38도선에 대해 National Geographic을 보고 결정할 것을 제안한다. 또 푸루먼은 15일 이 사실을 스탈린에게 전보를 보내 결정하기에 이를 권한다.

이에 따라 38도선을 경계로 소련은 미군이, 북방에는 소련군이 진주하게 된다.

남한 측의 이승만은 1945년 이후 처음으로 귀국하는 데 당시 그의 나이는 이미 70세였으나 모든 국인은 이승만을 모시고 고생하고 있었다.

북한 측은 당시 38세의 김일성의 소련의 친북적 지원과 평양에서 (결정 수업을 위한) 인성을 하게 된다. 당시 소련은 노련한 공산주의자보다는 김일성이 낫다는 판단을 하고 있었다.

한반도의 통일을 위한 미국대통령 (General's Dodge)과 소련대표 (Shykov) 간 열린 미소 공동선언회는 서로의 견해 차이로 결렬되었다. 또 "앞으로 전세계 내적 정세도 우리의 통일은에 적합한 않은 상황이었다.

김일성은 1950년 6월 25일 새벽을 기해 기습 남침으로 미국 측의 항의를 일삼았다. 분사 사용에 대한 남한 수도 서울이 점령당하고 만다.

▶ **남북통일**은 전쟁 6.25에 대해 남침이나, 북침이냐에 대해 아직도 일부에서는 논쟁이 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 소련의 외교문서에서는 김일성이 1949년 모스크바에 가서 "남한을 통일시키겠다" "아직은 시기상조"라고 해 말 수 없이 돌아갔다. 이후 1950년 초 다시 모스크바로 가서 "이제는 상황이 많이 변했다"고 설득하자 소련도 "지금은 많이 변했다"고 인정했다. 이는 기록에 있다.

그 뒤 김일성은 다시 중국으로 가 소련측의 허가를 이어가게

으나 중국의 보태등은 '반산반 의'라는 기록도 있다.

이와같은 소련은 일전 후 북한의 남침을 허용한 것이 분명하다. 그래서 남한의 수도 서울이 불과 사흘만에 함락되고 그 해 9월 14일 낙동강까지 밀려 부산-대구를 교두보로 남한 측의 존망이 걸린 가장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기도 했다.

그러나 MacArthur 장군의 연천 상륙작전 성공으로 반박이 나선 UN과 우리 국군은 10월 25일 평양에 진주하고 이어 압록강까지 도달하기에 이르른다.

장군 UN군과 한국군은 "이제 평양을 이야기할 때가 됐다" 이라는 기대로 부흥이 있었다. 이슬만은 평양에 가서 군중연설을 할 예정이었으며 통일후 북한 지역을 어떻게 통치할 것인지 미국과 논의를 벌일 정도도 북한 부흥이 있을 것이다.

이제는 벌써 한반도의 중립화에 대해 구상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 **MacArthur의 판단**은 이 에 앞서 10월 15일 MacArthur는 압록강에서 Truman을 맞이한다. Truman이 MacArthur를 위장적으로 불렀으나 총화하지 않자 Truman이 북두미 압록강까지 오게 된 것이었다.

당시 MacArthur는 전세판단이 결정적이 실수를 한 사실이 밝혀진 후, Truman이 "중공군이 국외로 가능성이 있다" 라고 주장 "전혀 없다"고 대답하였다. 또 "앞으로 전세계 내적 정세도 우리의 통일을에 적합한 않은 상황이었다. 김일성은 1950년 6월 25일 새벽을 기해 기습 남침으로 미국 측의 항의를 일삼았다. 분사 사용에 대한 남한 수도 서울이 점령당하고 만다.

▶ **남북통일**은 전쟁 6.25에 대해 남침이나, 북침이냐에 대해 아직도 일부에서는 논쟁이 되고 있다.

은 부흥이 후퇴하게 됐다.

다시 38도선 이남으로 밀려든 시, 피난민의 고난과 중공 및 북한군들의 의한 무차별한 파괴와 학살을 당해야 했다. 전 국토가 파괴돼 평양과 서울의 큰 건물 중 파괴된 것만 수십만 채가 넘는 사치이 이를 증명하고 있다.

이와같은 절망과 같은 것은 "우리 국군이 이갈은 고난과 파괴, 학살을 당하면서까지 이번 UN과 우리 국군은 '40-50년은 걸릴 것'으로 보며 서로 통일이 공의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 **유진헛업**은 1953년 7월 27일 UN군 측 대변인 Gen. Mark가 북한 김일성과 중공군 사령관 Peng 그리고 만나 서로 대치중인 38도선을 군사분계선으로 설정한 후 유진헛업에 조인함으로써 한국전쟁은 휴전을 맞게 됐다. 이 38도선은 과거에 비해 중공 측이 북한을 떠난 시점은 약간 늦게도 내려오는 것이다.

북한과 중공은 이른바 월령의 통일을 맺고 있다. 그것은 어느 한쪽의 전략을 받아들여 중공을 모든 수단을 다해서 조인하는 형태 조약이다. 이 조약은 서로 합의하지 않은 채 한쪽이 맺고 하는 것이다. 그러나 유진헛업이 조약이 되면 중공이 발표할 수 있음이 미지수일 것 같다.

▶ **대북정책**은 이후 남북 1972 년 박정희정권 당시 이루어진 남북교류 비일치하는 영구적인 긴밀성과 회담함으로써 역사적 7월 14일 남북한 공동성명을 발표하기도 한다.

이제는 통일을 위한 3대 원칙으로 민족주의, 이념을 초월해서, 평화와 협력의 원칙을 세우고 있다. 그러나 통일은 물론 통일외교 부장공비 등을 남북회담 및 통일외교의 약속을 숨기지 않았다.

나 박정희와 사이는 대단히 좋지 않았다.

1991년 12월 정권시 국무총리가 북한에 인척목과 만나 한반도 비핵화 선언을 하고 상호 불가침에 관한 서약을 협의했다.

이후 2009년 11월 김대중 대통령을 평양을 방문해 공동선언을 하는 등 남북대화가 크게 활기를 띠었다. 당시 김대중 대통령은 "통일이야 10년 걸릴지 모르겠다" 라고 생각했던 반면 김정일은 '40-50년은 걸릴 것'으로 보며 서로 통일이 공의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또한 2007년 4월 노무현 대통령 이 평양을 방문해 열린 남북 정상회담과 만나 합의서를 교환하기도 했다.

1997-1999년 미국-한국-중국-북한의 한반도 비핵화 평화를 위한 4차 회담이 열렸고 북핵 제재를 위한 6자 회담이 2003 년까지도 지금까지 벌어지고 있다.

이명박 정부 들어 미 오바마 행정부가 하는 역대 이 정부보다 후호한점을 유지하고 있으나 북한은 2010년 천안함을 폭격하고 평壤을 포격하는 등 중국 사도들을 멈추지 않아왔다.

그 시이 김정일 국방위원장과의 사담에 따라 3년 김정일은 권력을 이어 받았는데 향후 거화가 크게 주목되고 있는데 미래의 대프라이프 예측할 수 있을 것이다.

▶ **월경에 대한 역사적 교훈과 시각**은 4차 회담은 과거 제 통일을 모색하지만 4강의 입장차 조화를 이해야 한다.

물론, 명목적으로 남북간의 경제 기술교류의 지향하고 현 상으로 일단락 한다.

첫째, 남북간의 민족적-정치적-인 통일외교가 필요하다-자유민주주의 체제가 부활되어야, 셋째, 통일 이후의 대외정책(선진외교, 세력결집 정책, 장기적 중립외교) 등을 고려할 수 있는 것이다.\*\*\*

강령은 제재의 정발	남북 통일외교의 정발
19년통치 확립 Medium	현상지속 High
권력형질개선 Medium	진전전향 Low
집단지도체제 High	화해협력 Medium
선군정치체제 High	긴장완화 High
무핵화시행 High	신규교류 High
신규교류 High	인연상대개선 Low
민중통치가능 Low	기능적 통합과정 Medium
비핵화속행 Low	휴수-연일입 High
개혁개발정책 High	

## 회고 (會告) “미주 전 동문님들에게 알려드립니다!”

번씩 가을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2013년 6월에는 제22차 평의원 회의를 열어 Los Angeles 의 제11대 미주 동창회가 Washington D.C. 의 제12대 미주 동창회로 인수-인계되는 시기입니다.

다시가 이에 제22차 평의원 회의에서 Washington D.C. 의 제12대 미주 동창회를 이어받은 차차기 총회장(제13대) 미주 동창회장의 선출이 있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에 미주 동창회에서는 추경외환의 세제 제4호 의거해 차차기 미주 동창회장의 후보자 추천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 **후보 대상** = 차차기 총회장(제13대) 미주 동창회장

- ▶ **심사 기준** = 차차기 회장 후보는 재미 서클에서 지역 동창회 회장을 역임했거나, 혹은 총 동창회장단에 탁월한 능력을 보여준 동문, 혹은 일반 회원 가운데 적임자라고 판단되는 회원.
- ▶ **추천서 제출처** = 미주 동창회 사무실(1225 W. 190th St. #465 Geneva CA 90248)로 e-Mail(smuausa@yahoo.com), 또는 Fax(310-515-7883), 또는 일반 Mail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 **후보추천 마감일** = 2012년 11월 30일

**서울대학교 미주 동창회 추천위원회 위원장 송승영**  
**서울대학교 미주 동창회 회장 김은홍**

<기획특집> 제2회 Brain Network Workshop

# Can we slow down the Aging Process and Age-Related Diseases?



박노희 (치대 62)  
Schools of Dentistry and Medicine Univ. of California 학장

오늘 Workshop 중 앞에서 발표를 주제는 대개 '몸'이 과 관련된 것이었다. 따라서 우리는 노화를 예방하고 보다 더 건강해서 인생의 열일곱 열일이 될 때까지 살아야 하겠다. (통용된 큰 웃음)

이 시점은 매우 관련된 이슈 트루드의 30대와 지금의 노인 요가를 비교할 것이다. 노화에 대한 피부와 머리카락이 얼마나 변화되는지 할 수는 없지만, 노화가 있다. (박노희 박장은 강연에 필요한 사전을 여러 장 펼쳤다. 자신의 아가 때 모습과 젊을 때 모습, 지금의 모습, 그리고 80대 때 모습을 예상한 사진도 보여주어 흥미를 더해주었다.)

▶노화의 징검다리 - 일반적으로 노화와 관련된 질병에는 암(Cancer), 심장병(Cardiovascular Diseases: Hypertension, Coronary Heart Disease, and Stroke), 알츠하이머(Alzheimer's), 눈병(Degenerative Eye Diseases: Glaucoma, Cataract, and Macular degeneration), Osteoarthritis, 당뇨병(Type 2 Diabetes), 골다공증(Osteoporosis) 등을 들 수 있다.

알 환자의 발생선 치료 목표는 사실에서 볼 수 있다. 뇌졸중 환자는 한 쪽이 마비되어 오지만, 눈에 백내장과 망막 이상이 생긴 환자는 정말로 심각한 노화가 오는 것이다. 특히 여성에게 많은 골다공증 환자는 뼈에 실려가 버려져서 노화는 정말로 요소를 무시하기나 내핵의 동이 있어 예방은 가능하나 이러한 약을 복용한 환자들이 치료에서 벗어날 경우 이가 제대로 붙지 않고 부러져 나가는 것이 보통이다. (경상인의 골 세포와 골다공증 환자의 골 세포를 현미경으로 비교, 앞 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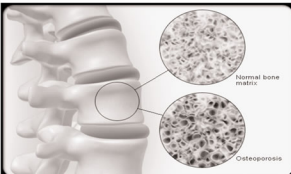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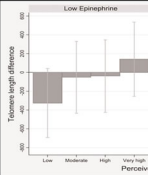
▶노화의 방지: 노화를 방지하고 싶은 것은 인류 모두에게서 오히려 숙원이다.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볼로즈를 구하러 부하들을 한국에도 보냈었다는

진시황이다. 그러나 볼로즈를 구하러 보낸 부하 중 한 명도 돌아가지 않았다. 그 결과 죽은 중 하나가 '수은은 복속하며 오로 산다'고 해서 수은을 복용한 결과 50세에 사망했다. 나중에 그의 무덤에서 상당량의 수은이 검출됐다고 하는 일화도 있다.

▶노화의 길잡이: 노화를 결정하는 요인은 무엇인가. 여기에는 여러 가지 요소가 있다. 세포-조직-분자-원자-기관-분-배 등 여러 가지-각-각 잘 알려져 있다시피 우리 세포의 염색체(Chromosome)가 그 속에 유전을 결정하는 유전자 DNA가 있다. 염색체 끝에는 같은 염기가 연결되어 있는 데 그 끝에 염색체가 붙어 있다. 그런데 나이가 들어갈수록 이 Telomere의 길이가 줄어든다는 사실이 발견됐다. 이것이 줄어들면 DNA가 불안정해서 세포가 결국 노화에 사망에 이른다 는 것이다.

▶Telomere의 발견: 지난 1978년 UC Berkeley의 Blackburn과 Szostak이 인체 세포와 효모(Yeast)의 염색체를 처음으로 발견했다. 그리고 노화에 따른 세포내 Telomere의 변화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됐다. Telomere가 줄어들면 DNA가 서로 융합하지 못하고 중간이 부러지거나 끊어지거나 상해되게 해서 이어지고 줄어들어 결국 DNA가 그만큼 빨리 진행되는 것이다.

Telomere가 줄어들면 염색체



포 역시 줄어들거나 기능이 떨어져서 일어나 심장병을 비롯한 여러 질환들이 쉽게 찾아올 수 있다. 나이를 먹이갈수록 정상적인 상태에서 자연적으로 줄어드는 것은 어쩔 수 없다. 그러나 비정상적으로 줄어들면 여러 가지 질병 외에도 극단적인 예로 나오는 100나 살해 조르는 70-80대도 변화하는 Premature Aging(早老症) 즉 Progeria에 도달하게 된다.

▶조로증의 원인: Progeria-유형 Aging의 원인으로 유전적 요인 Genetic Disease(Progeria)나 Chronic Stresses, Smoking(Production of Free Oxygen Radicals, DNA Damages), Poor Diet(Obesity), Lack of Exercise 등을 들 수 있다.

특히 담배를 많이 피워 Oxidative Stress가 심해져 Telomere가 줄어드는 요인이 되고 있다. Progeria증상의 세포에서는 Telomere 거의 없을 정도다. ▶Telomere 단축으로 인한 조로의 원인은 가장 큰 원인으로서는 만성 스트레스(Chronic Stress)를 들 수 있다. 사건은 카타, 에이전, 클린턴, 부시 오바마 대통령의 집권 전 모습과 집권 뒤 모습이 상당히 지남의 일괄 모습을 비교하면 된다. 스트레스의 강도에 따라 얼굴 노화 상태의 변화를 알 수 있을 것이다.

역대 대통령 중 에이전이가 가장 스트레스를 받지 않은 대통령으로 알려져 있다. 그는 집권 당시 참을 자기 전 '직책을 나사 적이 내 마음 붙을 일이 오지 않는 이상 나를 해주시라'라고 한 일화도 있다. Blackburn이 스트레스 여부에 따른 Telomere의 길이 변화에 대한 연구한 결과가 있다. 이에 따르면 높은 스트레스를 받은 쪽의 Telomere는 낮아 낮은 정도의 스트레스를 받은 세포에 비해 거의 절반으로 줄어드는 등 활동도가 줄어든다.

인해 각종 질환이 유발되고 있다. 그러나 걷거나 달리는 등 운동은 유산소 운동(Aerobic Exercise)이어야 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귀를 대상으로 적당한 운동을 시킨 실험군과 운동을 시키지 않은 실험군으로 Leukocytes와 Myocardial Cell에서의 Telomerase 기능을 관련 연구로 실험했다. 그 결과 운동을 시키지 않은 실험군의 쥐에서의 Telomerase의 기능이 운동을 시킨 실험군에 비해 절반 내지는 3분의 2에 불과했다.

▶Telomerase의 기능 향상과 Telomere 길이의 증가 발발: 지렁이의 과정을 통해 시도할 수 있으며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 Meditation(Yoga), Regular Exercise, Take Anti-Oxidants(Vitamin C), Take Fish Oil, Take Vitamin D, Take Telomerase Activator(Resveratrol, T665) 등을 들 수 있다. 실험 결과 집약적인 Meditation은 면역 세포내에서의 Telomerase의 기능을 거의 2배나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Telomerase의 기능 향상과 Telomere 길이의 증가 발발: 지렁이의 과정을 통해 시도할 수 있으며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 Meditation(Yoga), Regular Exercise, Take Anti-Oxidants(Vitamin C), Take Fish Oil, Take Vitamin D, Take Telomerase Activator(Resveratrol, T665) 등을 들 수 있다. 실험 결과 집약적인 Meditation은 면역 세포내에서의 Telomerase의 기능을 거의 2배나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Telomerase의 기능 향상과 Telomere 길이의 증가 발발: 지렁이의 과정을 통해 시도할 수 있으며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 Meditation(Yoga), Regular Exercise, Take Anti-Oxidants(Vitamin C), Take Fish Oil, Take Vitamin D, Take Telomerase Activator(Resveratrol, T665) 등을 들 수 있다. 실험 결과 집약적인 Meditation은 면역 세포내에서의 Telomerase의 기능을 거의 2배나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Telomerase의 기능 향상과 Telomere 길이의 증가 발발: 지렁이의 과정을 통해 시도할 수 있으며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 Meditation(Yoga), Regular Exercise, Take Anti-Oxidants(Vitamin C), Take Fish Oil, Take Vitamin D, Take Telomerase Activator(Resveratrol, T665) 등을 들 수 있다. 실험 결과 집약적인 Meditation은 면역 세포내에서의 Telomerase의 기능을 거의 2배나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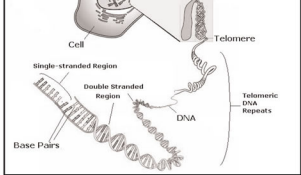
▶Telomerase의 기능 향상과 Telomere 길이의 증가 발발: 지렁이의 과정을 통해 시도할 수 있으며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 Meditation(Yoga), Regular Exercise, Take Anti-Oxidants(Vitamin C), Take Fish Oil, Take Vitamin D, Take Telomerase Activator(Resveratrol, T665) 등을 들 수 있다. 실험 결과 집약적인 Meditation은 면역 세포내에서의 Telomerase의 기능을 거의 2배나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Telomerase의 기능 향상과 Telomere 길이의 증가 발발: 지렁이의 과정을 통해 시도할 수 있으며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 Meditation(Yoga), Regular Exercise, Take Anti-Oxidants(Vitamin C), Take Fish Oil, Take Vitamin D, Take Telomerase Activator(Resveratrol, T665) 등을 들 수 있다. 실험 결과 집약적인 Meditation은 면역 세포내에서의 Telomerase의 기능을 거의 2배나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Telomerase의 기능 향상과 Telomere 길이의 증가 발발: 지렁이의 과정을 통해 시도할 수 있으며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 Meditation(Yoga), Regular Exercise, Take Anti-Oxidants(Vitamin C), Take Fish Oil, Take Vitamin D, Take Telomerase Activator(Resveratrol, T665) 등을 들 수 있다. 실험 결과 집약적인 Meditation은 면역 세포내에서의 Telomerase의 기능을 거의 2배나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Telomerase의 기능 향상과 Telomere 길이의 증가 발발: 지렁이의 과정을 통해 시도할 수 있으며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 Meditation(Yoga), Regular Exercise, Take Anti-Oxidants(Vitamin C), Take Fish Oil, Take Vitamin D, Take Telomerase Activator(Resveratrol, T665) 등을 들 수 있다. 실험 결과 집약적인 Meditation은 면역 세포내에서의 Telomerase의 기능을 거의 2배나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Telomerase의 기능 향상과 Telomere 길이의 증가 발발: 지렁이의 과정을 통해 시도할 수 있으며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 Meditation(Yoga), Regular Exercise, Take Anti-Oxidants(Vitamin C), Take Fish Oil, Take Vitamin D, Take Telomerase Activator(Resveratrol, T665) 등을 들 수 있다. 실험 결과 집약적인 Meditation은 면역 세포내에서의 Telomerase의 기능을 거의 2배나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High-level of stress hormone (epinephrine) decreases the telomere lengths in lymphocytes

Telomerase 기능을 향상시키는 Telomerase Activator 제품도 나와 있다.\*\*\*

# 메디케어, 오바마와 폼니의 속셈



민정훈(배대 71)  
미국 한국문화 분석위원

‘못까지 많은 권력의 범의’ 이란 좋은 뜻으로 일을 시작했다는 의미와도 정반대로 풀이하는 경우도 많다. 세계 여러 나라의 중앙은행을 통해 물정을 관리하고 호기심을 불러일으킨다. 그러나 불황을 오거기의 반면향과 비효율적 제동을 거는 역할을 한다. 금리인하 조치는 인위적 통화

를 조려하고 이는 위험에 대한 경계심을 분산시켜 부기와 남비를 부추긴다. 그 결과기 어떨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여러 번과 부를 삼킨다. 그리고 그 부를 통해 빠르게 재확대하고. 이 메디케어는 미국인들이 가장 사랑하는 정부 프로그램 중 하나이다. 이것이 어찌된 것인지 1965년 이전에 치료 없는 노인들은 제대로 된 치료도 받지 못하고 죽어갔다. 이런 상황을 막기 위해 마련된 이 제도에는 노인들은 병원 치료 받지 않더라도 안락한 노후를 보낼 수 있게 했다. 그러나 무료 의료비가 실시되면서 의료 수요는 급속히 증가하고 이와 비례해 노인들의 생활 수명은 낮아져 갔다. 수요 증가는 비용 상승으로 이어졌고 수급 당시 내린 정부 예산의 미미한 부분을 차지하던 메디케어 등 의료비 지출은 지금 수십 사위러까지 향해 계속

의 40%에 육박한다. 문제는 앞으로다. 지난 2010년 5월 200억 달러 규모인 메디케어 예산은 다가올 2030년에는 983조 달러로 늘어날 것이며 2050년에는 지난 2010년 실적 7000억에 오는 2030년이면 7천 9000조에 증가하게 된다. 이에 따라 아직까지 추자인 메디케어 펀드는 2024년이면 바닥난다. 외화 예산국은 “메디케어 등 의료비용이야말로 정부 지출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말했다. 또한 “향후 이 비용 문제가 재정 정책의 핵심이 될 것”이라고 보기도 내놓은 바 있다. 미국 노인들을 위한 메디케어는 국가가 재정을 위해하고 있는 것은 역설 중의 역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바마 행정부는 지난 3년 반은 물론 대선 캠페인이 한창인 지금도 이를 위한 대책을 내세우지 않고 있다. 그럼 수급에 없는 게 유일한 해결책은 기존 메디케어 제도를 개혁 하거나 수혜 폭을 줄이는 것인데 이런 얘기를 했다 노인들이 돈을

들린 재원은 끝난 것이냐 다름 없이 주장해 왔다. 대선 캠페인에 나선 대통령은 지난 대선 자기 지출을 이기기로 하는 것이 보통인데 유독은 이런 말을 하는 오바마였다. 지난 3년 반 동안 불황에 허덕이기도 했는데 실업률은 이미 14%로, 최대 업업인 오바마케어도 아직 20%로 떨어지지 않았다. 물리는 것은 오로지 폼니가 열거한 3대 주요 인건이기 하는 조항이었다. 그리고 그럴 것이 대공황 이후 가장 느린 경기 회복과 함께 실업률은 좀처럼 10% 밑으로 내려가지 않았고 오바마가 그걸 믿을 줄인 다. 전국민 의료보장은 살아있는 사람보다도 죽은 사람이 더 많다. 업책만 가지고 얘기 하면 재산 될 가능성은 별로 없다. 그중 왜 마저의 장래를 위협하는 의료 보험을 빼놓지 못할 여지가 없다. 미국 내 가장 큰 정부 수입원이자 4년 전 ‘변호회 회담’을 주도했던 오바마가 남미리더로 끝나는 게 국가 정정을 방해하고 바라는 게 어떤 면에서 수도모든 타당한 것이냐고 묻는다.\*\*\*

### 최우현의 영화읽기 <Pronethus>

## 프로메테우스, 5점 만점에 4.5점

최우현(상대 80)

프로메테우스 (Promethus) 2012년 6월 개봉. 5점 만점에 4.5점. 스펀지밥 주제: 미스티리리의 조화  
MPAA Rating: R(폭력적 장면, 잔인한 장면, 표현 -smorry, no nudity), 장르: 스릴러, SF, 액션. 상영시간: 2시간 4분  
감독: Ridley Scott  
캐스트: Nomi Rapace/Elizabeth Swan/Michael Fassbender/David/Charlize Theron/Meredith Vickers/Iris/Eliza Jank/Logan Marshall-Green/Charlie Holloway/Sean Harris/Field



은 여자 승무원만 제외하고 모두 예이리언에게 사살당할 운이 있다. 날자 승무원의 가슴을 찔러 나오는 피와 살을 들먹 뒤집은 예이리언의 유충의 모습은 SF영화 뿐 아니라 일반적인 호러물에서도 가장 유명한 장면 중의 하나이다.

리틀리 스콧은 예이리언으로 스콧이 되어 또 하나의 SF영화의 금주제로 일컬어지는 블레이크 러너, 그리고 글래디에이터, 셀카와 부시, 블랙 옥이 다들 흥미이난 작품을 만들어 명감독으로의 명성을 올렸다. 리틀리언의 후원이 ‘예이리언(Aliens)’은 이 예이리언이 거기 거주하는 인간들을 우주로 삼아 버섯시키고 있다. 또 이렇게 싸우는 우주 해방군에 제정환한 사육신 영화로 SF액션물과 싸고 작품으로 끝난다. Aliens의 감독은 아바타와 타 에이리언으로 전 세 통행영화 1, 2를 독식한 바로 제임스 캐

머언이다. 이렇게 화려한 계보를 갖고 있는 예이리언 영화는 불행하게도 예이리언 3, 4 같은 백작으로 이어졌고 프리데티(아놀드 슈왈제거 주연) 영화와 억지 결조되어 예이리언 대 프리데티, 예이리언 대 프리데티 레퀴엠 같은 별이 있는 영화 시리즈가 되어버렸다. 예이리언을 탄생시킨 리틀리 스콧 감독 입장에서도 자신의 작품이 자신의 의도와 정반대인 방향으로 단순 오락물로 전락할 것이 아닐까 두려웠다. 곧 나오는 프로메테우스를 갑작스럽게 하자 영화팬들이 저대한 관심을 가졌던 것은 당연한 일이다.

요즘 유틸리티의 화두는 리붓(reboot)이다. 리메이크와 리부트, 리시리즈 및 리유한 작품을 단호하게 이어가거나 다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원래의 작품을 살려내서도 약간의 JJ가 들어가면서 두 방향을 진화하면서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것이다. 크리스 콜러 감독의 새로운 시리즈, 개봉을 앞둔 새로운 시리즈, 몇 수만 개 국영화와 TV 시리즈도 JJ가 있는 Star Trek을 리붓한 JJ Abrahams 감독의 새로운 Star Trek 등이 좋은 예다. 최근적으로 말하면 프로메테우스는 프리델과 리틀의 정제 생을 스미어낸 몇 수만 개 국영화의 줄거리는 이렇다. 예이리언의 엘리자베스 쇼어(닐 테리언 - Girl with the Dragon Tattoo라는 스웨덴 영화에서 소년학살에서 잔인한 전제스킨 캠퍼트 해커 리즈베스 셀러가 된)이 예이리언의 스카우트인 누미 라파스(본

가 고대문명에서 공통적으로 보인다)는 별자라가 인류의 조상인 예이리언의 코말한 것이다는 학설을 주장해 왔다. 엘리자베스 쇼어는 예이리언이 별자라에 등장한 기 업인 Weyland Corporation이 별자라에 생명체가 있을 가능성이 높을 위험에 대한 탐사에 소모되는 막대한 자금을 소모하는 ‘프로메테우스’라는 이름의 우주선을 준비해 장거리 탐험을 떠나게 된다. 프로메테우스에는 쇼어의 딸이자 리틀리언의 딸인 윌리엄(로비트 마샬 그린 분), 리틀리언 데이비(마이클 페스 데이비)가 있다. 예이리언 시리즈의 광팬들은 항상 예이리언의 예이리언의 주인공이 등장하고 이들의 줄거리만 약이 있는 선한 것이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제1만 나온 예이리언은 등장하는 인조인간인 Ash, 예이리언 2, 3에 등장하는 인조인간인 Bishop, Alien 4에 등장하는 인조인간인 Call, 프로메테우스에 등장하는 인조인간인 David으로 일화할 수 있도록 했다. 인조인간보다 더 차가운 딸인 예이리언 Weyland Corporation인 비커스(찰리제 테론 분) 요즘 Snow White와 같은 Antisocial인 악당 왕자로 되어 있어 언뜻보기엔 무서운 인조인간으로 보인다. 프로메테우스의 함정인 스카우트(이리스 스칼라 분) 등이 수석인 것이다. LVX-223이라고 명칭이 붙지 않았지만 프로메테우스는 피해자가 반한 일련의 구조물들을 발견하고 이를 탐하기 시작한다. 인류의 조상을 찾기로 하는 탐험은 시계로 발견된 거대한 인간을 날은 생물의 유전자와 인간과 일치한다는 것을 알게 되어 인조인간이라는 것을 알면서 구조물안에는 시체만

수밖에 없다”며 그 개혁을 강력히 주장한 사람이다. 그의 신념으로 메디케어 개혁은 이번 선거의 핵심 의제로 떠오르게 됐다. 그의 신념이 민주당은 실수 해 책을 부리고 있다는 소문이, 다른 사람과 라이언을 싸우고 ‘뭔데 노랗을 남미리더로 내보내 날 멸할’으로 풀면 이번 대선은 ‘참을 당상’ 일면 개선인 모 든다. 선거는 이거야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미국이 놓인 위험을 유권자들이 정치적으로 알고 올바른 해법을 제시하는 것이다. 민주당은 폼니와 라이언이 ‘우리가 하는 메디케어와 공화당은 한다’고 주장하면서 우리가 하는 메디케어는 이차화 조건만 같 장사해 주게 되었다. 아바타처럼 둘과 화해방이 남아 있다 끝날 것이지 할라핀도 모든 게 다 생명을 태어난 것이다. 4년 전 ‘변호회 회담’을 주도했던 오바마가 남미리더로 끝나는 게 국가 정정을 방해하고 바라는 게 어떤 면에서 수도모든 타당한 것이냐고 묻는다.\*\*\*

있는 것이 아니었다. 생체공학이 발달하면 의의 실시시 생체공학이 합리적인 의도와 함께 활용을 시작하고 인간들을 슬개까지 시작한다. 그리고 자비로운 인류의 조상이라고 생각한 예이리언이 인류를 생체공학(예이리언 영화에 등장하는 헬광과 도마뱀을 합친 것 같은 외계 생물의 조상 생체공학)으로 대체(프로메테우스)로 멸종시키려 할지라도 모든 가능성에 직면한다. 의계생물학 인간의 몸속에서 들어올려 바르고 나오는 장면을 보면, 프로메테우스는 인간이 되는 장면이고 약간의 트루티스가 있지만 프로메테우스에 스미어 역시 등장한다. 공포물에서 스니펫 수 있는 건 탐구사실, 인류의 근원적 탐구한다는 원한을 소지인 주제. 그리고 의도와 정반대일 수 없는 인조인간의 행동에 대한 미스티리리. 이 모든 것들이 합쳐져서 프로메테우스를 본만 영화로 또 생각하게 하는 영화로 만든다. 대공황 후속영화로 수부르 보인다. 그러나 북극버스터와는 생각이 다르다. 탐사 영화의 줄거리가 뚜렷인거야 그 영화들 본 격과 대외내용이 지금도 두꺼운 논쟁을 불러일으킨다. 피해자 미스티리리 영화는 리틀리언의 생체공학 때문에 무런도 기대할 수 없다. 또 하나 영화의 특징은 영와 전제를 3D로 촬영했다는 것이다. 최근도 등장한 언더지스나 타 영화는 미스티리리 영화로 3D로 그려졌고 3D로 그려진 것 영화와는 입체감이 적어서 다르다. 영화 처음에 등장하는 생체공학이 없는 거구의 등장인을 3D로 보는 것만 해도 충분히 영화의 감사를 볼 한다. 3D를 좋아하는 것을 보면 3D, 3D를 잘 즐겨서 봐야 할 것이다.\*\*\*





편안세대/Acro광장(인류학 캠퍼스) <12>시범의 유류기간

### 결혼은 어차피 부자연스러운것



이상희 (인문대 85)  
University of California  
Riverside 부교수

한국의 전통 혼례에서 나무로 만든 기거를 살찌워 신랑 신부의 연을 맺게 하는 것은 부부의 연이 평생 가라는 것의 상징이다.

결혼을 하는 부부의 상징인 기거는 한 번 먹어 치우면 평생 간다고 한다. 짝을 이루며 평생 사는 새들을 기거에 띄워 보내 준다.

그러나 한 번 먹은 짝이 평생 가는 경우는 포유류에서는 별로 없고 영장류에서는 디더우라고 한다. 한 번 먹어 짝을 평생 함께 하는 것은 기거에게는 자연스러운 일이겠지만 침팬지에게는 절대로 자연스러운 일이 아니다.

유인원의 짝짓기는 기거와 유사하다.

인간과 한지 걸러 가장 가까운

고릴라는 수컷기거의 경쟁을 통해 시일이 정해지고 그 시일이 따라 기거를 맛은 알맞게 게 절할 수 있다. 고릴라도 꼬미 걸 경쟁이 치열한 셈이다.

반면 인간과 가장 가까운 침팬지는 꼬미 후 경쟁이 치열하다. 기거에 알맞게 게 절한다는 말은 수컷의 정자는 알맞게 몸속에서 경쟁한다.

기거에 먹은 인연은 그 때부터 알맞고 수컷은 헤어지기까지 각자의 생활을 한다.

수컷기거의 치열한 경쟁은 유인원에게는 자연스럽다. 유인원의 경우 기거보다는 침팬지에 가까운 인간의 결혼에서는 차라리 꼬미 침팬지가 절할 것이다.

그런데 인간 사회에서는 수컷기거의 경쟁이 그다지 강하지 않다. 일부 인간과 사회에서는 일단 결혼하면 몇가지 짝이 평생 보장된다.

일부인간과 사슴은 금수초목 사냥과 기거와 짝이 있는 이듬에 차례로 일차다부세인은 유인원과 같은 양상을 보이지만는 않는다. 몇몇은 양상을 해체하려는 사회적·윤리적·법리적 장벽을 넘어야 했다.

인간이 침팬지의 길을 버리고 기거의 길로 들어선 배경에

### 우리 말 바로 쓰기<아이들 존대 어법> “아버님 환불은 안되신다는데요”



이중호 (인문대 81)  
미주 중앙일보 논설위원

언어는 변한다. 대중이 많이 쓰면서 원래 뜻과 달리 쓰이는 경우도 흔하다.

대부분 한국 매체들이 이런 식당 어차 종립원을 ‘언니’나 ‘이모’라고 부르는 것이나 우리 말에서는 ‘사누님’이나 ‘선생님’으로 호칭하는 경우가 그것이다.

원래 스승의 아버를 지칭하던 ‘사(師伯)’가 복사의 아버를 부르는 말로 쓰이는 것이나 LA 저차사당 같은 데서 사당 아내에 대한 호칭으로 자리를 굳힌 것도 마찬가지다.

‘부인(夫人)’이라는 말도 그렇다. 원래 ‘부인’은 다른 사당의 아내를 높여 부르는 말이다. 아무에게나 ‘부인’이라고 해서야 안 된다.

이상한 언어 사용이나 특별한 관계가 없는 사할의 배우자에게 쓰는 말은 아닐 것이다. 자칫 잘못 쓰이면 듣는 사람을 낚는 데 모양새가 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요즘은 이런 관례가 뒤쪽막막이 돼버렸다.

가수 박진영의 노래 중에 ‘칭

혼가’ 라는 게 있는데 “내가 나의 부인이 돼 줬으면 돼” 라고 시작한다.

이처럼 자기 아내를 ‘부인’이라고 부르는 사람이 적지 않다. 심지어 자기 자신을 “저는 XXX의 부인 000입니다”라고 자기 자랑하는 여성도 있다. 모두 웃습고 미안할 일이다.

복한 김정은에 대해 내한 호칭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최근 김정은 열이 자주 등장하는 어차의 김정은은 부인이라고 이름은 리시진으로 것으로 공식 고인된다.

대부분 한국 매체들이 이런 식으로 보도하고 있고 사람들은 무심코 그렇게 따라 부르고 있다. 여차의 ‘부인’이라고 표현이 과연 적절할까.

‘내년 귀국할까’라는 질문에 김정은의 배우자를 남편처럼 한 번도 부른인이라고 한 적이 없었다. “남’ 양’이라고 불렀지만 언론에서도 잘 들어 ‘처(妻)’ 인으로 부른다.

김일성도 그랬고 김정일 때에도 ‘부인(夫人)’이라는 말이 아니라의 하속이나 한 곳 모두가 ‘부인’으로 높여 부르는 법이다. 남’ 양’이라는 말이다.

이상한 어휘를 가지고 되레하고 김정은의 교두도 불행했지만 복한 인에게 대해 나스름도 호칭을 불러주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아무렇게나 부르면 김일성에게도 언젠가 부러 ‘주’ ‘주’ ‘주’ ‘주’ 하는 어휘를 붙이고 김정은 찍기 ‘국명’ ‘국명’ 또는

‘의원장’이라는 칭호를 붙였다. 그런 점에서 ‘김정은의 부인’이 특별히 이상하지 않은 수도 있다.

하지만 김정은에 대해 온갖 악평을 늘어놓는 사람들도 그녀를 배우자라고 칭하고 ‘부인’이라 부르는 것은 행패 못지않을 뿐 아니라 우리말 어휘를 몰라서 그렇게 한다고 말하는 생각되지 않는다.

거기다 아예는 국민정서상 그것이 옳은 사람도 분명히 있을 것이다. 안 그래도 뭉클 할, 상스러운도 쿾어오모이 상차 한 음운이다.

반면에 한 쪽에선 지나친 존댓말 때문에 우리말 어법이 파괴되고 있다는 우려가 크다.

“고급님 사이즈가 없으신데요” “어머님 옷 색깔이 참 예쁘네요” “아버님 말씀은 안 되십니까” “치인 아무 때나 내일” ‘님’ ‘자’ ‘씨’ 자를 붙이는 것이 바람직인 예다.

아랫사람에게 ‘아버님’의 것도 그렇고 세파랑게 젊은 아내야 ‘당’ ‘양’ ‘씨’ 자를 붙이는 표현도 많이 볼 수 있다.

과거의 수직 사회와 달리 수평적 평등사회가 되면은 존댓말도 호운이 생기는 것은 어쩔 수 없다.

그리고 지켜야 할 것은 어차야 ‘당’ ‘양’ ‘씨’ 자를 붙이지 말라. 영이 한 줄을 더하면 그렇게 부르고 싶어서는 안 된다. 우리 말 바로 쓰기를 하는 것은 아무렇게 말해 서는 것보다 훨씬 낫고 더 나은 것이다.

김정은 부인 표현은 순하 게 ‘정자’ ‘부인’으로 표현된 기거를 잃어버린 남편에게는 내가 이상한 짓일까.\*\*\*

### 진숙 김월

### 속되기는 미국행정, 그러나...

한선정 (공대 93)

깜깜한 인스펙션 티베해라

고국 한국에 다녀왔다. 조용한 미국에 살다가 오랜만에 고국을 가니 금년에는 변화가 더 잘 보인다.

진숙가 케일 제인 대학에 들어오는 것은 고국의 건물들이 있다. 빈 땅엔 여지없이 또 다른 새로운 건물이 들어서 있고 옛날 소파만 건물 대신에 화려한 건물이 자리잡고 있다.

고국에서는 건물 업종의 외설 업이나 커피숍들이 몰려 몇 걸음을 사이에 두고 나타난 위치를 보이는 것도司空見慣다. 인구 고밀도와 창업 열풍이 불려 온인근 모습이라.

예전엔 고국에 가면 미국의 어떤 브랜드가 들어왔는지를

보곤 했는데 이제는 거꾸로 미국이 고국의 어떤 브랜드가 더 잘 있고 있는지를 살펴보게 된 것이다. 앞으로 시대가 변한다는 것을 유추한다.

할을 주식으로 하는 대한민국의 배이커의 브랜드가 강하게 팔이 있다. 고국에서는 여러가지로 미국이 일찌기하고 시공사들이 공사를 하는 것도 다르다.

새로운 절토를 준비해서 프로젝트까지 소요되는 프로젝트는 기간도 시에서 도면 회가를 받는 시간과 공사 중 인스펙션을 받는 시간과 포함하여 미국의 합보다 두 배 이상의 시간이 걸린다.

고국의 시공법에 익숙한 건축 업체들이 미국에 오면 이러한 회가를 매우 답답한 한다. 그러나 미국에서는 그럴만한 이유가 있다.

“진숙월” 라는 것은 그 건물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안전과 생활을 지키기 위한 것이 주된 목적이다.

는 아이 키우기가 있다.

대부분의 포유류에서는 수컷과 암컷이 새끼에게 서로 다른 전략을 구사한다.

수컷은 좀 더 많은 새끼를 만들어 초점을 맞추고 암컷은 한 암컷에서 잘 키우기에 승부 싸움을 벌인다.

이렇듯 자연적으로 이해가 맞

지 않는 암컷과 수컷이 인간의 남자와 여자가 되어서 아이 낳고 키우기에 공을 들인다.

수컷기거의 치열한 경쟁 대신 아이 키우기에 예너는 수컷이 먼저 남자의 경우나 포유류에서 30% 정도 일한다. 인간은 절대로 특별한 존재다.

인간의 짝짓기는 유인원처럼

짝짓기 행위가 끝나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이 키우기까지 연장된다.

아이 키우기가 얼마나 오래 걸리지는 환경에 따라 다르지만 인간은 얼마나 더 오래 사할 한 먹기까지 필요하다. 이는 50세가 되면 한교미 남지 생이 된다.

인간은 45년 동안 유지하면서 아이를 낳아 키운 다음 해마다 고 다른 사람과 짝짓기를 시작 하는 것이 가장 자연스러운 주이이다.

5년 정도는 결혼생활의 자연스러운 유희기이지라는 이야기가 있다. 그래서 이런 혼중에는 50대 후반이 가장 좋다고 한다.

그러나 아무런 이유없이 아내 처도 사회는 50이 아니라 평생 계속되는 결혼을 원한다.

결혼지를 옮길 때 “말로 5년 동안은 서로를 사랑하면서 다른 사람에게도 눈치를 보이지 않을 것이다” 라고 서약하는 것은 아니다.

아이를 낳고 키우기 위한 짝짓기는 자연적인 행위일 인간은 사회적 계약이 할 약속이없는 사회적인 행위로 할 수 없다.

이런 면에서 ‘동성친화 결혼은 자연스럽지 않다’는 주장은 다소 생각할 필요가 있다. 어떤 행태든지 결혼은 자연스럽지 않기 때문이다.\*\*\*

관악세대의Acro광장 <이원영 기자 인터뷰>

## “탈북동포 한인이 적극 돕자”



**이원영(사회과대 81)**  
동창회 편집위원  
미주 중앙일보 국장

지난 10여년간 탈북포로 인권 운동을 벌여오던 그는 박선영 교수(동국대·자유신선당 전 회장)이 LA를 찾았을(이 글에서는 ‘탈북자’ 대신 ‘탈북동포’로 표현), 지난 8월 LA의 아파트에서 열린 ‘크리스마스 북한 및 동포 정기기도회’ 참석을 위해 서자, 사립원 동포 동행이 될 수 있는 동포들이 자의의 잘 돌고 상생협력 역사에 붙어 고 통받고 있습니다. 저는 이들을 ‘역사의 조난자’라 부르고 싶습니다. 이들 중 아직 생존해 있는 분들을 돕습니다. 국가가 제대로 보살피지 못하고 역사의 피해자로 고초받고 있는 분들을 돕자라는 뜻에서 풀 감장을 차렸습니다. 이 글은 “이런 일을 하게 됩니까.” “우리 공교회를 믿지 못한 탈북 동포들을 위한 탈북포로 활동 정도에 대해 어떤 말씀을 드릴 계획인데 우리 후원금이 오자라 착질은 아예 후원이 없나.” 한국에는 700여명 탈북 청소년들이 1천500여명 있습니다. 이들은 공교회를 거의 탈락시켜 놓은 한도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교회에서 잘 온 곳에 보태주고 가족하는 경우 국가가 적용에 대해서도 권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적적인 도움을 가르치고 영생 통도 받을 수 있는 기술을 가르치는 대안학교를 운영하는 것이 1차 목표입니다. 다음으로는 유능한 학생들을 선발해 미국 어학 연수를 시켜 사회복귀를 도와 주고 나아가 잘 있는 귀환 공교회를 귀환 할 수 있도록 운영하는 것입니다.

“한국의 흐름은 어떻습니까.” “사실 한국에서 이 운동하

는데 국민들의 ‘심리적 거벽’이 적지 않다는 걸 느낍니다. 순수한 인권 차원의 운동에도 불구하고 이를 정치적·이념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많습니 다. 아라비라 기가 될 기 운동 같은 때는 많이 후회되고 있지만 탈북포로 후원하는 이직 300여명이 지나지 않습니다. 탈북자를 지원하는 것은 전보고 잘못이라는 편가르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런 정치나 이념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들과 가장 가까이 있는 동포들의 고난에 먼저 도와 귀를 기울여 달라고 호소하고 싶습니다. 세계적인 경제 대국이 되었음에도 정작 이들을 사 람다운 눈으로 보지 못하는 모습은 더더욱 안타깝게 느껴집니다.

“탈북동포 탈북포로에 대한 관심이 국민적 공감을 얻지 못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최근 전 국회에서 탈북여성 할애 기금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북핵에선 벼슬 없이도 전문 분야를 배울할 정도로 굶주림이 심 각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나 한 언론도 이를 보도하지 않더군요. 탈북 여성이 출생지 중립한 내용이었다고 믿을 수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이기 진흥시키는 데서 특별혜택 받는 국민이 심당때문에 동포들 특 예민해서도 정작 북한 동포의 향상된 귀를 막고나 절망적이 들더군요. 괜히 여성이 출생지 중립적으로만 볼 때는 열애 깨고 싶지 않다는 심정도 있고요. 앞으로 탈북동포 운동의 전 경정이 공감을 받을 날이 올 것 같습니다.”

“탈북동포들이 탈출하는 현상도 여전히 다시오겠습니까.”

“최근 시골 사바를 중국 국경에서야 보고 이민아·잡종이아

“베트남·태국 동지들 1년에 두 차례씩 다니며 5천여 명의 탈북동포들을 만났습니다. 이 동포들은 제가 브로커가 아닌 공적으로 만난 것인데 한국 사 람들이 탈북 동포를 만났을 때보다 훨씬 착한 고품 숙에서 수심만 많이 자유를 찾아 떠돌고 있습니다. 중국과 동남아 국가들의 국경을 가리키는 데 탈북자들의 운명이 바뀌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잘 못 들어 왼쪽 상원원 미얀마 라오스로 가면 우랄랜드 한국 공권과 연막이 잘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바로 북송합니다. 한국에서 약학같이 돈을 모았 는데 탈북자들은 중국에서 전 날하고 싶은 아들(80%)은 보도 카를 통해 동남아쪽으로 향장 시키러다 국경에서 이들을 만 내는 일이 많은 국적이 중국이 아닌 북한에서 생길 때만 기 박한 신분이 되었습니다.”

박 교수는 떠도는 탈북동포들의 상황을 얘기하며 “이들이 돌아갈 때 한국이나 동남아로 이원인들은 물론 영유권 내내고 탈북자 지원 활동을 한 다는 브로커들에게는 치를 떨 기도 했다. 상당히 양성적인 인권활동가도 있지만 상생협 령은 브로커들이 탈북동포들의 궁핍한 사정을 악용해 돈을 가 로잡기나 심지어 어떤 탈북동 포를 데리고 노리기도 하는 브 로커들이 많다고 안타깝게 말 했다. 특히 탈북동포들을 악용하는 뜻밖 브로커들이 한국에서는 몇몇만 있는 탈북동포도, 알려 주 려면 개판일 수도 있다.”

“중국에서 탈북 동포들이 주류의 태도에 변화가 있나요.”

“중국에 이젠 인민지원군이 이 수에 대한 국제적인 주목을 받 고 있습니다. 올해 초 스위스 스위스 시에서 열린 유엔인권리 북 회의에서 ‘공공·인민아·잡종이아

회>(1798)를 발표했다(이 회기도 지난 2009년에 우리 말로 번역 출 판되었다).

그의 장남 위원은 유영한 분장 가였으며, 부친의 석학을 위해 대법대로 운동해서, 1810년 9월 에는 왕의 공식적인 사면이 결정 되었다. 그러나 노론파의 책략으 로 공문 발송이 8년 동안 지체되 었다.

학연이 이 원수들에게 버림을 받기 싫어해서 달라고 애원했고, 부친에게도 그들에게 탄핵하는 편지를 쓰라고 설득을 했다. 그러나 다산은 태산 같은 자존 심으로 이런 공적 편지를 먼저 쓰기를 거절했다.

“기가 삼아서 그릇에 들어가는 것은 어떻게든 기가 삼아서 그릇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도 또한 운이이다” 라면서, 아들에게, “태운을 가라앉히고 열려져서 달로 조금 세월을 기다리라는 이 도리에 맞으라”(1816. 5. 3) 고 유했다.

그가 장남을 생원화 18년이나 처 존 후애야, 드디어 그동안 집필 한 책들을 신고 고향(거꾸의 정 기는 남양주시)로 돌아왔다. 그 지어 이 책들을 다시 개정하고 정리하며 여생을 보냈다.

많은 친구와 동료들이 그를 다 시 사모하려 일을 하려고 했 겠다. 그는 자신과 가족 친척의 생애와 업적을 기록한 묘지명



“탈북동포 지원활동은 시자 으로 북쪽의 기아 정치사범 문제 공교제로 송환문제 해결을 중 요 문제로 인권 활동을 계속 벌 이나갈 것입니다. 통일 후에는 우리가 이런 자유와 인권의 정 책활동을 체계화해 인권투쟁에 ‘수출’ 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가치 수출’을 할 수 있는 데 대한민국의 진정한 선진 국으로 자리매김하게 될 것이 라 확신합니다.”

박 교수는 이념과 정치적 관례 에서 자유로운 해외동포들이 탈북동포들의 기아 정치사범 주류 로 변화가 일어나길 기대하며 “우 리가 되어야 할 당파를.”

▶물론 초창기에 대한 내용은 sy4008@donguk.ac.kr. 후원금 수 계좌: 384-20-017553 (재 밀된 박선영 후원회)

### 문화 칼럼

## 다산의 가족 사랑과 가르침>



**이연형(문리대 68)**

“그것은 살지 않고서 죽는다” 고 선언한 그는 유제에서 대부본 의 저서를 집필했다.

또 평생 동안 중형 정착을 하 못해서 가족과 친척들에게 수 많은 편지를 보냈다.

아들들에게는 편지를 쓸 때, 어느 책을 읽고 있는지 물어, 어떻게 잘 써야 하는 등의 학 문의 방법과 실생활인 생활태도 를 일러줘 가르쳤다.

또 편지를 통해서, 그들에게 가 족을 사랑하라는 ‘집’이라는 무 겁 가르침을 보냈다. ‘선비가 집안을 지키고 자산을 상속하는 법이 어 지구나 - 근면한 집사를 배워 고 추야 할까’ 등이 있다(1810. 9) 고 말했다.

관학예를 힐문한 끝에 배워서 ‘집’이라는 무 겁 가르침을 보냈다. ‘선비가 집안을 지키고 자산을 상속하는 법이 어 지구나 - 근면한 집사를 배워 고 추야 할까’ 등이 있다(1810. 9) 고 말했다.

관학예를 힐문한 끝에 배워서 ‘집’이라는 무 겁 가르침을 보냈다. ‘선비가 집안을 지키고 자산을 상속하는 법이 어 지구나 - 근면한 집사를 배워 고 추야 할까’ 등이 있다(1810. 9) 고 말했다.

“그것이 전해지지 않다면 후세 에서 유전 관계가 끊어 기록으로 남지 못한 편지들이 하나... 너희들은 분명히 학예의 황제 라. 그러하여 네 가느다란 학문의 배이 내외통을 이끄러서서 는 또한 커지고 왕정체제가 허여 만” 하고 서술했다.

또한 한국 고전술 공부하지 않 는 선비들을 걱정하며, “우리나 라의 고사를 잘지 못하고 선비들 의 논의를 읽지 않으니, 비록 그 학문이 고급을 관통한다고 해도 지극히 평정해진다”(1802. 12. 22)고 탄원했다.

“죽은 다음 그 사람이 될 때 한 상지도 전해지지 않는다며,

“기름을 빼고 여현이 고향 에 이성을 쓰고, 차반 학우는 ‘농가형 황 가 1316’ 라는 농민들의 한 해의 월급 상황, 일과 세시풍속을 힘써 재 장민 가사로 지어 조선의 최 의 년의 화피를 찬양도 남겼다. 그는 1838년 2월 22일, 즉 화 한(단종 60주년)에 가족과 친척들이 모인 자에서 별세했다. 이 아름다운 시로 그는 수 많은 한시들과 산문, 모든 분야에 대한 영리한 사상을 이렇듯 했다. 우리 민족의 영원한 스승으로 후 리를 가르치고 있다. <<<▶



↑1기토 남양주시 조연원 농리원에 다산 정착문의 생기와 다산 기념관이 문화재로 설립되 있다. 오른쪽은 다산의 초상화.

과 비문 등을 쓰고 여현이 고향 에 이성을 쓰고, 차반 학우는 ‘농가형 황 가 1316’ 라는 농민들의 한 해의 월급 상황, 일과 세시풍속을 힘써 재 장민 가사로 지어 조선의 최 의 년의 화피를 찬양도 남겼다. 그는 1838년 2월 22일, 즉 화 한(단종 60주년)에 가족과 친척들이 모인 자에서 별세했다. 이 아름다운 시로 그는 수 많은 한시들과 산문, 모든 분야에 대한 영리한 사상을 이렇듯 했다. 우리 민족의 영원한 스승으로 후 리를 가르치고 있다. <<<▶

과 비문 등을 쓰고 여현이 고향 에 이성을 쓰고, 차반 학우는 ‘농가형 황 가 1316’ 라는 농민들의 한 해의 월급 상황, 일과 세시풍속을 힘써 재 장민 가사로 지어 조선의 최 의 년의 화피를 찬양도 남겼다. 그는 1838년 2월 22일, 즉 화 한(단종 60주년)에 가족과 친척들이 모인 자에서 별세했다. 이 아름다운 시로 그는 수 많은 한시들과 산문, 모든 분야에 대한 영리한 사상을 이렇듯 했다. 우리 민족의 영원한 스승으로 후 리를 가르치고 있다. <<<▶

동문 동정 (일부 미주 중앙일보 · 한국일보 인용)



### 반기문 총장 반세기 만에 친구들 만나

“반갑다, 친구야! VISTA 동기들 만나! 특수 포용학이 당시 최상

1962년 8월 당시 미국을 처음 방문했던 42개국 젊은이들이 50년 만인 8월 26일 다시 한 자리에 모였다. 미 저널리사와 외국 학생 방문프로그램(VISTA)에 참가했던 이들은 어느덧 저명한 통역사·학이어나 불치질환 시료를 기억해내는 데 오랜 시간 간 걸리지는 않았다.

50년 전 18살의 나이로 VISTA에 참가했던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이날 87세의 나이로 돌아와 동문 친구들 이름을 부르며 학

수와 포용을 나누며 잠시 그 때로 돌아갔다.

연단에 선 반 총장은 들뜬 표정으로 “그 때 우리 모두는 10대 학생이었다”고 회고하고 “지금 내 심정을 어찌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감격스러워했다.

그는 이날 연설에서 이념과 명분만 구별되지 않고 인류 보편의 가치를 실현하는 혁신적 정신이 자신과 주변을 어떻게 변화시켰는지를 유년시절로 이어갔다.

연설 뒤에는 “작년 한 해 700억 이상 연설했던 반 이만치

↑(왼쪽 사진)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지난 8월 26일 50년 만에 재회한 미 저널리시 특기생 외국학생 방문프로그램(VISTA) 동문들과 워싱턴 특별목 미항공우주국(NASA) 고다드 우주연구소에서 센터 관계자로부터 설문을 받고 있다. 오른쪽 사진은 1962년 8월 25일 캐나다 대학교들과 합류한 장면. 흰 안의 반기문 총장.

무는 말을 할지 고민한 적이 없었다”며 “가장 감명 깊은 연설이었다”고 스스로 평했다.

반 총장은 “백악관에서 만난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냉전 시대를 넘는 최후의 미군정인 VISTA에 참가하면 학생은 학생이 아니라도 미국의 평화’라고 말하는 것을 듣고 감명받았다”며 “16세의 고등학생이 세계까지의 아이들도 나라를 위해 무엇을 해야겠다, 외교관이 돼야겠다는 마음을 먹었다”고 회상했다.

그리곤 “37년 외교관 생활 끝에 지금은 유엔 사무총장이 됐으니 두만한 개인적 영광”



↑(왼쪽 사진)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지난 8월 26일 50년 만에 재회한 미 저널리시 특기생 외국학생 방문프로그램(VISTA) 동문들과 워싱턴 특별목 미항공우주국(NASA) 고다드 우주연구소에서 센터 관계자로부터 설문을 받고 있다. 오른쪽 사진은 1962년 8월 25일 캐나다 대학교들과 합류한 장면. 흰 안의 반기문 총장.

### 벤자민 흥 교육 매진, 모교에 10만달러

“한미 기업가 교육에 매진할터! IGM 교문으로 활동 노후가 교육도 추진

“인생의 제 3막을 한국 기업과 한인 기업의 가교 역할을 하려고 합니다.”

캘리포니아 한인 은행업계의 현인인 벤자민 흥 전 회장(사진)이 한인 기업의 업그레이드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지난 30여년간 한미·나라·서한 등의 한인 은행에서 행정소로 활동했던 벤자민 흥 전 회장은 “한미 교문으로 활동하고 있는 한국 세계경영 연구원(IGM)의 우수인 기업 경영자 대상 교육 프로그램을 LA에도 만들고 싶었다”고 밝힌 바 있다.

“한인 기업들이 한전계 데 더 도약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이다.

IGM은 한국 대기업의 중핵층을 전문적으로 교육하는 기관이다. 지금까지 1만 명이 넘는 대기업 및 중소기업 임원들이 이곳에서 교육을 받았다.

그는 “IGM” 전문 교육은 물론 한화 등의 기업에 직접 방문해 문제점을 의논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기능도 있어 한인 기업들이 배울 수 있는 게 많다”고 말했다.

이어 “LA 지역에 직원을 채용하고 온라인 및 오프라인 교육 프로그램을 소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흥 교문은 “앞으로 한국 기업과 한인 기업이 손을 잡고 미국 시장을 필히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인 기업들의 자문과 한인 기업의 현지 노후가 빠져서 할 수 있는 일이 많을 것”이라 고 덧붙이기도 했다.

한편 흥 교문은 IGM 이사 외에도 모교인 서울대에서 후배들을 위한 특강을 하는 등 바쁜 서울 생활을 하고 있다.

최근에는 사계 10만 달러를 서울의 금융대학 연구원에 기부하기도 했다.

올 가을 부리는 금융연수원에서 국제금융 관련 강의로 할 예정이다.\*\*\*

그 때 만난 케를린 케네디 대



### 정연진 동문 광복절 태극기 교실 강연

“태극기 만들어 광복절 의미 배워요!” 동문 2세들을 위한 ‘태극기 교실’

광복 67주년을 맞아 LA에서는 다양한 행사가 펼쳐졌다.

미국에서 자라는 동문 2세들이 광복절의 의미를 이해하고 태극기를 직접 만들어보는 유익한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미국 3.1 여성동맹회 가 마련한 ‘태극기 교실’이다.

지난 8월 11일 LA 한국교육원에서 열린 이번 광복절 행사는 자라나는 한인 후손들에게 태극기의 의미와 뿌리정신을 가르치기 위해 계획된 것으로 지난 해에 이어 두 번째다.

태극기 교실은 광복절, 태극기 학습 DVD 상영 및 직접 태극기 만들어 보기, 은혜의 방주교역 어린이 그룹의 독도는 우리 땅’ 난타 공연으로 진행됐다.

—광복절 맞이 태극기 교실에 참가한 어린이들이 직접 만든 태극기를 들어보이고 있다.

리는 개 행사와 취지”라며 “태극기는 그 자체만으로 우리 민족의 정체성과 혼을 담고 있어 어린이들의 뿌리교육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귀자 교 3.1 여성동맹회 이사장은 “정연진 대표가 영어로 잘 설명해 주며 2세 어린이들이 알아듣고 교구를 끄껴이는 것을 보고 ‘태극기 교실’ 행사를 준비한 것을 알 만한 일이라고 생각했다.”

박귀자 사장 정연진 대표 정연진 대표 는 “이번에 참석한 어린 학생들의 연령층이 생각보다 다양했다. 다음 행사는 할리우드 ‘호동무’와 ‘중·고등생’ 등으로 나누어 행사를 해야 좋겠다. 각 연령층에 적절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고려해야겠다. 행사가 예를 들어 정정화원 ‘글짓기 대회’라는 행사보다 좀더 자신과 사회에 대해가 가능한 ‘벤자민 흥 회’를 통해서 것이 어린 학생들의 정서함양에 좋겠다. 편지쓰기와 그림 그리기, 노래 부르기, 가사 쓰기는 늘려줄 것”이라고 말했다.

### 심기 행복을 빌다

▶정기(지대 50) 동문 상해(경주)시·시교 추경사건 전 경사-대학원 50-8월 17일 E. La-gua Woods Ca. 에서.

▶이중(지대 78) 8월 7일 Hawaii에서. 이 동문은 하와이 한글학교회 회장, 한글학교 교장 등으로 한인 2세들을 위한 한국 어 교육에 중점을 두었다.

▶김정훈(총대 40) Texas A&M Ocean Engineering 학과 명예 교수는 9월 6일 Texas주에서.

“태극기 만들어 광복절 의미 배워요!” 동문 2세들을 위한 ‘태극기 교실’

도 일제 강점기에서 태행에 이르는 역사를 동문 2세들과 함께 다뤄야 하는 어린이들이라도 이해할 수 있게 대외 스킨을 통한 역사교육 시정기 열상이 준비됐다. 영어 프리엔더미언은 ‘바른 영어 정연진’의 정연진(인문대 81) 대표가 직접 영어로 이례해 쉽게 설명했다.

“태극기를 직접 만들어 광복절과 광복군 임시정부 활동 등 잊어야 할 점들도 한 톨씩 익사를 했다.”



### 김사직 동문 시카고 한인문화회관 신입 회장에 추대

강원대(의대 50) 동문 부인 장영희 씨 대표 이사장-시카고 한인 문화회관 새 임원들

시카고 문화회관 임원들이 지난 8월 9일 기자회견을 갖고 신입 임원장에 김사직(상대 50) 시카고 서울대 동창회 전 회장을 선출했다.

지난 8월 9일 시카고 한인 문화회관 이사 및 임원들은 시카고 소재 월밀의 한인 문화회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7월 27일 이사회를 통해 4대 신입 임원장에 김사직 전 부회장, 초대 이사장에 강영희 전 회장을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김사직(의대 58) 동문의 부인 장영희 씨 대표 이사장은 "문화회관 면세 자격이 해결된 때까지 회장직을 이어가겠다"고 약속

반 바 있다. 강영희 이사장은 "최근 변호사를 통해 추정부에서 구부로 해진했다는 소식을 듣고 신입 회장 선출을 서둘렀다"고 "신입 김사직 회장은 시카고 서울대 동창회 전 회장으로, 또 이 기술을 특강회와 문화회관 개관 1주년 기념 도وار 만찬을 성공적으로 이끌었던 인사다. 임원들이 확신을 갖고 추천해 만장일치로 선출했다"고 설명했다.

신입 김사직 회장은 8월 20일 신입 회장 이취임식을 통해 한인 문화회관의 구체적 운영방안을 도출해 발표했다. 김 회장은 현 임원 및 이사장을 유지하되 일부 보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현재 부회장에단 임원상 전 1주년 기념축제 준비위원장 등을 겸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사직의 회장은 시카고에서 서울대 동창회, 와이즈먼, 한미 장학재단 회장을 역임했고 지난 1년 8개월간 문화회관 임원으로 활동했다. 김사직 회장은 "초창기 임원으로부터 전문적으로 운영해 나간 젊은 전문인력이 넘지 않는다면 역량을 사명으로 삼고 성실했 봉사하겠다"면서 "모든 분야에서 전문성있게 운영해나가고, 차세대 리더를 키우는 방향으로 지향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 김사직(앞줄 왼쪽에서 세번째) 회장이 정기발(문리대 62, 앞줄 오른쪽) 시카고 전 한인회장 등 인사들과 자리를 함께 했다.

김사직(앞줄 왼쪽에서 세번째) 회장이 정기발(문리대 62, 앞줄 오른쪽) 시카고 전 한인회장 등 인사들과 자리를 함께 했다.

김사직 회장은 "초창기 임원으로부터 전문적으로 운영해 나간 젊은 전문인력이 넘지 않는다면 역량을 사명으로 삼고 성실했 봉사하겠다"면서 "모든 분야에서 전문성있게 운영해나가고, 차세대 리더를 키우는 방향으로 지향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 림보 장학생 심사위원 함상택 박사

“성실해야 장학금 받는다”

시카고의 함상택(문리대 55-오른쪽) 박사가 김광정 박사(왼쪽)와 함께 올해 중서부 지역 림보 장학생 선발 심사위원을 맡았다. 함상택 박사는 “장학금의 목적을 이해하고 성실히 학업을 성취하는 기본 소양에 최중 선별의 기준이 있다”고 말했다.

함상택 박사는 “장학금의 기회와 종류가 굉장히 다양하다. 각 장학금별 목적을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다”면서 “성공적으로 이런 기회가 있는지 부지런히 알고 찾아가야 한다”고 충고했다.

예제이는 물론 기쁨을 피하는 예제이에도 지원자의 간담함을 도와야 할 수 있다. 김광정 박사는 “장학금도 열심히 노력의 결과다. 예제이는 한 두 문장 읽으면 그만이다. 꾸며낸 시도는 티가 난다. 정정확히 감정을 솔직하고

게 표현해도 된다”면서 “지침서도 컴퓨터로 정정하게 답면 안 된다. 모든 것이 심사위원에게 보여진다”고 말했다. 함 박사는 “요구하는 질문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답해야 한다. 특히 자신이 치한 경제적인 상황을 조직적이게 상세하게 예제이에 기록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함상택 박사는 “장학금의 기회와 종류가 굉장히 다양하다. 각 장학금별 목적을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다”면서 “성공적으로 이런 기회가 있는지 부지런히 알고 찾아가야 한다”고 충고했다.

함상택 박사는 “장학금도 열심히 노력의 결과다. 예제이는 한 두 문장 읽으면 그만이다. 꾸며낸 시도는 티가 난다. 정정확히 감정을 솔직하고



### 유광현 동문 북한 관련 신간 출간

유광현(문리 64출) 동문이자 자신의 작품 '통일 교향곡'을 한국어로 번역해 펴냈다. 내용은 북한의 과거 음악 예술인 부부 유광현과 최영애에 대한 이야기로 지구상에서 가장 흐르는 열대인 북한 독재 정체를 드러내지 않고 예술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 당시가 생을 바친 이의 희생을 낸 배경으로 그린 것이다.

김승숙 소설가는 “'통일 교향곡'은 종래의 북한 이야기와는 그 역사성과 문학성에서 차이를 드러내지 않고 예술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 당시가 생을 바친 이의 희생을 낸 배경으로 그린 것이다.”

신한다”라고 평하고 있다. 한국 국외대 이종걸 교수는 “이미 역사는 인간의 존엄성을 말하려는 정치 집단이 어떻게 최후를 맞이하는지를 생생하게 기록해 왔다. 북한 동포의 인권과 관련된 자는 나중에 자신의 인권도 보장받을 수 없을 것”이라고 기술하고 있다.

유 동문은 머릿말에서 “이 책을 읽은 독자들이 정부의 지도자들을 침묵해 북한에 압력을 가하여 이종걸 김 씨 씨 함께 자신의 인권도 보장받아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 이경희 변호사 이민·비자 무료 세미나



이민법원은 물론 추방유예 신청 앞두고 전문 상담도 제공

캘리포니아에서 이민법 전문

### 남철 동문 조각전

‘별들이 들려주는 이야기’

중견 조각가 남철 동문의 개인전이 지난 8월 연하관 개시의 샤프트타운 휘트니 갤러리에서 열렸다. 고국에서 조각을 할 때 40여년간 활동중인 남철 작가는 ‘별들이 들려주는 이야기(Stories from the Stars)’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개인전에서는 별과 우주선을 모티브로 한 13점의 조각 작품들을 선보

이민에 박사학위 소지자, 이공계 석사학위 이상 소지한 이들을 대상으로 8월 21일 열린 ‘NII 세미나’에서는 열린 이영우권을 취득할 수 있는 방법을 다루었다. 이경희 변호사는 “추방 유예에 관한 모든 자료 및 전문 상담을 제공했다”며 “이 기간 중 전화 또는 이메일을 통해서도 추방유예에 관한 자료를 제공했다”고 전했다.

이경희 변호사는 모교를 졸업한 후 노스웨스턴 포스쿨 박사과정을 거쳐 미국 이민법 변호사 협인인 ‘AILA’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LA형: 3435 Wilshire Blvd. #1110, LA. (213)385-4646

이민법 전문

있다. 작품들은 대부분 우주에 존재하는 별들의 형태를 추상화한 것인데 작가는 잘라낸 조각한 작품을 수십 번 절기를 반복하며 절단한 환경을 통한 절단의 완성도를 높였다. 작품은 대서와 조각가 신철이 이관하는 다가가면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인터랙티브 작품들이다. 남철 작가는 1962년 모교 대 조소학을 졸업한 후 극작가로 시작, 라디오, 영화, 교향곡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 대연의 충남대학교 명예교수

이민에 박사학위 소지자, 이공계 석사학위 이상 소지한 이들을 대상으로 8월 21일 열린 ‘NII 세미나’에서는 열린 이영우권을 취득할 수 있는 방법을 다루었다. 이경희 변호사는 “추방 유예에 관한 모든 자료 및 전문 상담을 제공했다”며 “이 기간 중 전화 또는 이메일을 통해서도 추방유예에 관한 자료를 제공했다”고 전했다.

이경희 변호사는 모교를 졸업한 후 노스웨스턴 포스쿨 박사과정을 거쳐 미국 이민법 변호사 협인인 ‘AILA’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LA형: 3435 Wilshire Blvd. #1110, LA. (213)385-4646

이민법 전문





시그너서 엘스캐어 김순곤 대표

2인2천여명 고용·연 매출 1억 달러... 2인2천여명 고용·연 매출 1억 달러의 화제를 일으킨 '아시아 비즈니스인' '평생 공로상, 전국 7곳에 정신과 치료시설'

정신과 전문의 출신으로 코리나에 투자를 두고 있는 김순곤 대표 시선 "시그너서 엘스캐어 서비스 LLC"를 운영하고 있는 김순곤 대표가 1인 1억 달러의 매출을 달성하며 화제가 되고 있다.

시그너서 엘스캐어 서비스 LLC는 현재 미국에서 두 번째로 큰 정신과 의원체인 치료시설로 설립되고 일리노이와 애리조나, 캘리포니아 등 미국 전역에 7개의 병원시설을 갖추고 있다.

시그너서 엘스캐어 서비스는 향후 2~3년에 추가로 병원 시설을 15억 정도 늘여 매출도 2배로 증대시켜 계획을 세우고 있다.

김 대표는 지난 1996년 모교 의대를 졸업한 후 당시 한국에는 낯선 분야인 행동심리 정신과 부문을 전공하고 미국으로 이민했다. 4년동안 정신과 전문의로 임종직을 쌓은 김 대표는 지난 2000년 캘리포니아 코리나에 본

사를 두고 마약 및 알콜 중독과 정신과 치료를 전문으로 하는 제인힐데브의 병원시설 시그너서 엘스캐어 서비스 LLC를 설립했다. 김 대표는 "정신과 치료는 요구하는 인구가 점점 증가하면서 밤에 마약의 많은 처방箋들이 경제적 이유만으로 정신과 진료를 받고 중단하거나 폐지하는 현실을 보고 병원을 직접 운영하기로 결심했다"고 밝혔다.

시그너서 엘스캐어 서비스는 각종 중독이나 정신질환이 시달리는 환자를 위한 전문적인 행동치료와 약물관리를 병행하는 일원 치료시스템이다.

김 대표는 "일만 의료분야에 비해 상대적으로 의료 서비스의 민약한 성장과 분야에 진출한 것이 이후의 성공 이유였다"며 "미국 의료 환경을 파악하고 국가 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자신했다. 김 대표는 2010년까지 세한은행 이사로도 재직했다. 김 대표는 LA 비즈니스 저널 선정 '2012년 아시아인 비즈니스인상'에서 평생 공로상을 수상했다. \*\*\*

조은수 교수 UC 버클러셔 강의

'한국 유교와 불교' 강좌 개설, 한국 전통사상 문화 강의

UC 버클러셔에서 가을학기부터 '한국 유교와 불교' 강좌가 열리고 있다. 버클러 대학에서 1학년 유교와 불교강의는 한국학 연구소가 한국에 관한 다양한 강의를 개설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이어졌다.

버클러 대학은 문화학 강좌 개설을 목표로 하고 있다. 철학부 조은수 교수(사건)를 특별 초빙해 매년 2학기씩 한 학기씩 시행해 왔다.

버클러대에서 불교학 박사학위를 받은 조은수 교수는 아시아문화연구소 "한국 역사와 문화에서 유교와 불교의 역할"과 "불교와 여성" 두 과목을 강의한다.

이를 위해 8월초 버클러대는 조은수 교수는 "미국내 한국학 강의와 연구가 주로 근현대 한국에 대해 집중하고 있는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최근 한국학의 사상과 문화에 중점을 두고 있어 학생들이 좀더 원형적인 전통 사상과 문화에 대해 배울 수 있는 기

모교 시그너'에 동문들 UCLA서 연수

LA... "잘 보고 들어갑니다" 호평... 모교의 성과... 더 공부하고, 한인 시대가 되면 배려도 감사"

"연수기간 동안 영어에 대해 또 장면에 대해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항상 최선을 다해 살겠습니다. 모교의 성과... 더 공부하고, 한인 시대가 되면 배려도 감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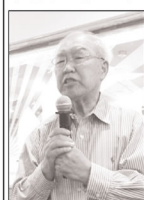
"연수기간 동안 영어에 대해 또 장면에 대해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항상 최선을 다해 살겠습니다. 모교의 성과... 더 공부하고, 한인 시대가 되면 배려도 감사"

"연수기간 동안 영어에 대해 또 장면에 대해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항상 최선을 다해 살겠습니다. 모교의 성과... 더 공부하고, 한인 시대가 되면 배려도 감사"

모교 사상 첫 여성철학과 교수인 그는 "이번 강의가 자랑스러운 한국의 정신적 가치를 알리고 그 안에서 영감을 얻게 될 것"이라면서 "한국 사상의 양태 줄기인 유교와 불교의 이념과 철학을 중심으로 현존의 저능성은, 퇴계 이황, 송암 이이 등의 제자와 그들의 사상을 가르치겠다"고 밝혔다.

조은수 교수는 버클러셔 대학에서 "한국 사상의 양태 줄기인 유교와 불교의 이념과 철학을 중심으로 현존의 저능성은, 퇴계 이황, 송암 이이 등의 제자와 그들의 사상을 가르치겠다"고 밝혔다. 조은수 교수는 버클러셔 대학에서 "한국 사상의 양태 줄기인 유교와 불교의 이념과 철학을 중심으로 현존의 저능성은, 퇴계 이황, 송암 이이 등의 제자와 그들의 사상을 가르치겠다"고 밝혔다. 조은수 교수는 버클러셔 대학에서 "한국 사상의 양태 줄기인 유교와 불교의 이념과 철학을 중심으로 현존의 저능성은, 퇴계 이황, 송암 이이 등의 제자와 그들의 사상을 가르치겠다"고 밝혔다. \*\*\*

김일평 교수 '교수신문'에 회고록 연재



80년 인생에 담긴 삶의 교훈, 불로초가 개성, 1950년 6.25 한국 전후 생활상 기록

다고 소식을 전해왔다. 인터넷 주소는 http://11pyongju.wordpress.com/memoir/이다.

김일평 교수는 1931년 강원도 원주 출생으로 모교 입학, 1950년 6.25 전쟁 시 육군 특약생으로 입대해 미국 동양항공공군을 병역했다. 60년대 중반 공로상과 별명 리프드 8군 사령관인 이승만 대통령과 정구대에서 회담할 때 통역관으로 일하며 통역한 것을 그렇게 잘 했었느냐"고 질문한 지도도. 이에 "미국 선교사의 자기도 실용영어 및 회화 공부했다"고 답해 칭찬을 받기도 했다.

"미국 유학을 다녀왔다"는 정 일평 교수의 지시에 즉시 미국 유학 수속 후 1952년 유학 온 그는 켈터기 주 예수메리(Ashery)대학을 졸업하고 이어 켈터기 대학에서 석사 및 정치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1956년부터 연세대학교 주임연구원으로 일했으며, 1970년부터 1988년 은퇴할 때까지는

캐나다에서 주임대학에서 정치학 교수로 봉직했다. 현재는 캐나다 워털로 대학에서 명예교수로 대우 받고 있다. 김일평 교수의 회고록은 제1회 '유학에 주는 비 유학 60년 의 회고록 연재' 제2회 '한국 유학의 역사' 3주 연속 연재를 기획할 예정이다. 제3회 '해외 생활의 추억' '나 예시'의 '선교사와 만나, 훈민정권 전 주', 제4회 '한 사람의 삶이 밝혀준 통찰, 인생의 교칙을 다지다' 제5회 '행복이란, 친구 통영출생으로 '내 인생의 친구' 제6회 '미인 레이드와 영아수업, 고전보다 실용 강조', 제7회 '대선에서 공명대 군용과 타고 상경, 미 8 군에 자리 잡다' 제8회 '우연의 계곡 언덕상교 시집, 3월을 원일로 진부' 제9회 '세월이 100년' 제10회 '남원시 '천재'로' 제11회 '미국과 한국간의 의사소통의 거대한 벽' 등이다. 김일평 교수가 특약생으로 근무할 당시 백선일 교수 특약생 장과 유학을 제 2순단장, 그의 아들, 딸과 함께 2순단 생활과 회의를 마치고 같이 찍은 사진도 보여 주고 있다.\*\*\*



모교 시그너'에 동문들 UCLA서 연수

LA... "잘 보고 들어갑니다" 호평... 모교의 성과... 더 공부하고, 한인 시대가 되면 배려도 감사"

"연수기간 동안 영어에 대해 또 장면에 대해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항상 최선을 다해 살겠습니다. 모교의 성과... 더 공부하고, 한인 시대가 되면 배려도 감사"

"연수기간 동안 영어에 대해 또 장면에 대해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항상 최선을 다해 살겠습니다. 모교의 성과... 더 공부하고, 한인 시대가 되면 배려도 감사"

"연수기간 동안 영어에 대해 또 장면에 대해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항상 최선을 다해 살겠습니다. 모교의 성과... 더 공부하고, 한인 시대가 되면 배려도 감사"

모교 사상 첫 여성철학과 교수인 그는 "이번 강의가 자랑스러운 한국의 정신적 가치를 알리고 그 안에서 영감을 얻게 될 것"이라면서 "한국 사상의 양태 줄기인 유교와 불교의 이념과 철학을 중심으로 현존의 저능성은, 퇴계 이황, 송암 이이 등의 제자와 그들의 사상을 가르치겠다"고 밝혔다.

조은수 교수는 버클러셔 대학에서 "한국 사상의 양태 줄기인 유교와 불교의 이념과 철학을 중심으로 현존의 저능성은, 퇴계 이황, 송암 이이 등의 제자와 그들의 사상을 가르치겠다"고 밝혔다. 조은수 교수는 버클러셔 대학에서 "한국 사상의 양태 줄기인 유교와 불교의 이념과 철학을 중심으로 현존의 저능성은, 퇴계 이황, 송암 이이 등의 제자와 그들의 사상을 가르치겠다"고 밝혔다. 조은수 교수는 버클러셔 대학에서 "한국 사상의 양태 줄기인 유교와 불교의 이념과 철학을 중심으로 현존의 저능성은, 퇴계 이황, 송암 이이 등의 제자와 그들의 사상을 가르치겠다"고 밝혔다. \*\*\*

크도 구축했다. 김현민 동문은 "장애인을 보살피지 않을 땀아주도 도와주는 미국의 문화에 놀랐습니다. '미국은 유교 스타도 갖고 있던 것인데 왜대도 못 배우고 외국에서 공부하는 거지'라고 놀랐습니다. "수업이 있는 주말에 유니버시티 버스와 지하철을 타고 유니버시티 스타도 만나고 공부하는 것을 다니면서 놀랐습니다. 미국 사람이 가장 기이네요"라는 김 대표의 말은 "앞으로 문화는 어떤 사람이든 유학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경우의 기회가 더 많아질 것"이라고는 희망을 밝혔다.

"한국에서 장애인에 아직까지 귀찮은 존재로 여기지만 이것은 장애인에 대한 배려가 담긴 문화가 아니다"는 이명호 "이같은 문화가 한국에서 뿌리내리고 40년대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변화될 수 있도록 일할 것"을 다짐하기도 했다.

해외연수 기회를 제공한 효정학 학제연구회 회장 박사는 "장애인도 노력만큼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을 학생들에게 가르치고 싶다.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에서 우수한 실력을 갖춘 학생들을 많이 배출해 기회를 줄 것"이라고 말했다.\*\*\*

박상희 동문 시집 출간

캐/ 넘치지 않는 오만과 그... '공포의 시대' / '공포의 시대' 안... 사를 수 있는 것들"이라고 말했다.

박상희 동문은 "모국어 시를 쓰는 것은 이념으로서의 아득한 것을 넘어서"라고 말했다. 그는 새를 통해 감정을 일깨워 주고 있다. 새들은 마치 새고/온다/나무는 미국 땅 New York/나와는 친구가 되고/온다/이름이/길을 뚫어내고 미국 땅을 걸음일어 드러낸다. 현대문학으로 등장한 박상희 시인은 "바다 건너", "우리

자감을 아무도 노래하지 않네", "말하지 않는 하루" 등의 시집을 출간했다.

수필집으로는 "그대의 삶, 의 기쁨을 위하여", "그들의 자는 바람을 쫓아" 등도 펴냈다.

박상희 시인은 제1회 시문학상 대상, 국제 여류 시인상(성곡), 국제 우수시인협회 주관 국제 우수시인상 등을 받았다.

현재 창작 클럽에서 후배들에게 시를 가르치며 미국 동부 한국 문인협회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그는 많은 이민문학 총서도 '삶과 문학'에 참가하기도 했다.\*\*\*



### 김성목 뉴욕총영사 고교수로 귀국

55년 외교관 생활 은퇴, 재일기 진 FTA 체결, 재외동포 참정권 등 굵직한 일의 연속

지난 2010년 8월 뉴욕 총영사관의 부임했던 김성목(55)총영사가 지난 9월 초 함양으로 돌아와 35년간의 외교관 생활을 마무리했다. 지난 7월 한국 총영사관 근무실에서 김영득 총영사가 언론과 인터뷰했다.

▶소속 광둥에는 한문시조가 어릴 때부터 '나취학해 읽었다'는 사정담으로 '한국'을 대표할 수 있는 외교관의 삶은 화려한 장밋빛일까, 가시밭길일까. 자국 이익을 위해 치열하게 싸우는 외교부대에서 내외오는 김 총영사는 남다른 강박 의식을 품었다.

“외교관 일이 뭐냐. 김경호가 타이프한다. 보아 화도 바빠야 마루 생각이다. 우선 귀국한다. 자의반 타의반으로 사람들이 나랑 불리는데 같다.”

주말도 없이 오후 8시부터 밤 11시까지 일하는 그의겐 출근시간도, 퇴근시간도 없었다. 지난 2년간 그는 뉴욕 한인사회에 어떻게 다가갔을까. “최초한 뉴욕 동포사회 지도자들과 소통이 잘 되고 있다. 적절에 한 FTA가 타결됐고 앞으로 2-3차례 많은 도농이 될 것이다. 그동안 어려운 한민정세에 도를 추르고 세부, 회계 세미나 돈을 많이 많이 붙여 왔다. 앞으로 한인 은행이 확장되면서 동포사회에 도를 올릴 것으로 기대된다.”

김영득 총영사 시절 한미 FTA 타결 외에 재외동포 참정권 시대가 열리고 한식과 K팝 열풍 시대를 맞는 등 굵직한 일들이 일어났다. 뉴욕의 일본 위안부 기립비 철폐 사건에 도를 올린

심의 초점이 되었다. “백라 위안부 기념비를 조성한 분들의 기복과 용기를 높이 평가한다. 우리 역시 부끄럽지 않은 도덕성, 추미너티 정신을 지니야 한다.”

한국외무부 대표되는 뉴욕총영사는 갈 곳도 없다. 한인 주회 각 행사 외에 미 주류사자와 모일, 한미 참정권사 모임 등도 중요 항목 2-3곳이 정해 하루 두 번 뛰었다. “해 총영사가 안 나가면...는 곳이 어디고요 그에게 개인적인 시간이 없었다. 국제 상황하는 것이 언제 어떻게 변할지 모르고 한미 의회 관련 보고서원 등 외에 한국에서 손 손님, 외교동상부 보

2003-2005년 KEDO(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 사무총장 시절

“한일-북한관계 책임자로 뛰어난 진취성과 각 총영사는 누구든 내일 할 일을 먼저 하고는 강요를 할지라도 아슬아슬 정도 있다.”

▶달리관 주위 위상은 1970년대 미국 원공파를 통일한 그는 제 10회 국무고시를 보고 외교관의 길을 걷게 된다. 1982년에는 프레스 국제행정대학원에서 국제관계학 석사를 취득. 1979년 외무부에 입체해 아르디나 손님을 지방으로 인턴하고 나다 보니 오랜 주한 모임을 감추고 싶을 정도로 한국은 가난한 나라였다.

“조용한 한국 외교관 하나가 김성목이었다. 한국이 잘 살게 되니까 주변국의 기복과 요청이 너무 많아 배이다. 저게 할 수가 없는 바이다 미국도 무자하라는 곳이 많다.” 그는 이렇게 1983년 아르디카

코르도브라에서 근무를 시작했을 때와 지금의 달라진 한국 분위기를 실감하고 있다. 근무지는 코르도브라로, 1993년 싱가포르 총사령, 2007년-2010년 주이란 대사 위해 두 차례 미국에서 근무했다. 1989년 미국 1등 시기관, 1990년대 북미 1차방, 북미 국제2차방, 북미국 심의관, 1999-2002년 주유엔 사무총장 등 주유엔 사무총장이다.

이 시절, 세계 정치의 중심지인 워싱턴DC에 근무하면서 소비테 연방 붕괴, 제1차 걸프전 등의 역사적 사건을 맞아 외교관으로 한국에도 변화가 있을 것을 짐작했다. 독일은 조만간 통일되고 소련과 양국이 수교할 될 것도 예측했다.

“워싱턴 정부당장 시칠 등 국에 가서 봤었다. 친한관 사도도 없었어. 한국도 통일을 준비해야 한다고 생각, 북방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라는 기간을 활용에 당시 기뻐했다. 한미의 지평이 넓어지고 있다는 것을 실감했다.”

그는 대미관계 업무를 총괄하던 남 북관계도 급진적, 북한외의 핵무기 개발 초안을 만들기도 했다. “미국이 핵무기를 개발하는 걸 막고 싶어한다. 1995년 김주수 사무차장 시절 단으로서 제네바 협정을 맺은 미국과 북한간 코디네이터 역할도 간접 참여했다.”

2003-2005년 KEDO(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 사무총장 시절

“한일-북한관계 책임자로 뛰어난 진취성과 각 총영사는 누구든 내일 할 일을 먼저 하고는 강요를 할지라도 아슬아슬 정도 있다.”

▶달리관 주위 위상은 1970년대 미국 원공파를 통일한 그는 제 10회 국무고시를 보고 외교관의 길을 걷게 된다. 1982년에는 프레스 국제행정대학원에서 국제관계학 석사를 취득. 1979년 외무부에 입체해 아르디나 손님을 지방으로 인턴하고 나다 보니 오랜 주한 모임을 감추고 싶을 정도로 한국은 가난한 나라였다.

“조용한 한국 외교관 하나가 김성목이었다. 한국이 잘 살게 되니까 주변국의 기복과 요청이 너무 많아 배이다. 저게 할 수가 없는 바이다 미국도 무자하라는 곳이 많다.” 그는 이렇게 1983년 아르디카

### 김태진·엄태호 신임영사 위싱턴 부임



주미 한국대사관 위싱턴 총영사관에 김태진·엄태호 두 명의 신임 영사가 지난 8월 20일자로 부임했다.

김태진 영사(참사관)는 모교 고국학과 동경대학원을 졸업하고 미국 시카고 대학교에서 정치학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 1991년 외교부에 입부, 주미 대사관 및 주 아르헨티나 대사관, 주 일본대사관 등을 거쳐 지난 해 북미국 한미 동맹 업무처리를 맡았다. 이번호에 정지호는 모교에서 정치학을 전공한 뒤 하버드대에 공공정치학 석사 학위를 받은 뒤 지난 2005년 외교부에 입부, 이번



이 첫 장관 부임이다. 재외동맹영사관 영사 서비스코, 인사기획관실, 북핵 외교기획단 북핵정책과 등을 거쳤다.

김태진 영사는 “민원 처리와 관련된 재외동맹을 보호하는 것이 업무에서도 중점을 두고 있는 영사 업무”라며, “앞으로 한인사회에서 발생하는 여러 이슈들에 관심을 갖고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외교부 입부 후 처음 일한 업무가 영사 업무”라며 “동포들이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전근선 영사 LA총영사관 부임

“외교부의 발전을 위해 작은 힘이나마 보탬도 하겠다”

LA 총영사관에 전근선 총영사(42)로 부임해 지난 8월 총영 업무에 임했다.

전근선 신임 총영사는 언론사를 변호사, “동포들의 합법적인 권을 기용하는 영사가 되었다. 동포들의 발전에 기여하 나마 보탬도 하겠다”고 부임 소감을 밝혔다.

전 영사는 외교부 재외공관 담당관으로 임명됐다. 지난 9월 사가 담당하던 동포 업무부 총무 맡게 된다. 2000-2002년까지 UC샌디에고에서 관행방 미국국제대학을 공부해 LA가 국제적 지었다는 전 영사는 “나가는 해외에서 한인들이 가장 많은 지역인 한미라 일제 강점기 독립운동가 분포자도 여러 가지 상징과 의미가 있는 곳”이며 “앞으로 배후는 자제로 업무



를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전 영사는 “호주대총관 근무 시 기여한 공로를 인정해 모교 장편 입부를 했었고 LA총영사관에서는 지사사 관련 일을 맡았지만 본격적 업무시작 전담은 이번이 처음이다. 최대한 빨리 업무 파악을 마치고 싶다”고 말했다. 전 영사는 모교 외교과학을 졸업했으며 1994년 위구어시(28회)를 통해 입부했다.\*\*\*

### 원미량 화백 개성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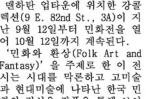
정표판시스코 중견 미술가 원미량 화백이 ‘반경림의 미술스튜디오’에서 9월 14-30일

초대 개인전을 열었다.

이번 개인전은 기존 작품들과는 조금 다른 색채와 2차원 선율을 많이 사용한 작품 20여 점을 선보였다.

원 화백의 작품은 SF 아시안 아트 뮤지엄에서 전시될 바 있으며 지난 5월 열린 SF 퍼인아트에서(SFAP)도 출품했다. 모교 미대를 수석 졸업하고 프레스코 미술대학에서 박사 학위를 취득한 원 화백은 1984년부터 해외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다. 전시는 14일부터 30일까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진행됐다.\*\*\*

### 허수영 화백 '민화와 환상' 작품전



뉴욕 맨하탄 갈 클렉서서

맨하탄 입타운에 위치한 갈렉서(O. E. 82nd St., 3A)이 지난 9월 12일부터 민족절을 열 예정이며 ‘민화와 환상’개성전이다. “민화와 환상(Folk Art and Fantasy)”을 주제로 한 이 전시는 시대를 막론하고 고미술과 현대미술에 나타난 한국 민화의 정신을 작품을 통해 보여 주었다는 평이다. 원미량 화백이 허수영 동포를 손꼽는 대명사 화백의 작품 중 새롭게

선보이는 조선시대 8폭 문자도

복합, 북한에서 온 베품자들이 선보이고 있다.

모교 미대 동양화과를 졸업한 허수영씨는 활동 중인 2012년 작 ‘오봉방’ 6폭 병풍이 전시되고 있다.

대한민국의 화백 1만명이 넘는다는 것인도 있는 오봉방은 원래 조선시대 민속의 융성 시대를 상징하는 장승세 장승세로 된 병풍이다. 오봉방에는 해·달·솔나무,

그리고 다섯 개의 봉우리가 그려진 병풍으로, 허수영 작가는 그녀의 독특한 수묵 화풍으로 근사한 현대식 ‘오봉방’ 병풍을 창조했다.

한편, 화백은 선화를 그린 것 위해 20년을 넘게 많은 한국인의 선·유·대·인 등을 공부, 김부식의 삼국사기, 이규보의 국사편찬, 대각사의 의천의 문리 등의 많은 문헌과 인화물을 조사하고 역동적인 색채와 그만의 해석적이고 독특한 화풍으로 한자를 나타냈다

는 평이다.\*\*\*



←위싱턴 DC 동창회가 합선신 회장 주재로 첫 이사회를 열었다.

### 위싱턴 DC 동창회 신·구 회장이취임식 및 첫 이사회

위싱턴 DC 동창회가 지난 7월 21 일 부록에서 정기 총회를 개최 해 제30대의 33대 구·신임 회장이 취임을 가졌다. 이날 32대 재무·감사·총무, 상해유 기금 및 장학금 전담, 사명방 모임을 편약 포럼으로의 전환문제 등에 대해 논의했다. 또한 제32대 신임 회장으로 합선신(송대 77·연북쪽 사진)등문이 선출됐다.

동창회는 이어 임원진을 선출하고 9월 9일 첫 이사회를 열었다. 이사회 추대된 22명과 임원진이 참석한 가운데 이날 새 임원진들이 선출 첫 인사를 나누며 자기 소개제 및 예산 심의, 이사회 임원장제, 회장실기 개강안, 헬렌 리 명예회장의 추천안도 결정했다. 이어 조원진(경제 80) 등문이 '대중음악과 문화'를 주제로 특강을 했다. 자기 주조사업은 전이에서 순계, 추진되고 홈페이지에 신구, 경조비 지원지침 보관 등은 추가로 검토해 다시 협의하기로 했다. 동창회는 매년 편미 장학제인 장학금, 비지니아 편미 장학제인 헬리 후원, 서울대 특별장학금을 출연하고 있다.

- 새로 구성된 임원진은 ▶부회장 장정대(사대 75)·박혜련(남대 80) ▶총무 장재근(자연대 82) ▶재무·인선미(송대 65) ▶사기 집행장 박운수(문리 48) ▶2013년 평의회준비 위원장 권기원(사대 53) ▶2012년 송년대회 준비위원장 헬리 리(명예회원) ▶골프대회 준비위원장 류용민(자연대 74)이다.

#### 다음은 신임 합선신 동창회장의 인사말이다.

"존경하는 선우배님, 명문 서울대의 배지를 달고 가슴 부풀어 캠퍼스를 누비며 학문과 정진하며 삶을 갈망하던 때가 이제 갑갑스레, 이제 모교와 포옹을 떠나서 자기 정지의 중심적인 워싱턴과 미국 주부사립들이 우리 동문들은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인재로 각 발전에서 높은 기량을 발휘하며, 서울대인의 자긍심을 높여주고 있습니다. 이번 특별한 동문들을 모시고 이례 워싱턴 지역 동창회를 이끌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며 한편으로, 아제가 무거워짐을 느낍니다. 하지만 제가 믿고 돌아온 여러분들의 협조와 지원만이 동창회 발전을 위해 해



선출 다 한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이번 조지지는 참 사무원의 능력과 지혜만으로는 성공적인 조지지가 될 수 없듯이 기발하고 재능이 있는 임원명령이 필수입니다. 또한 삶의 연련과 지혜를 갖추신 선배님들의 적극적인 후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동문님들의 협조와



참이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저는 믿고, 동창회의 발전을 위해 달성할 3가지의 목표를 설정해 보았습니다. 첫째, 동창회장으로서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끝없는 동문들과 연호하는 동문들님 세대

의 배를 부너뜨리고 함께 어우러져 즐겁고 유익한 동창회를 만드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모든 동문들께 동창회의 의미와 참여 동기, 활동영역에 대한 설문조사를 하고자 합니다. 세대별 희망사항이 다르겠지만 총괄적으로 서울대 동창회가 도모해야 할 것들이 그러리라 봅니다. 설문 결과에 맞게 동창회 성격 및 활동에 맞춰가야 하겠습니다. 둘째, 동창회 발전을 위해 단과대학 동창회와 연계대화할 도모할 것입니다. 사명방 모임이 자연스런 토론의 장으로 변하는 모습을 보면 언뜻 보면 이는 이렇듯이, 동문들의 밀착한 우리의 각축전을 벌일 수 있는 단과대별, 혹은 소그룹을 통한 사회 제반 이슈에 대한 debate session을 만들고 싶습니다. Debate 모임을 활성화 해 선우배님 소개할 있게 하며, 본기별 간담회 마련을 위한 수단을 마련하는 등의 장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또한 한 번 선우배님들의 우상이 단독 제리라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동창회의 networking을 강화해 선배가 후배를 밀어주며, 후배는 선배의 조언을 구하는 그런 동창회를 상상해 봅니다.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명문 대학의 근간은 그 대학을 졸업한 동문들의 모교와 후배들을 위한 아낌없는 정신적 재정적·사회적 후원임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워싱턴 동창회도 서울대인의 자긍심을 갖고 화합과 모교 발전을 위해 잊는 동창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선우배님들의 따뜻한 사랑과 관심, 정성을 부탁드립니다.\*\*\*

—권기원(사대 53 연 서안 과) 전 회장님을 비롯한 관계 인사들이 참석했으며 신임님 이들에 게 축하금을 주고 있다.



북가주 동창회 스티븐스 크릭 카운티 파크에서 열린 북가주 동창회 이음 야유회에 참석한 동문과 가족들이 기념촬영을 했다.

### 북가주 동창회 스티븐스 크릭 카운티 파크서 야유회

북가주 동창회가 지난 8월 11 일 쿠퍼티노 소재 스티븐스 크릭 카운티 파크에서 여름 야유회를 열었다. 이날 야유회에서는 통기타 가수들의 연주에 맞춰 노래를 따라 부르고도 하고, 마술사 제

리트 조셉씨의 메직 쇼를 비롯 해 줄다리기 등 가족과 함께할 수 있는 다채로운 게임 등 볼거리가 풍성했다. 특히 53학년부터 00 학년까지 재대를 초월한 동문들이 모여 우애를 다졌다. 북가주 동창회 행정담당 이화

정 문은 "지난 해에는 60여 명이 참석했는데 올해는 110여 명이 참석자가 크게 늘었다. 선우배 및 통기와 가족들이 어울려 메직쇼에 이색을 즐기며 하나만큼은 느꼈다"고 말했다. 그는 고학번 동문을 위주였던 예년 야유회와 달리 53학년부터 00학년까지 세대 차이를 넘

어 동문과 가족간 친목 도모하는 결실을 거두었다는 것이다. 동창회는 9월 해마다 열리는 정보 제공 인재를 운영해 사업에 성공한 강정우(대기과 화)·\*61)등문을 초청, 비즈니성 공 세미나를 주관하는 등 북가주 동문의 자기개발을 돕는 자리를 마련했다.\*\*\*



남가주 동창회

## Bishop서 동문가족 추억만들기

남가주 동창회(회장 서치원·공대 69)의 가장 멋진 절친 중 하나로 자리잡은 가족 캠핑이 올해도 지난 9월 1-3일 노동절 연휴를 이용해 2박 3일간 아름다운 시에라 네바다의 Bishop에서 열렸다. 100여 명의 동문과 가족들이 참여한 이번 행사에 토요일과 일요일이 휴간된 저녁 민찬은 공대-분리대 동문회에서 각각 주최하게 준비해 경관이 수려한 Millpond Recre-

ation Area에서 모두 함께 했다. 저녁 단찬 의 아침과 점심은 각자 준비, 숙박은 각자 Camping 또는 인근 숙소를 이용하도록 했다.

학대 동창회의 장진성 전 회장은 손수 잡은 참치를 정성들이며 가족들 앞에 오셔서 직접 피클 드크 스타이크로 구워주어 동문들 모두를 감탄케 했다.\*\*\* <사진·고정범·법대 79>



Bishop의 관광단지 Silver Lake의 호수 주변에서 기념촬영했다&lt;사진= 김병연·공대 68&gt;



## 컬리 프라이즈 첫 정기공연 실시

남가주 동문들로 결성된 본지 밴드 그룹인 'Curl Fries'가 지난 8월 18일 동포들을 대상으로 첫 공연을 가졌다. 아프리카 오지 식수개선 프로젝트를 위한 이날 제1회 정기 공연은 LA의 'Wishare Art Center'가 후원했다. 공연이 열렸는데 적어도 250명으로 한창된 관객이 꽤 차는 대성황을 이뤘다.

이날 Curl Fries 밴드는 우리 음악과 잘 통 다량한 장르의 곡들을 연주해 공연장을 뜨거운 열기로 가득 채웠다. 이날 K-Pop 등 여러 팀이 찬조출연해 활기를 더해주었다. 밴드 리더인 최용준(수의대) 동문은 "대학 동문들이 6년 전 처음 뜻을 모은 뒤 지난부터 본격적인 연습과 활동을 하게 되면서 첫 정기 공연을 준비했

는데 평가 의미 있는 일을 함께 예보자는 취지에서 식수 오 염으로 고통 받고 있는 아프리카가 오지를 돕는 일에 조금이나마 힘을 보태기로 했다"고 말했다.

'컬리 프라이즈'는 이날 아프리카 카메룬의 식수 개선 프로젝트를 펼치고 있는 "크리징 얼지 나이프 (CRIB)" 액티비티를 후원할 수 있도록 밴드 편성을 맞춰 6천 달러를 전달했다.\*\*\*



## 관악연대 말리부서 소리 경연대회

남가주 관악연대(연대장 김종하·인문대 85)의 대표 경연 대회 행사 중 하나인 '소리 경연대회'가 지난 8월 11-12일 말리부의 Leo Carillo 비치 그룹 캠핑장에서 1박2일 Camping으로 개최됐다.

올해는 창설 25주년 기념식에서 직접 주최하는 요리경연대신 미리 만들어 온 '바비큐와 어울리는 Side Dish Competition'을 실시했다. '캠핑 첫날 저녁식사로 주최할 이 갈비 바비큐와 밥을 준비했는데 경연대회에 참가하는 6개 동아리들이 side dish를 하나씩 만들어 오게 한 것이다.' 심사위원들의 엄정한 심사를 거쳐 수회 바비큐와 가장 잘 어울리는 side dish를 만들어 오시는 6팀을 골라 '대상'과 '최우수상' 및 '인기상'을 선정하고 후점한 상품도 증정

했다. 심사위원들의 엄정한 심사 끝에 이날 훌륭한 동문 가정들 모두가 상품이 돌아갔다. 최우수상인 '대상금상'은 이종호 동문에게 돌아갔다. 상품 '보이스 캐드'는 김준오 동문(전기 88)이 운영하는 회사의 개발품으로, 골프장에서 돌핀까지 거리를 한국말을 성서로 곧바로 알려주는 아주 편리한 기능을 자랑한다. 현재 '아마존닷컴'에서 절찬리에 팔리고 있다고 한다. 김준오 동문은 이날 행사를 위해 '보이스 캐드' 2개를 후원하고, '아마존'에서 상품리뷰를 많이 달아주기를 부탁했다. 본격적인 여름 시즌, 방학을 이용해 동문과 가족들이 함께 모여 휴식을 나누는 기회를 제공하는 행사였다.\*\*\*





**뉴욕 동향회**

**골든클럽 골프대회 및 바다 낚시**

뉴욕 동향회 골든클럽(회장 이준형 공대48)이 지난 8월 1일 골프대회를 가진 데 이어 19일 바다낚시를 다녀왔다.  
 ▶골프대회= Blue Hill G.C.에서 모두 43명의 회원과 친지가 참가한 가운데 개회식 대회제달리스트는 83명씩 기록한 조승자 최원익이 차지했다. 이날 이른 아침, 소나기가 퍼붓고 더위가 돌았다 관공회기도 오.오전엔 햇살도 나와 차분히 행사가 진행됐지만, 9홀을 끝낸 뒤엔, 일출문개를 동반한 소낙비가 또다시 내리. 경기가 1시간 정도 지연되기도 했다.

경기를 마친 후, 참가 회원들은 근처 한식당이 모여 돼지고기 만찬 후에 시원한 맥주로 즐거웠던 하루를 마감했다.  
 새로 개최한 이범선 선배와 미주리로 이주한 호민선 회원 등이 이번 대회에 참가했고, 뉴욕은 물론, 북부주 참가한 먼 벨릴 등분 부인이 근절상 수상자의 영광을 차지하기도 했다.  
 골프대회 참가 등분 및 가족은 이번엔 회장을 비롯해서 과상은 김경선·김세주·김영민·김인경·김영식·김광주·노용민·민준기·박영선(홍명희)·방석은·손경택·손영원(손정자)·송송진

·신정택·윤정숙·이봉석·이영미·이범선·이정국(원랜리)·이홍민·임호순·장동만(고예자)·정수인(정은희)·장인희·조달문(조승자)·주재양·권봉일·채구진·최준희·최철웅·한태민·호민선·홍종만 등분 등이며 게스트로 민병렬(이한희)님 등이 참가했다. (관외 안은 부인)

▶바다낚시= 올해 바다낚시는 이번이 벌써 다섯 수확이 몰려왔다. 그러나 모두 16명의 등분이 오면 7시 Sheephead Bay, Brooklyn의 선착장에 모여 예전과 마찬가지로 이번엔 회장님이 제공하는 특제 밑미약을 한 알씩 먹고 배에 올라 낚시를 시작했다.  
 그러나 길이 19.5인치 규격에 합당한 광어가 많이 잡히지 않아, 집에 헛갈리로 가져 가



1바다 낚시에 참가한 등분들이 광어를 낚아오고 환호하고 있다.

보다는 주로 맥주와 소주의 술 안주 삼아 상심한 광어피를 먹으며 여기 저기 이야기 웃고 있었다. 다행히 낚시 중에는 비가 오지 않았으나, 낚시를 모두 끝내고 돌아오는 길에 번개를 동반한 소나기가 퍼붓자 이야기기도 로가 취소 되기도 했다. 그러나 회원 모두가 낚시 행사

를 안전하게 끝마쳤음을 감사드리며, 다음 기회에는 더 좋은 수확이기를 기대하고 있다. 이날 참가 등분은 이준형 회장을 비롯해서 김광주·박영민·정기모·손경택·송송진·이정태·이영미·이수호(이명희)·이정국·이홍민·임호순·최철웅·홍명환·송성문 등분 등이다.\*\*\* <홍종만 사무총장>

**시카고 세송문화회**

**제3회 국제 작곡경연대회 수상자 발표**

시카고 세송 문화회(이사장 김호범 대대 69)가 제3회 세송 국제 작곡 경연대회 '세송상(Seong Prize)' 수상자를 지난 18일 발표했다.  
 중·고교생들이 연주할 피아노·바이올린 솔로 곡을 작곡하도록 한 지난 1-2회의 경연대회와 달리 이번에는 전문 연주자들의 연주가 역할하며 지정한 한국의 테마가 들어있는 곡으로 높은 피아노 트리오 또는 듀엣곡을 작곡토록 해 작곡가들의 많은 노력을 요구하는 특별한 경연대회였다.  
 10개월에 걸친 응모 기간 동안 한국·미국·캐나다·중국·영국·크로아티아·태국 등 7개국에서 16~68세의 참가자들이 응모한 결과 모교 송대를 응원하고 작곡 활동 중인 박용민 등분이 1부상을 받았다(사건).



박용민 등분은 2005년 모교 용대에 장학생으로 입학해 2009년 졸업하고 세송회 장학금으로 작곡부 1등, 제13회 피아노 듀오 쿨루르 작곡부문 대상, 제5회 두오협회 스페인 콘서트 작곡 발표, 유엔 앙상블을 주축 승단의 음악세계, 설 내외 영국의 밤 등에서 연주, 제3회 앙상블 주축 한국 작곡가의 밤에서 연주, 그리스어 다테에서 열린 그리스어 수교



**연우회 동향회**

**Garibaldi Lake 산행,골프대회**

연우회 동향회가 지난 7월 11일의 등분과 가족들이 참여한 가운데 Garibaldi lake 지역을 등반한 탐사했다. 등분들은 이어 22일 Golden Eagle 골프 클럽에서 골프대회를 가졌다.  
 ▶산행= 이날 밴프 Rocky 7박 8일 산행 계획중던 이광호 등분, 서울에서 모처럼 방문한 박병우 등분, 가족 모두 참여해 산행 분위기를 더 거꾸로 만들어 준 문봉수 등분, 모처럼 대만인구 정지 현안 등에 관해 많은 고견을 전해준 조진득 등분 등이 참여한 자리를

더욱 빛내주었다. 이 외에도 홍국남 이광호 문창영·진성훈 등분 등이 참가해 두다.



특히 홍국남 등분과 문창영 등분 부인은 이날 몸이 불편한 상태였지만 끝까지 완주해주시는 등분들의 힘찬 박수를 받았다.  
 ▶골프대회= 골든이글 남쪽 코스에서 열린 라운딩 참가 등분들은 최승은(2)·이원욱(1)·조석기(2)·문봉수(1)·최호근·주부호 등분 등이다.\*\*\*

▶이호범 이사장



미주 동창회 Fund Raising 골프대회

### 동문들 협조로 2만여 달러 모아

미주 동창회 'Fund Raising을 위한 골프대회'가 2만여 달러의 기금을 모금한 가운데 지난 9월 19일 캘리포니아 Rolling Hills Country Club에서 열렸다.

골프장 산 정상에 서면 LA를 비롯한 인근 도시가 사방으로 한눈에 들어오는 수려한 경치에서 참가자들은 동창회를 위한 장애인에 적극 동참할 뜻을 밝혔다.

'Fund Raising을 위한 골프대회'는 동문·비동문에 관계없이 미주 동창회를 위한 기금 모금 행사 중 하나로 이름 높은 수익금은 'Brain Network Workshop' 등 미주 동창회가 주관하는 무료 행사에 쓰이게 된다.

미주 동창회 실무위원(상대 68)

사무총장의 사회로 진행된 만찬 시상식에서 최태정 김은중(상대 58) 미주 동창회장은 "비교적 더운 날씨에도 많은 분들이 뜻을 같이 해주어 고맙기 그지없다"며 "이런 기회를 통해 기부 바이너스를 키우자"고 제안했다.

이 행사를 치유하며 기뻐할 이종도(상대 60) 기금모금 위원장은 "이 골프로 김은중 회장으로부터 '독심상'을 받은(왼쪽 사진) 뒤 '계속되는 불경기의 어려움 속에서도 동문들을 비롯한 여러

분들의 적극적인 원조로 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르게 됐다"고 참가자들에게 고수고를 표시했다.

이날 실무위원 사무원장은 실석여 의에도 제치와 유모의의 자종아



이들이 부른 시상상을 다음과 같이 마련해 뜻을 모아냈다.  
 ▶Champion= 이기문(상대 54·오른쪽 사진) ▶Medalist= 김제형(중대 62) ▶1등= 방석훈(중대 55)



▶Longest Drive= 노영호(중대 61)·김제형 ▶Closest to the pin= 노영호·상주경 ▶최다 운송상= 백옥자(유대 71) ▶평균상= 김병연(중대 68) ▶최고 예컨이 상= Mrs.김은중 ▶동맹서별상= 김은중 ▶욕시나 임시나상= 지인수(상대 58) ▶독심상= 이종도 ▶특별 게스트상= 이홍표(의대 58) \*\*\*



### 남거주 상대동창회 정기골프대회

남거주 상대 동창회가 지난 9월 1일 Palos Verdes Golf Club에서 정기골프대회를 개최했다. 사대평간 일인애로 자리잡아 특히 경건이 수리하기로 유별한 환경같이 라 동문과 가족들은 한결같이

"이런 골프장을 좀 더 자주 방문을 했으면 좋겠다"고 이구부성으로 밝혔다.

유병원(76) 동창회장은 "Labor

Day 연휴 기간임에도 많은 동문과 가족들이 참여해주어 기쁘다. 다음에도 꼭 주변 환경이 좋은 곳으로 모시겠다"고 화답했다.

이날 골프대회 입상자는 ▶원포인트 ▶1st= 김준경 ▶2nd= 김창욱 ▶Longest= 한지 오 등이다.

골프대회 후 김은중 미주 동창회 회장(상대 58)은 참가자 모두를

인간의 자택으로 초대해 저녁 만찬을 배려하여 동문들을 더욱 즐겁게 했다.

김기형(상대 75) 동문과 로렌스 탄(경인대학원) 동문은 초대해 온 김은중 회장과 부인<김(은희) 씨>이사에게 감사의 표시로 화사한 꽃다발을 준비해 증명했다.

김기형 동문은 "예쁜 사모님에서 맛있는 음식 뿐 아니라 직접 피아노 반주로 클래식은 끝은 활동과 우리 가족을 연주해주어 더욱 뜻깊은 하루가 됐다"고 감사해 했다. \*\*



↑김기형(왼쪽) 동문과 로렌스 탄(오른쪽) 김은중 회장과 부인 <김(은희) 씨>이사에게 화사한 꽃다발을 증정후 기념촬영했다(뒷 사진). 골프대회 후 마련한 초대된 상대 동문들 중 일부가 김은중 회장 부부를 중심으로 한 자리에 모였다.

My Journey to America &lt; 권준희 교수

## 좌절하지 않는 삶의 열매 &lt;3&gt;



권준희(시골음악학과 87) 권준희 교수

▶사할과 고향= 그렇게 계속 되는 어려움에 계속 동안에 내게 큰 비범함이 되어주었던 것은 사할하는 사람이 생겼기 때문이었다.

나는 한국에서도 공부와 일만 하던 공부벌레, 일벌레였기에 언덕다운 언덕 때로는 못됐다. 미국과 미국에서 딸의 미국 친구들이 데이트도 요청하는 것이 있었지만(아름다운 딸들은 아시아 여인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 아시아 여인은 남자들에게 무조건 북쪽적으로 삼 것이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 있을 것이다), 나는 부모님까지 절대로 외국인과는 결혼을 희망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에 그 친구들의 요구를 단호히 거절하였다.

그러나 내 번째 시련을 겪은 후, 나의 그런 생각이 서서히 바뀌어 나가기 시작했다.

그런 말도 안된다고 생각했는데, 나는 나의 친구와 연애를 계획하고 맹구처럼 친구 관계를 가까이 유지해 온 것이었다.

그 친구는 처음에 내가 너무도 불쌍하고 안타까워서 불분명하게 놀았다. 그러면서 중우씨는 조곤한 말이 들리고 알게 될수록 친구를 처음 본 모습과 다름없이 아니, 그보다 더 착하고 사려깊은 모습으로 내게 바뀌고 있었다.

▶촌놈 내 마음= '국제결혼은 원천 금지'라는 것(이런 내 고집은 내가 그리고는 순순히 어떤 결정을 내렸는지 한꺼번에 빼앗겼던 것이다) 그날 밤 이후, 그의 중요한 것으로 생각되지 않았다.

힘겹고 아픈데 마음에 크나큰 활력이 되었던 그의 사랑을 나는 그대로 받아들였고 우리의 관계는 빠르게 전진이 되었

다. 그렇게 제임스와 나는 서로에게 연결된 운명의 끈을 당기며 저서처럼 서로한테 끌려 갔고 있었다.

그는 나와 함께 늦게까지 도서관에서 공부하고 공일을도 생략했으며, 나의 수많은 보고서들을 수정해 주는 일에 시간을 아끼지 않았다. 그리고 절친한 친구였던 스티븐과 함께 우리 같은 '이념의사'를 순탄하게 졸업하며 졸업하는 등 기숙사에서 아주 친하게 지냈다.

▶부유함과 고향= 가지만 하고 가꾸지 않으면 가꾸는 자와 부모님과의 갈등은 더욱 심해져 갔다.

우리 부모님은 매우 보수적인 분들이셨기에, 파산의 저가 '국제결혼'을 한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지 못할 것이라고 했다. 그분들이 알고 계시는 국제결혼의 모습이 아닌 한국전쟁 이후 미국과 결혼하여 북방한 젊은이 사 한국 여인이, 페르시아인 한국사우터 수없이 들어오는 경우를 말하는 혼혈병... 그들이 진

## 아버지는 눈보라보다 더 차가운 눈으로 제임스를 노려보시며 "준희를 포기해라. 그 아이의 미래는 한국이다. 다른 여자들도 많지 않으나" 하시면서 한사코 반대하셨다.

도 "미국인들은 이혼을 많이 한다"고 하시며, "나도 이혼자가 될 수 있을지" 이라는 말조차 시시하게 웃었다.

▶제임스와 나의 생활은 엇갈리게 되는데 "미국 사람이 사귀면 안된다"고 귀에 찌가도록도 일방적으로 어머니와 아버지께서는, 제임스와 가까이 지는 것을 저지 시키는 것에 단호하게, 때로는 야박하시리 만큼 차가운 태도를 보였다.

부모님 생활의 어느 정도 하나에 반대하지 않고 따르면 순종 상망이었었기에 나의 이런 생각의 행동들을 더욱 이해하셨을 것이다.

▶아버님의 분노= 특히 내게 큰 기대를 품으셨던 아버지

씨는 나와 제임스가 친해하는 것을 아시고는 미국 출장을 마치고 돌아가시던 1994년 1월에 아이오와를 방문하셔서 눈보라보다 더욱 차가운 눈으로 제임스를 노려보셨다.

▶준희라는 아이처럼 나는 물론 제임스도 있을 수 없다. 아버지는 제임스와 오로도록 이야기를 하셨다.

"준희를 포기해라. 그 아이는 미래를 한국에서 보내야 할 사람이다. 그녀의 뜻이 뭐여도 알지도 못해 내가 양보를 해라. 다른 여자들도 많지 않느냐?"

▶부모님을 설득 하였다. 아버지가 오셨던 그 이후에도 어머니는 자주 나를 찾아 오셨지만 그럴 때마다 어머니는 제임스의 인사를 받기조차 어려워하셨다.

▶부모님들은 제임스가 어떤 사람이었고 설사 하지도 않았고도 관심조차 없었습니다. 또한 아버지께서는 나를 설득하려는 의미가 전혀 없었습니다. 부모님의 뜻을 거역하여 잘못된 결정을 할 때로는 의외하였다는 모진 말만부르 부모님의 사랑을 저버리지 말아달라는 간절한 어원까지, 여러 가지 방법을 내 마음을 들리려고 하

▶부모님에게 그렇게 해라지만 원심했지만 시료를 향한 우리 마음은 변하지 않았다. 국적으로는 달았지만 그의 가슴에 따뜻한 화기 흐르고 사랑이 넘었던 파산이 더욱 굳어만 갔

다. 사랑하는 남자와 세상에 둘도 없는 부모님 사이에서 나는 배를 짊어는 듯한 고통을 겪을 수 밖에 없었다.

▶부모님의 뜻을 거역= 부모님들은 절 관망한 일이었으나, 나는 만년치 4개월동안인 1994년 크리스마스 전날 밤, 마침내 제임스의 청혼을 받아들였다.

▶나는 제임스의 진실한 사랑을 믿었고, 결코 나를 떠나지 않을 사람임을 확인했다. 하지만 부모님도 부모님의 뜻에 거역하면서까지 결혼을 할 생각이 없었다. 결혼한 것은 가족의 축복 속에서 하고 싶었다. 그래서 제임스의 청혼은 받아들였지만 혼외하는 데 결혼했다는 정황이 없었다. 부모님 설득할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런 정신적인 고통이 계속되는 동안에도 나는 감정에 치우쳐 학성으로써의 일을 소홀히 할 수는 없었다. 시간은 나를 기다려주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런 감정의 격동을 끌어안고도 학업에 열중해야만 했으며, 학과 조교 일을 비롯한 주어진 일들에 최선을 다해야 했다.

▶학자로서 또 생활과학 대학에... 1999년 12월 17일 나는 아이오와 주립대학에서 가족들의 축하 속에 떠날 때 Ph.D를 받았다.



▶부모님은 제임스와 관계를 한시코 반대하셨지만 이미 나는 원천히 그에게 마음을 주었다. 1999년 10월 딸로써 데이비 딸을 낳았다.

시나의 조부는 서히 알려주기 시작했고 장학금을 받고 또 조교일을 하며 처음 계획했던 대로 1995년 4월에 석사학위를 취득하였다. 곧 이어 1995년 가을 학기부터 박사과정에 들어가게 되었다.

▶미국에 후 후 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석사 과정을 뚫었다. 나의 파산과 함께 또 다시 학사 학위를 도전 하였는데, 강압적으로 불거져 버려 강압적으로 끝났고 있었다.

▶편곡의 회복= 약혼 반지를 받고 난 후, 제임스와 나는 부모님을 설득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의 진심을 전했다. 우리의 진심을 편지와 카드에 담아 띄우고 전화도 자주 드셨다. 그분들을 향한 나의 사랑을 계속 확인시켜 드리려고 하

부모님들 다시 한국으로 보내 드리는 날이면 부모님 댁에 기뻐하는 저희자와 회의를, 가난한 학생으로 아무 것도 때드려지 못하는 무능함 등에 감정이 격해져서 얼마나 울었는지도 모른다.

▶글로벌생이었던 큰 딸의 배신은 부모님에게도 너무나 잔인하기 힘든 일이었다. 그분들의 아파했을 마음을 생각하면 지금도 피눈물 따릅니다. 우리의 애도에 불구하고 부모님과 우리의 관계를 가까워질 기회를 보여지지 않았다. 내게 결국 우리는 부모님을 설득할 수 없었고, 그분들의 뜻에 거역하면서까지 결혼식을 올리기 보류하게 하였다.

▶D-Day는 1996년 6월 8일이었습니다. 부모님들은 3월 중순을 앞둔 날에도 장문해, "글로벌생은 아무도 잘 수 없이 혼자 살아야 하라"고 호통을 치시며 화를 내셨다. 혼외에 대한 기대와 기쁨보다는 부모님께 불효했다는 죄책감과도 속상한 날들이 많았던 제임스를 더 기뻐하게 할 수는 없었다.

▶기회= 그런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다. 결혼 날짜를 알려준 이후부터, 부모님의 여부가 조급해 누그러지는 것을 보

▶아버지께서는 "나는 사실 때론 관망하는 일인데, 내 딸이 임야를 보냈음에도 너무 심심해 하지 말라"고 하셨다. 그리고 "결혼을 하더라도 이 다음 아이들을 힘들어 할 터니 혼외하는 날지 말라"고 하셨다. 그런 말을 한다면 만다가 나의 제임스에게는 배반행위가 되었지만, 그대도 드디어 이 부모님에게 나를 용서하기 시작하셨다는 기쁨에 그것만으로도 감동적이 했으며 큰 위로를 받을 수 있었다.

▶결혼을 하는 말도 이제 상안 할 안 할 때다 부모님을 뵈러 오고 감동적이었으며 그렇게 하고 있었다.

▶결혼을 하는 말도 이제 상안 할 안 할 때다 부모님을 뵈러 오고 감동적이었으며 그렇게 하고 있었다.

▶결혼을 하는 말도 이제 상안 할 안 할 때다 부모님을 뵈러 오고 감동적이었으며 그렇게 하고 있었다.

▶결혼을 하는 말도 이제 상안 할 안 할 때다 부모님을 뵈러 오고 감동적이었으며 그렇게 하고 있었다.

▶결혼을 하는 말도 이제 상안 할 안 할 때다 부모님을 뵈러 오고 감동적이었으며 그렇게 하고 있었다.

▶아버지께서는 "나는 사실 때론 관망하는 일인데, 내 딸이 임야를 보냈음에도 너무 심심해 하지 말라"고 하셨다. 그리고 "결혼을 하더라도 이 다음 아이들을 힘들어 할 터니 혼외하는 날지 말라"고 하셨다. 그런 말을 한다면 만다가 나의 제임스에게는 배반행위가 되었지만, 그대도 드디어 이 부모님에게 나를 용서하기 시작하셨다는 기쁨에 그것만으로도 감동적이 했으며 큰 위로를 받을 수 있었다.

▶결혼을 하는 말도 이제 상안 할 안 할 때다 부모님을 뵈러 오고 감동적이었으며 그렇게 하고 있었다.

▶결혼을 하는 말도 이제 상안 할 안 할 때다 부모님을 뵈러 오고 감동적이었으며 그렇게 하고 있었다.

▶결혼을 하는 말도 이제 상안 할 안 할 때다 부모님을 뵈러 오고 감동적이었으며 그렇게 하고 있었다.

▶결혼을 하는 말도 이제 상안 할 안 할 때다 부모님을 뵈러 오고 감동적이었으며 그렇게 하고 있었다.



39

생활의 단상

“인생은 공처럼 둥글다”



박명일(농대 66) 민주 통합학 협사

1. 소근근 소근사기... 술 속에 서 들떠오는 수작업 소리에 눈을 열었다.

술은 비어 있어 깊은 밤으로 까맣게 변해가고, 술 속 육식동물은 뿔뿔이 되어가고 있다. 비가 내리는 밤이면 내 손 속 불꽃이, 매미들은 잠시 휴식을 취합니다. 귀를 쫑긋 세운 새 소리를 듣고 밤비 내리는 소리에 귀를 기울입니다. 술 속 공동생활에 필요한 배우는 새로운 소중한 시간이 생깁니다.

술 먹음은 부끄 무뎠습니다. 눈을 통해 평한 세상 속에서도 그 화려함이나 나를 우울하고 짜증나게 했습니다. 바람, 꽃향기, 그리고 세상을 경이케 했던 몇 년의 살인사건까지 옛 기억들을 경이하는 ‘기억’이 있었고 있습니다. 난반 드레퍼 같은 듯이 비쳐도 좋게 들렸던 빛이 이제 는 기록처럼 내 안에 무겁게 앉았습니다.

“햇빛과 햇빛이, 햇빛과 햇빛이 내 고향이 되더라”는 권도사 시인은 권도사와 ‘기억’이 버려 속을 스스름합니다. 권도사의 다음 고백을 읽어 봅니다.

“무엇을 가리켜 이리기를 보라 하여는 세 것이와 같 것이요 이라. 우리 오래 된 세대에도 이미

있었는니라. 내가 지니 지혜를 알고자 하며 미진 것과 미미한 것을 잊고자 하며 마음을 썼노라. 이 세가 비바람 요로라는 것인 줄 깨달았노라.

권도어 대한 부경과 극한의 해 두, 옛 것이 대한 우울과 서투. 권도사의 의식과 변명법과 고백을 통해서 나는 한 편의 장대한 인생 사서시를 읽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인생도 역사도 한 개의 사건이고, 한 가지 쓰여 가는 바람결입니다.

2. 해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은 테 초(초)가부러 존재하는 것들이었습니다. 새 것도, 더 할 것도 없고, 더 나쁘고, 더 나쁜 것도 없습니다. 옛 인간들은 지금 우리와 같은 인간들이었고, 옛 세상도 지금과 같은 세상이었습니다. 있었던 그대로입니다.

기후부 청정지만 해도 그렇습니다. 이 가지는 오래 전부터 인간 용광, 물과 빙하로 뒤덮여 있었고 내세도 있었을 것입니다. 요즘을 가부변화가 세상 수에 따라는 똑같은 물속을 헤엄칩니다.

목자들은 잔아하고 목욕하던 현대인들이 두근 두근의 말들뿐 는 하지도 않으니, 그러나 그 모든 세상은 사실은 아닙니다. 유사 이 제 지구상에는 사물이 다하고 고 전원이 한 차례씩 있어왔습니다. 20세기 이후만 해도 그 모든 진정성은 인쇄 수에 따라는 똑같은 물속을 헤엄칩니다.

이제는 자기 스스로 눈높이를 차츰차츰 높여가는 노력을 요구한다.

“저를 그것들 배워서 무엇이 되고 싶은가?” 라고 묻지 말라. 무엇인가를 꼭 배우고 싶다는 욕망은 마음의 소리며, 그 소위 배우는 파장을 즐기는 것이 복직이다.

‘넷째, 이름은 ‘더 높이기’다. 마음의 움직임은 다자도 정자를 쓰는 일이고, 몸 움직이는 것은 몸의 움직임이다. 오조음의 제자들은 ‘기둥 생각’하는 것이 더 나은 생각을 낳는다’는 사설이다.

‘따라온 골목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오직 골목의 서거한 길만 있다.’

‘도 노동을 줄이’ 건설할 주변을 정리하면서 건설을 얻을 수 있는 일적이라고 아닌가.

다섯째, 이름은 ‘생신고 놀기’다. 마치 대기의 사자 같은 발상이다.

그러나 내 자신이 스스로 생각노를 얻을 수 있다. 글을 쓰거나 그림을 그리는 것이다. 또 다양한 원리를 사귀거나, 수예품을 만들거나, 각종 좋은 아이디어를 낼 수도 있다.

돈키호테 무덤에서 살아나다



지중근(농대 56)

타입스 시가 선정한 세계 100대 양서 중 하나인 고전 풍자 소설 <돈키호테>.

이 소설의 작가 세르반테스(Miguel de Cervantes Saavedra 1547-1616년 4월 23일)는 스페인이 낳은 최대 소설가이자 극작가며 시인이었고 영미 남은 대 분호 셰익스피어(William Shakespeare 1564-1616년 4월 23일)와 같은 날 사망하였다.

‘당시 스페인은 무적함대를 이끌고 세계를 도망했고 영국은 델라로스 여왕이 대항하여 이틀 동안에서 스페인 함대를 섬멸할 시켰다.’

‘세르반테스는 처음에는 당시 풍미하던 중세 기사 소설을 비판하기 위해 <돈키호테>를 집필하였지만, 결과는 상상과 현실의 구별, 실제에 대한 현실의 소설로 변모하였다.’

제 1부는 시가 1605년 출간되었고, 제 2부는 10년 후인 1615년 출간되어 불후의 명작으로 근대 문학의 창시자로 존경받던 것이다.

그러나 이 두 부분만 읽었다면 이 세상이 평행하다고 믿고 싶었다. 지구는 둥글다고 인정하면 안 되고, 사실은 세상이 지구처럼 둥글다고 믿고 싶었다. 그 사실은 인정하고 믿음을 그 받아들이지 못한 권도사도 나오

경을 받던 당시 그는 가난한 작가로, 포로로 더딘간 노예생활하다가 풀려 나왔다. 은행 장부를 훔쳐 기거하며 갑작 생활을 하던 그는 오리의 속살이 아닌 작곡이 일터되는 뛰어난 장한 생활을 살았다.

그 생은 영국 여왕 엘리자베스 1세가 죽음을 받던 세이브리아는 너무 오래되었다.

작품 속에서, 스페인의 시골 장막처럼 사는 늙은 귀족 ‘키토다’ 하는 주인공은 당시에 실현한 나머지 정신이 이상해져 자살을 기도했고 영국의 기사가 되기 위해 자칭 ‘돈키호테’란 이름을 짓고, 허풍과 소란, 편사함, 자기가 쫓겨나던 태고, 이미 고대인 된 갑옷을 입고, 말타러던 말을 타고 방랑과 모험의 여정을 떠났다. 여배우며 목녀 여인을 성으로 착각하고 여인 주안에서 사랑을 하며, 궁극에 자기가 발발한 주인에 대해 정적 기사 서명을 한다.

여왕 통 풍자를 기인하고 작각하고 그 결과보다는 평판만 다산한 것도 되고, 양해를 받던 ‘돈키호테’의 무리까지 쫓겨나고, 결국은 현실과 현실의 구별, 실제에 대한 현실의 소설로 변모하였다.

제 1부는 시가 1605년 출간되었고, 제 2부는 10년 후인 1615년 출간되어 불후의 명작으로 근대 문학의 창시자로 존경받던 것이다.

그러나 이 두 부분만 읽었다면 이 세상이 평행하다고 믿고 싶었다. 지구는 둥글다고 인정하면 안 되고, 사실은 세상이 지구처럼 둥글다고 믿고 싶었다. 그 사실은 인정하고 믿음을 그 받아들이지 못한 권도사도 나오

경을 받던 당시 그는 가난한 작가로, 포로로 더딘간 노예생활하다가 풀려 나왔다. 은행 장부를 훔쳐 기거하며 갑작 생활을 하던 그는 오리의 속살이 아닌 작곡이 일터되는 뛰어난 장한 생활을 살았다.

어른까지 그의 작품을 전부 읽지 않아도 의인화 된 돈키호테란 새로운 인물은 계속 나오었고 그 사랑을 받던 현대에 와서 는 특히 한국인 풍자는 돈키호테가 변형되어 현대에는 재미있고 신기한 주인공이 약한 권도사 반쯤되고 변형되는 것 같다.

만종 정적이 공에 특히 양산 북돋는 현대인 역시 변형된 돈키호테 ‘나’ ‘삼소’ 같은 자란 인간을 이야기로 남기려고 해피진 이상과 냉정한 현실을 망라하여 저자로서 대한 민국의 인보를 위협하고 있다.

또한 종교계는 인류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과 부처님의 신성을 하용하고 모독하는 신이비 이기 현찰으로 세상을 어 지럽히고 있다.

더불어 사회단체의 일부 지도자들은 여치구니 있는 자기와 시 당국에 필하여 단체를 만들 시키고 화합과 기쁨을 과외하여 우리들 슬프게 하고 있다.

자기와 함께 살아가는 풍조는 설을 펼치는 60여년 전 학생시절은 무척 재미있고 흥미로운 일었지만 60여년간 세상 풍조와 많은 경험과 세상 지식과 열거된 현실 속에서(사실은 모르는 것이 아직 많은데) 다다 읽는 사 책, 신문은 흥미와 새로운 각도에서 흥미를 만든다.

이런 변형된 인간에는 재미와 교훈을 주는 책이 인간학 크던 크던 이 지도자만족 시는 사회상에서는 이상과 현실을 조화시킬 필요성으로 현실 별 별책이 되어야 할 것 같다.

이런 변형된 인간에는 재미와 교훈을 주는 책이 인간학 크던 크던 이 지도자만족 시는 사회상에서는 이상과 현실을 조화시킬 필요성으로 현실 별 별책이 되어야 할 것 같다.

“아직도 아프리카 청춘이다”



허병열(사대 42)

첫째, 이름은 ‘이해하기’다. 자기 중심의 세계에서 벗어난, 타인의 생각이나 행동을 이해하려는 것이다.

둘째, 이름은 ‘더 높이기’다. 문화와 행위는 다른 사물들이 모여 사는 이 세계의 다채로운 양상을 즐기며, 서로 배우는 것이다.

여러 문화들은 모양이 다른 것이지만 결국, 우주의 차이를 없애기 위하여 사물들이 있다. 생활 주변이 급속도로 변하고 있다.

셋째, 이름은 ‘더 자라나기’다. 생활 주위에 급속도로 변하고 있다.

넷째, 이름은 ‘더 자라나기’다. 생활 주위에 급속도로 변하고 있다.

이제는 자기 스스로 눈높이를 차츰차츰 높여가는 노력을 요구한다.

“저를 그것들 배워서 무엇이 되고 싶은가?” 라고 묻지 말라. 무엇인가를 꼭 배우고 싶다는 욕망은 마음의 소리며, 그 소위 배우는 파장을 즐기는 것이 복직이다.

‘넷째, 이름은 ‘더 높이기’다. 마음의 움직임은 다자도 정자를 쓰는 일이고, 몸 움직이는 것은 몸의 움직임이다. 오조음의 제자들은 ‘기둥 생각’하는 것이 더 나은 생각을 낳는다’는 사설이다.

‘따라온 골목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오직 골목의 서거한 길만 있다.’

‘도 노동을 줄이’ 건설할 주변을 정리하면서 건설을 얻을 수 있는 일적이라고 아닌가.

다섯째, 이름은 ‘생신고 놀기’다. 마치 대기의 사자 같은 발상이다.

그러나 내 자신이 스스로 생각노를 얻을 수 있다. 글을 쓰거나 그림을 그리는 것이다. 또 다양한 원리를 사귀거나, 수예품을 만들거나, 각종 좋은 아이디어를 낼 수도 있다.

그러나 이 두 부분만 읽었다면 이 세상이 평행하다고 믿고 싶었다. 지구는 둥글다고 인정하면 안 되고, 사실은 세상이 지구처럼 둥글다고 믿고 싶었다. 그 사실은 인정하고 믿음을 그 받아들이지 못한 권도사도 나오

이런 변형된 인간에는 재미와 교훈을 주는 책이 인간학 크던 크던 이 지도자만족 시는 사회상에서는 이상과 현실을 조화시킬 필요성으로 현실 별 별책이 되어야 할 것 같다.

이제는 자기 스스로 눈높이를 차츰차츰 높여가는 노력을 요구한다.

이제는 자기 스스로 눈높이를 차츰차츰 높여가는 노력을 요구한다.

이제는 자기 스스로 눈높이를 차츰차츰 높여가는 노력을 요구한다.

이제는 자기 스스로 눈높이를 차츰차츰 높여가는 노력을 요구한다.





동문 비즈니스 탐방 <MDI 양은혁(상대 56) 회장>

### “원 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몰라야 하죠”

#### 건축관련업으로 불경기에도 연 4-5천만 달러의 매출 상대 동창회 그림자 서포터로 '기장 존경받는 선배'

전체 직원 80여 명에 연 4천~5천만 달러의 매출이던 미주 중서 지역 우리 동문 업체 가운데서도 상당한 규모의 기업이라고 할 수 있다.

바로 양은혁(배운·상대 56) 회장이다. 지금까지 일어난 높은 LA의 종합 건축관련 전문 업체 MDI(Mackone Development Inc.)이다.

양은혁 회장은 지난 1980년 10월 미국에 오는 이후 페인팅부터 시작해서 지금의 위치에 이르러가게 건축 관련 사업을 걸어온 것으로도 잘 알려져 있다.

한참 경기가 좋았던 80년대부터 2000년대 초반만 해도 매년 연 매출이 1억 달러를 간단하게 넘어섰던 정도의 고성장도 경험했다. 그러나 현재는 미국내외에 불경기로 당시의 절반에도 채달 못하게 되었고, 그래서 그 때로 끝지기의 기업인 것만큼은 분명할 일이다.

양은혁 동문은 비즈니스 성공으로만 알려진 것이 아니다. 상대 동창회에 15년 이상 그림자처럼 서포터를 해온 것은 아는 분들에게 알고 있는 사실이다. 그래서 '상대 후배들이 가장 존경하는 선배 중 한 사람'으로 인지도가 높다.

권필주장이 최근 LA의 Beverly Blvd.에 위치한 양은혁 동문의 사무실을 방문해 그동안의 역정을 들어 봤다.

“미국에 오신 연도와 등기는 무엇인지요.”

“1980년 10월 말 정도에 말하기 뭇까지 한 마디로 서울에서 하던 사업이 말려서 왔지요. 1962년 상대 졸업과 곧 북부 한국대학에 입학했다가 무역회사를 차렸는데 처음과

달리 나중에 잘 안됐어요. 그런데 ‘한국전력이라든 요즘도 ‘신’의 직장’으로 알려졌어요. “정말 좋은 곳이지요. 당시 박정희 대통령의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필사적인 정책개발이었어요. 전력이 없이는 모든 산업의 근간이 이루어질 수 없어요. 나는 외국계에서 근무했는데 부산화학발전소 건설을 미국 GM한테 줬어요. 그런데 경비가 약 3천600만 달러가 넘는 사업에 우리 손이 약 600만 달러만 부족했지요. 그래서 그런데 얼마가 우리에게 600만 달러를 Commercial Loan으로 주도록 설득도 했지요.”

— 그런데 왜 그만두셨나요. “당시 베트남 전쟁이 계속되고 있었는 데 그 지역과 무역을 하던 것만 봤을 때는 경기가 좋았어요. 그래서 한때에 인사한 지 3년이 될 때에 그만두고 나와서 1966년에 ‘Viet Han Trading’ 라는 무역회사를 차렸어요. 자동차 부품을이나 저철강은 쓰는 자재, Galvanized Iron sheet 등을 수출했지요. 처음

엔이 사업이 잘 안됐어요. 그런데 이런 물품도 차츰 팔을 통해서 거래가 되니 사업이 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3년만에 손을 떼고 말았어요.”

— 그때부터 해하셨습니까. “나중에 아시다는데 생각에는 되는데 나중 무역회사를 만들었

어요. 첫 사업이 말한 터라 100만 원 가지고 시작했는데 100만 원 팔았지요. 당시 약 5만만 원 정도를 벌였으니가 상당한 돈이었어요. 하지만 이 사업도 1974년 경 정했지요.”

— 당시 ‘오리삼’ 등이相場을 할 수 있던 것으로 아는데요. “확도 사업이 안돼던 해서 정장이든 다 찾아가 봤어요. 정장이가 ‘이름이 나빠서 그런지 개발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리고 한국을 떠나라’고 했고. 그래서 이름을 ‘펠론’으로 바꾸고 갔다. 그러면 가족이 1년만인지 1979년 미국에 왔어요. 그리고 우리가 따로 ‘기리기 가족’ 제1호라고 합니다.”

— 이름을 바꾼 후 별 문제는 없었습니까. “펠론이 나중에 이곳에서의 일기처럼 동거 친구를 중 ‘나’ 사기하려고 이름 바꿨다. ‘나’ 사기꾼이 아니라’라고까지 해서 기가 막혔죠. ‘무고까지 온 이름을 바꾸는 일은 흔하지 사기꾼들이 하는 짓이 아니라’는 것이었지요. 사실 맞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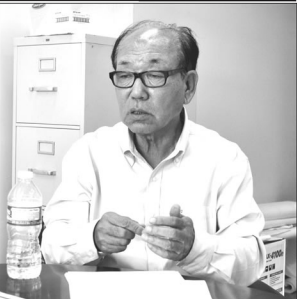
### “하도 사업이 안돼 점장에게 갔더니 이름을 바꾸라 고 해요. 그래서 바꿨는데 친구들이 ‘나 사기하려고 이름 바꿨는지? 사기꾼 아냐?’ 라고까지 해 기가 막혔죠.”

말이지요. 이름을 바꾼다는 것은 조상에 기억하는 일 중 하나인데 틀림없잖아요. 하지만 오해됐으면 이름까지 바꾸어주었어야 하는 심정만 이해해주었으면 해요.”

— 경제사정이 좋지 않은 상태에 이만하고 가족들이 고생되셨겠네요. “당시 우리 동문 이민자들과는 거의 모두가 비슷했잖아요. 아내(양은숙)가 이화여대 음대에 가서 피아노를 전공한 LA에서 처음으로 피아노 교습소도 열렸어요. 나는 이듬해인 1981년 3월 ‘Irvine Group’이라는 건축관련 무역회사에 입사했어요. Newport Beach에 있었는데 중등 풀을 타고 상당한 호황을 누리고 있었지요. 바로 한국에서 배가 관으로 하던 역사가 대물기가 정말 열심히 했어요. 그 결과 입사한지 단 1개월만에 그 회사의 Director로 승진시켜주더군요. 무역회사를 경영한 본 경력이 아무튼 젊은 이들에게 유행하는 큰 Spec이 됐다고 봅니다.”

— 계속 그곳에 계셨으면 어떻게 되셨을까요? “난 기본적으로 직장생활과는 별로 관련이 없나 봐요. 중동 지역의 경기가 급격히 나빠지면서 수출이 점차적으로 크게 줄어들게 됐어요. 그렇게 잘

안왔던 동문의 가족 모습. 왼쪽 위에서 시계방향으로 아들 Scott, 장녀 Kristen, 아내 양은숙 여사.



나갔던 ‘Irvine Group’이 어느 날 아침에 갑자기 문을 닫게 되더군요. 그래서 ‘이유를 따지는 것도 의미가 없나 봐요. 하는 수 없이 1984년 3월 New Jersey 가서 1984는 무역회사에 다시 취임했지요.” — 그곳에 계시니까 결국은 LA로 오셨는데요. “남의 입재에 취해서 일한

리 역시 그만한 부를 축적해야겠다는 생각에서 1984년 처음 내 사업체를 설립한 때부터 따는 것이지요.”

— 가족관계는 어떻게 되나요. “아내와 아들 둘이 각각 별명씩입니다. 아내는 물론 친정 누나이고 아들 Scott Yang는 UC Irvine에서 경제학을 전공한 후 현재 내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지요. 딸 Kristen은 NYU Stern을 나와 CPA로 일하고 있지요.”

— 역시에 비해 굉장히 정정해 보이는 데 비결이리요. “그렇게 보인다고 해도 나이는 못 속이지요. 나이 70도 나이를 된 듯이요(?) 잘 안들어요. LA에 56년째 살기 때문에 많이 늙어 갔나 봐요. 건강을 위해 일주일에 한번은 야구 필드를 찾습니다. 야구 축이 나와 같이 치는 데 건강에 상당히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침 저녁으로 걸음만 20분씩 아내와 같이 꼭 걸어요.”

— 후배나 후손들에게 공손적인 말씀을 전해 주시지요. “원 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라’는 가르침의 말씀을 가장 좋아합니다. 이 말씀은 비록 교인 뿐만 아니라 일반인에게도 크나큰 영감이 되고요 합니다. (편집자 - 앞에서 ‘상대 후배들이 가장 존경하는 선배 중 한 사람’으로 인지도가 있는 사실을 몇몇칭하고 있는 셈이다). 또한 저서들에도 늘 ‘남에게 질대 패는 것이 바람직’이 가르침입니다. 나한테 좋고 이이 될 것이라고 해서 남에게 패가 되는 일을 하지는 말라’는 자신에게 그 배가 돌아온다고 믿고 싶어요. 또 하나 ‘돈을 써서 잠들지 않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잠꾸러리는 것은 주위로부터 존경을 받으면 저절로 오는 것인데 무리하게 돈을 써서 쓴다는 것은 그것을 더 추구하는 것보다 결국은 주위로부터 경멸을 받게 되는 것이지요. <편집자>

— 양은혁 동문은

▶1962년 7월 대진 출생 ▶1962년 로고 상대 졸업 ▶1980년 10월 도미 ▶1984년 라질전문 MDI 설립 ▶2011-2012년 미주 상대 동창회 이사장.\*\*\*



양은혁 동문의 가족 모습. 왼쪽 위에서 시계방향으로 아들 Scott, 장녀 Kristen, 아내 양은숙 여사.







동창회비·관악후원금·광고및 업소록비·기타 후원금(·2012년 7월 1~ 9월 26일까지)

2012.7월 동창회비

- Arizona 사친원(광대 71) 신대원(광대 71) ...

- 사친원(법대) 최승훈(상대 3) ...

- Georgia 김Smel( ) 이봉석(의대 63) ...

- Philadelphia 신원철(문리 64) 이찬순(의대 60) ...

광고

- 미국 3500 라디오키 300 ...

Colorado

- 박대원(농과82)120 ...

Oregon

- 박대원(농과78)120 ...

Washington DC

- 김태현(사대82)200 ...

Virginia

- 김정호(의대80)200 ...

기부후원금

- 남기주 사친원 회장 3000 ...

특별한소금

- 김영호 1000 ...

명예인사원기

- 김우성(의대100) ...

관악후원금

- Arizona 안영준(문리61)120 ...

Connecticut

- 김기훈(상대82)200 ...

Illinois

- 김기훈(상대82)200 ...

Minnesota

- 김기훈(상대82)200 ...

·동문에서 보내주시는 각종 후원금은 Tax감면 대상이 됩니다.

Federal ID No. 13-3859506 ... 동창회비를 비롯한 후원금은 동창회 운영과 동창회보 발간에 쓰입니다.

서울대학교 미주 동창회 후원금 (회계연도 2012년 7월 - 2013년 6월)

Form with fields for name, address, phone, and donation details. Includes a table for membership and a section for special funds.

·광고 디자인은 매월 초에 보내주십시오. snuausa@yahoo.com



# 미주 동문 업소록

광고 문의는 전화  
(818) 225-8411로



CA 남가주

## 연속/견설립

**Mackone Development Inc.**  
양대현(상대 56) (213) 252-9506  
2244 Beverly Blvd., Los Angeles CA, 90057

**HNK Teck, INC(하나건축 사무소)**  
한효철(상대 58) (213)422-9299  
7516 1/2. Foothill Bl LA. CA. 91042

**ACCU Construction, Inc.**  
염동태(늘대 74) (714) 641-4730  
1526 Brookhollow Dr.Santa Ana CA 92705

## 공인회계사

**강동순 회계사**  
강동순 (늘대 59) (310) 538-9315  
9401 S. Vermont Ave. #C-201  
Torrance, CA 90502

**김재영 공인회계사**  
\* 김재영 (늘대 62) (213) 395-1985  
2950 Wilshire Blvd.#300,  
Los Angeles, CA 90010  
Gardena CA 90248

**Kim & Kang CPA's**  
(김경우 김재영 공인회계사)  
김정우 (공대 63) (213) 816-1390  
3435 Wilshire Blvd., #1150 Los Angeles, CA 90010

**신대석 공인회계사**  
\* 신대석(상대 60) (310) 329-6557  
555 W. Redondo Beach St., #250,  
Gardena CA 90248

**강호석 회계사무소**  
강호석(상대 81) (714) 530-3630  
12912 Brookhurst St., #370  
Garden Grove CA 92840 (213) 380-5060  
3600 Wilshire Blvd. #1004 LA, CA 90010

**이강현 공인회계사**  
이강현 (인문대 76) (213)387-1234  
3530 Wilshire Blvd #1414 LA, CA 90010

**장준 공인회계사**  
장준(인문대 85) Tel:(818) 772-2811  
9020 Reseda Blvd., #104  
Northridge CA 91324

**Jung Mo Park & Co**  
박경모(문리대 66) 213-383-1390  
3255 Wilshire Bl. #1700 LA.CA.90010

**CHA, STANLEY, CPA**  
차기민(공대 85) (213) 739-5700  
3440 Wilshire Blvd. #807  
Los Angeles CA 90010

**AMMO Consulting Co.**  
강신용 공인회계사  
강신용(시대 73) 213-389-3801  
3850 Wilshire Blvd. #201 LA. CA. 90010

## 리태일러

**한남채민 (리태일러/상패)**  
하기원(공대 86) (213) 381-3510  
2740 W. Olympic Blvd. Los Angeles, CA 90006

## 리태일러/보석업

**세계보석**  
김광철 (늘대 59) (213) 627-0547  
650 S. Hill St. #EB  
Los Angeles, CA 90014

## 무역/수출업

**Green Zone International, Inc.** 농산물  
김한영(치대 85) (714) 729-2500  
2900 Keller Dr. #11 Tustin, CA 92782  
greenzone@yahoo.com

**Pacific Group USA(태평양상사)**  
하상현 (공대학원 90) 310-609-3300  
18805 S. Laurel Park Rd. Rancho  
Dominguez, CA 90220

## 변호사/법률사무소

**신혜원 변호사**  
신혜원 (시대 81) (213) 385-3773  
3435 Wilshire Blvd. #2230  
Los Angeles, CA 90010

**이경희 이민법 변호사**  
이경희(인문대 83) (213) 385-4646  
3435 Wilshire Blvd. Suite 1110 LA. CA 90010

## 기초/오달/업업

**LinkTV Media.**  
김영택(공대 65) 818-768-5494  
P.O.Box 1368 San Val ley, CA 91322

## 우주개발/기타 개발

**JAY H. CHUNG, Ph.D.**  
President & CEO  
**TAPCO** Technologies, Inc.  
Government & Military Aerospace Systems Manufacturer  
정재훈(공대 64)  
10974 Yong Street, Suite #100-050  
Chattanooga TN 37420, Fax: 714-968-0240  
Email: jay@tapco.com

**International Society of Offshore & Polar Engineers** 정진수(공대 56)  
(650)254-1871, 495 N Whittman  
Rd. Ste.300 Mt.View CA 94043

## 비영리법인

**한미 교육 연구원**  
자 훈철  
한미교육연구원  
10111 Wilshire Blvd. Suite 1000  
Los Angeles, CA 90024  
Tel: (213) 385-1111  
Fax: (213) 385-1111  
www.hanmi.com

## 교육/영어

**Hiza Yoo Korean Dance Institute**  
유희지 국악 무용 연구소  
818-466-8022  
18531 Gresham St. #204 Northridge CA 91324

## 서비스/가동재

**A.P.W. 자동차 부품**  
\* 서동원(시대 60) (310) 753-9836  
1073 E. Atensia Blvd. Carson, CA 90748

**Vermont Automobile**  
권기성(경명대학원 72) (323) 757-1316  
850 W. Century Blvd. Los Angeles CA 90044

**Auto Plaza Group Inc.**  
이영진(공대 76) 678-473-4731  
4132 Buford Hwy Doraville GA 30006

## 수의사 / 동물병원

**Francis Animal Hospital**  
최재현(수의대 66) 909-827-0561  
5284 Francis Ave, Chiro Hills, CA. 91710

**Richmond Veterinary Hospital**  
한상봉(수의대 67) 510-232-3465  
4704 MacDonald Ave. Richmond CA 94805

**Roswin Pet Hospital**  
김연수(수의대 63) (818) 718-2112  
20021 Roscoe Blvd Canoga Park CA 91306

**Family Veterinary Hospital**  
전호선(수의대 67) (559) 226-6777  
2745 W. Shaw #116 Fresno CA 93711

## 연속 견설립

**Lee & Ro, Inc.**  
노명호(공대 81) (602) 912-3391  
1199 S Fullerton Rd City of Industry CA 91748

## 운동/유통/통관/인재개발

**SeAH Steel America, Inc.**  
유희/강근도배  
이병준(상대 55) (562)992-06009  
9515 S. Norwalk Blvd., #50,  
Santa Fe Springs CA 90670

## 은행

**Hanin Federal Credit Union**  
이영일(문리 63) 213-368-9000  
3700 Wilshire Blvd.#1700 LA. CA. 90010

## 의료/약국

**Gilbert Pharmacy I**  
\* 최무식 (약대 66) (714) 638-8230  
9240 Garden Grove Blvd. #200  
Garden Grove, CA 92844

## 의료/기타

**California Family Dental Center**  
\* 이영준(치대 65) (323) 295-1500  
4086 E. Whittier Blvd. Los Angeles CA 90023

**ISeonho Ha Prosthodontics**  
하선호(치대 81) (213) 365-1008  
3240 Wilshire Blvd. # 510 LA. CA 90010

## 의료/내과/전문역

관영재 소아과  
\* 관영재(의대 57) (562) 435-4777  
1040 Elm Ave. #200 Long Beach CA 90813

김일영 심장내과  
\* 김일영(의대 65) (323) 662-1175  
3919 Beverly Blvd. #100 LA CA 90004

정수만 알내과 • 혈액내과  
정수만(의대 66) (714) 539-6414  
1555 Garden Grove Blvd. #309 Garden Grove  
CA 92643

South Bay Cancer Center  
나정자(간호 70)  
310-970-8710 310-945-5227  
14038 Hawthorne Bl. LA. CA 90260

## 클리닉

San Bernardo Foot Clinic INC.  
이상대(농대 80) 909-492-3800(0)  
이상대(간호 70) 714-323-8612(C)  
2095 N. Waterman Ave. San  
Bernardino CA 92404

## 케이팝

LA Supply  
전순택(사대 60) (562)-404-1502  
13700 Rosecrans Ave. Santa Fe Springs  
CA 90670

LA Supply  
KJ Chinese Clinic  
3225  
4343 Indebusiness Ave. (상대 60) Phone: 714-660-1544  
11111 Alton Ave., Brea, CA 92603 Fax: 714-660-1188  
Houston, Texas 77074 Tel Fax: 977-986-9811  
www.kjchineseclinic.com #1000000000000000

## 교회

리 캐나다 한인교회  
득고 열(공대 85) 818-790-7320  
1700 Foothill Blvd LA Canada, CA 91011

## 컴퓨터/컨설팅

Computer Pro  
윤재우(공대 83) (310) 626-6391  
22521 Crenshaw Blvd. Torrance, CA 90505

## 식음/음식점

강남희관  
Kang Nam Restaurant 323-937-1070  
4103 W. Olympic Blvd. LA. CA 90006

마포 주물럭 Mipo Korean BBQ  
Restaurant (310)679-3022  
14009 S. Crenshaw Blvd. #12 Gardena  
CA. 90249

용수산 Yong Su San  
Traditional Korean Cuisine  
213-368-3042  
950 S. Vermont Ave. LA. CA 90006

자연나라 Jayone Foods, Inc.  
이승훈(상대 74) (562)633-7400  
7212 Alondra Blvd.,  
Paramount CA 90723



## 복가주

## 양담/컨설팅

## 두리하나 결혼정보

한진 상담에 한이 다수 회원 확보, 높은 상환  
율과 많은 초혼 재혼자 데이트용, 서울대 동문  
과 동문지나 특별임대 정지선(상대 66)  
(510)224-0760 2910 Telegraph Ave.Ste.200  
Oakland CA 94609 www.2stake1.com

## 수익사/동물병원

Richmond Veterinary Hospital  
한상봉(수의대 67) (310) 232-3465  
4704 MacDonald Ave. Richmond CA 94805

## 의료/전문역/과제/안의원

박희래 한의원  
임희래(간호대 73) (831) 818-2959  
627 Water St. Santa Cruz CA 95060

## MD,VA 워싱턴DC

Fairney Asset Corporation  
남복현(경영대 84)301-279-6668  
414 Hungerford Dr.#203 Rockville MD 20850

## 공인회계사

Lee Kyu Sup, CPA  
이규섭(상대 68) (703) 642-2900  
4330 Emvrgren Ln. Suite H Annandale, VA 22038

## 개인관리

IPM Woth Management  
이태영(법대 60) (410) 777-8061 ext158  
1430 Joh Ave. Suite M Baltimore MD 21227

Fairney AssetCorporation  
남복현(상대 84) 301-279-6669  
414 Hungerford Dr.#203 Rockville MD. 20850

## 변호사/법률사무소

Moon-Park & Associates  
박승근(법대 75) (703) 941-7395  
7617 Little River Trpk #930  
Annandale VA 22003

## 부동산/공개업

BPS Appraisal Company  
박필영(농대 69) (703) 750-1707  
7518 Evans Ford Rd. Clifton VA 20124

## 병원/지과

이종영 지과(치대 74)  
(301) 220-2828 (301)926-9692  
8201 Greenbelt Rd.Suite-10, College Park MD 20740  
8611shady Grove Ct.Galltburgh MD20887

## GA 조지아

## 리타일링/가정사

Auto Plaza Group, Inc.  
이영진(공대 78) 678-473-4731  
4132 Bedford Hwy Duluth, GA 30096

FOB Synthesis Inc.  
최우백(공대 76) (404) 601-1412  
3400 Cobb International Blvd Kennesaw GA 30152

## IL-IN 시카고

## 의료/내과/전문역/지과

Suh Sang Hun, MDPC  
서상헌(의대 65) (773) 522-2010  
1401 S. California Chicago IL 60608

\* 이준우 지과  
이준우(치대 54) (847) 390-7474  
9101 Greenwood Ave, Niles, IL 60714

## MA 뉴잉글랜드

## 병원/수익사/동물병원

Twin City Animal Hospital  
윤상래(수의 62) (978) 343-3049  
899 South St. Fitchburg MA 01420

## “동문 업소목을 재정비 합니다!”

동창회보를 통해, 또한 개별적으로 알려드린 바와 같이  
동문 업소목을 정비합니다.

이 동문 업소목은 동문들의 여러 사업 내용을 미주 각  
동문들에게 널리 홍보하고 이용을 권장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업소목에 게재되는 동문들 중 일부가 보내오는 광고  
비는 동창회 운영에 상당한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문들 중 일부는 그동안 업소목 게재에도 불구  
하고 광고비를 내지 않아 앞으로는 광고비를 내는 동문  
들에 대한 업소목 중심으로 앞으로 좀 더 보기 좋게 구성  
하여 게재해드릴 계획이니 양지해주시기 바랍니다.

## 회고(會告)

## “Home coming Day 행사”에 많은 동참을 바랍니다!”

미주 동창회 동문들을 안녕하십니까?  
모교인 서울대 개교 기념일 행사에 서울대 동창회 주최 “Home Coming Day” 행사를 다음과 같이 개최합니다.

미주에 거주하시는 많은 동문님들께서 여기에 모교를 방문하시면서, 모교의 개교 기념일 행사 동문대행도 참여하시고 3월 4일산 모교 5대 단풍 명산(속리산-계룡산-내장산-선운산-지리산)의 아름다운 여행으로 더 많은 추억에 남도록 함께 떠나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행사를 서울대 계획하되 힘을 양해 바라바라는 취지로 부탁드립니다.

## &lt;개교 기념일 들머리&gt;

- ▶일시: 10월 21일(일요일) 오전 9시 모교 전관 캠퍼스 및당산
- ▶집합장소: 판악 캠퍼스 대 운동장
- ▶대행장소: 모교 느린강장 앞 버려들
- ▶참가대상: 동문 및 동반 가족
- ▶참가비: 없음
- ▶제공물품: 정심음 도시락·식용료 등
- ▶경비: 정심원 선철 후원(일정수 회장 송용차 제공)
- ▶문의 전화: 참가자는 반드시 사전 연락 바람(미주 동창회 박옥자 총무국장 전화 818-225-8411)

## &lt;5대 단풍명산 여행&gt;

- 속리산-계룡산-내장산-선운산-지리산 등 5대 단풍 명산 3월 4일, <오른쪽 일정참조>
- ▶출발일차= 10월 26(금)일, 27일(토), 28(일)일, 29일(월)

▶참가비: 아시아나 항공 왕복(Open) 및 호텔, 식사, 부산에서 서울행 비행기 리프트 포함  
1,650달러(60만 이상)

1,750달러(60세 미만)  
▶미감일= 9월 30일 전 요양  
▶준비물= 여권 Copy  
▶연락처= 미주총회 센터 김(213-388-

4000) 미주 동창회 총무국장 박옥자 (818-226-8411)  
**서울대 미주 동창회장 김은중**

## 모교 5대 단풍명산(속리산-계룡산-내장산-선운산-지리산) 관광일정

▶제1일(금) 속리산-계룡산-광주 여행= 출복 보은 속리산 국립공원으로 이동, 법주사 가을단풍 산책, 천원기념물 경이풍물(소나무), 청동비파대롱, 팔상전 등 감상, 중식(비지전골)후 충남 공주 계룡산 국립공원으로 이동, 계룡산 감사 가을 단풍 산책, ‘술마라 유감사’탐방은 마라 계곡, 가을은 감사 계곡’로 유명한 단풍 숲을 관광한 뒤 광주로 이동, 석식(담양 대룡담) 후 호텔(광주 힐리데인) 투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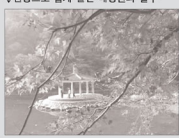
▶제2일(토)= 내장산-선운산-고창-고인돌 관광= 호텔 조식(호텔식)후 정읍 내장

↓ 많은 인파가 몰려든 속리산 법주사



산 국립공원으로 이동, 화비와 용강, 예기 단풍으로 유명한 내장산 가을 단풍 감상 (매로소를 지나 일주문, 천황봉까지 이어질 불꽃 단풍 터널뿐만 아니라 주변으로 여러 단풍나무와 소나무 어우러져 어마는 가을 단풍 명산의 진면목을 볼 수 있다), 중식(돌술비빔밥)후 북문사와 풍정정자으로 유명한 고창으로 이동, 선운산 도립공원 가을단풍 산책(도솔원을 따라 선운사까지 이어지는 단풍길에이 유정), 세계문과 유산인 고창 고인돌 야외유적지 관광(고창을 죽림리 일대를 고인돌 447기

↓ 단풍으로 골든 계곡 내장산의 일부



관포, 광주로 이동, 석식(소고기 전골)후 호텔 투숙(광주 황리데인 인 또는 광주 프라도 호텔).

▶제3일(일)= 지리산-화계장터-창원 여행= 호텔 조식(호텔식)후 지리산 산수유 마을 견학, 지리산 국립공원으로 이동, 화엄사 가는 길 단풍 산책, 신라시대의 천원고찰 화엄사 관광, 중식(산계 정자)후 영호남의 절경지대 화계장터(계천시장) 관광, 광주 강유해 창원으로 이동, 석식(회비빔밥 또는 갈비탕)호텔(포항호텔 또는 동급호텔) 투숙.

▶제4일(월)= 창원-김해 여행 후 해산= 호텔 조식후 김해공항 및 부산으로 이동후 자유 해산.\*\*\*

↓ 지리산 화계장터의 개막 민속놀이



## NJ-NY 뉴욕/뉴저지

## 건강

!!임, 에이즈!! 한사(사대 73명생래강 718-702-0812 세계최초 Plant stem cell(포플) 분리 배양 성공. 2010년 11월 Nature지 논문 발표.

## 공인연계사

Sung N. Pak, CPA  
박성남 (사대 76) 212-760-2338  
481 8th Ave. #1549 New York, NY 10011

## Wesley Y. Chung CPA

정윤희(상대 55)  
6385 Whitestone Place  
Duluth GA 30097

## Kenneth K. Lee CPA

이경범(상대 64) (212) 766-9144  
1430 Broadway Suite 906  
New York NY 10018

## Changsoo Kim, CPA P.C.

김창수(학대 64) (212) 760-1768  
38 W 32St Suite #500 New York NY 10011

## Young Tai Choi E.A.

최영태(문대 67) (212) 695-0205  
13 E 30th St. 2F New York NY 10016

## 리태일러

New York Golf Center  
이현구(농대 80) (212) 564-2255  
131 W. 35th St. New York NY 10011

## 변호사

## 언병문 변호사

• 언병문(문대 61) (212) 779-1828  
1261 Broadway #201 New York NY 10011

## 조대영 변호사

• 조대영(공대 61) (212) 779-7770  
445 5th Ave., Suite 9E New York NY 10016

## 부동산/중개업

## Century 21 Infinity Realty

• 이재현(법대 61) (201)944-5353  
242 Broad Ave.Palissades Park NJ 07650

## 코스모 부동산

이재현(법대 60) 201-944-4949(C)  
201-784-3367(C)  
258 Broad Ave.Palissades Park NJ 07650

## 사외/법인

## Women In Need Center

부지개혁의 여성 임시신탁  
김근영(음대 2)  
P.O.Box 540329 Flushing NY 11354

## 운송/유통/물류

American Int'l Line, Inc.  
윤병하 (농대 80) (718) 995-7060  
147-38 182nd St.Jamaica, NY 11413

## 의료/내과/전문의

이재진 심장내과  
이재진(외대 59) 718-426-6464  
37-24 75th St. Jackson Heights, NY 11372

Young S. Hahn, M.D.  
한영수 안과(외대 61) (718) 478-3344  
40-23 74th St. Elmhurst NY 11373

방준재 내과  
방준재(외대 63) (718) 766-1264  
200 Prospect Park West Brooklyn NY 11215

## NV 네바다

## 의료/기과/법원

Best Care Dental  
김영준(치대 65) 702-384-2828 702-480-7115  
5205S.Durango Dr.#103 Las Vegas NV 89113  
www.bestcredental1.com

## OR 오레곤

Fionnix Inc.  
박희진(농대 76) 612-419-5393  
P.O.7416 Beaver ton OR 97007

• 열림 한인교회  
최근영(법대 63) 503-231-1825  
6151 SE Stark St. Portland OR 97215

## PA 필라델피아

## 등용병원

GREGORY E. JOO, D.M.M.  
MICHELLE CHARLTON, M.D.  
JOHN CARROLL, M.M.D.

주거소(수대 68)  
이소미

이즈미 일식당  
최종문(공대 61) (215) 412-4228  
1222 Welsh Rd. North Wales PA 19454

Timothy Heabs & Assoc.  
손재욱(생물과대 77) 484-342-0200  
520 Township Line Rd. Ste. 20 Blue Bell PA 19022

‘편집후기’

○... ‘열부분’이라는 용어 = 동문들이 보내오는 글 중 원로 동문이나 자제 사회적으로 상당한 위치에 있는 인사의 의견에 대한 높이말로 ‘000동문 열부분’이라는 존칭을 붙여오는 경우를 종종 본다. 하지만 이것은 바른 표현이 아니다. ‘열부분’이라는 말은 대표령의 부인제에만 사용되는 존칭이기 때문이다. 전례도 한번 이 난을 통해 밝힌 바 있는데 원로 인사들이 돌아가셨을 때 높임말로 ‘선지’라고 쓰는 경우가 아직도 있는데 역시 대표령이나 국가원수에게만 쓰는 말로 그 외는 ‘자’고 또는 ‘별세’로 쓴다.  
○...가짜 동문 소동 = 필자가 시카고에서 동창회보 편집할 때부터 이곳 LA에서까지

“조사부라는 사람이 서울대 출신 작가라고 하는 데 동문명부에도 없는 사람이다. 아무래도 가짜 서울대 출신인 것 같으니 확인중 해당’은 진위를 밝히지 않았는데 얼마 전 본문을 만나 이 의문이 해소됐다. 읽고 보니 “조사부”는 필명일 수도 있을 “조후원” 이며 문리대 철학과 2학년이다. 이처럼 본명 외에 다른 이름을 사용 중인 동문 가운데 ‘가짜 서울대 출신’이 50 오인발본 동문분류에 제 잇는 것 같다. 이 번 9월호 ‘동문 비즈니스 탐방’에 소개된 임근호(상대 50) 동문도 이미 소개된 ‘양’이라든가 “오” 이름은 바꾸어 이미 비슷한 경우를 겪어왔을 듯 보인다. 부득이 이름을 바꾼 경우 명함이나 문서 등에 원래 이름도 같이 기재해두는 것이 불필요한 오해를 줄이는 일일 것 같다.  
○...첨단지적 = 얼마 전 김순자(지대

57) 동문에서는 직접 사무실까지 찾아오셔서 동창회비를 내주셨다. 김 동문께서는 “전에는 동창회비를 보지도 않았는데 몇 년 전부터는 너무 위용거리가 많고 제이유에 따라 너무 민감하게 일던 중 대체 어느 날이 인당고 있다 만나볼 것이라 해서 일부러 찾아왔고”고 하셨다. 이 말은 사실 너무 나도 과분한 칭찬이라 볼된다. 그렇지만 이럴 때 편견지국하는 것이 천명지국하는 느낌으로 동창회보 편집에 더욱 의욕을 생길 뿐 아니라 용기백배되는 것이 더욱이 당연하다. 반면 또 지역 또 동문은 그동안 동창회보를 가져와리던지 취급하는 했다. 심지어 ‘Spam Message’라고까지 비난하면서 이를 다른 동문들에게 몇 차례나 Mail로 보낸 바도 있다. 정말 지극같은 일이었다. 동창회보를 아무리 분석해봐도 ‘Spam’이라는 말까지 들어야 할 정도

는 아니지 않나 싶는데...  
○...웹고는 @메일 = 동문들로부터 들어오는 글이 많이 갈수록 많고 있다는 이야기는 전에 한 바 있다. 하지만 그 중 상당수는 최근 웹으로 작성한 글을 보내오고 있어 나눔 통해 꼭지도 되지만 이메일로 보내올 것을 부탁한 적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필사본을 보내고 있다. 이 부분은 “사용중인 컴퓨터에 의해 한글이 깨질 것이지 않아서”가 거의 대다수로 “한글 편집자 사용해서”라는 말만도 하신다. 컴퓨터에 한글을 프로그래밍 하는 볼과 몇 달 전까지는 작업이 필요없는 인터넷을 통해 보던말도 있다. 장문의 필사본이나 간혹 문간하기 어려운 글씨체의 글은 편집의 시간관계상 게재 우선순위에 서 부득이 뒤로 밀릴 수밖에 없는 것임으로 이 점 감안해주시기를. \*\*\* <편집후기>

각 지부 회장단

남가주	회장	서치원(공대 89)	310-719-5422	charliesuh49@gmail.com	
	자기회장	김상찬(문리 66)	714-396-0493		
북가주	회장	이장우(문리 72)	406-891-0200	president@snuua-nc.org	
	자기회장				
뉴욕	회장	김창수(약대 84)	212-760-1768	changsookimcap@hotmail.com	
	자기회장				
뉴잉글랜드	회장	정선주(간호 88)	781-674-2498	youngpark6@yahoo.com	
	자기회장	장수진(의대 76)	978-264-2988	sooinhee@comcast.com	
달라스	회장	이준(공대 73)	469-235-6196	junelee41@yahoo.com	
	자기회장	윤수경(의대 77)	972-248-8811		
특키 마운틴스	회장	표한승(치대 58)	303-822-9370	303-755-1168	drpyo@aol.com
	자기회장				
미네소타	회장	정은옥(간호대 75)	763-773-7227	sallykim75@yahoo.com	
	자기회장				
샌디에고	회장	서정용(공대 81)	858-740-4843	cysuh727@gmail.com	
	자기회장				
시카고	회장	김영호(의대 71)	708-922-0748	hmcidusa@gmail.com	
	자기회장				
애틀리나	회장	오원환(문리대)	yhoh@rathoon.com		
	자기회장				
알래스카	회장	류재중(농대 55)	907-223-0887	jaeyoon@hotmail.com	
	자기회장	백석현(농대 58)	907-561-0818		
오레곤	회장	이석진(공대 89)	503-317-5625	seokjin@gmail.com	
	자기회장				
오하이오	회장	송원길(의대 58)	614-378-2918	wnsong3140@aol.com	
	자기회장				
워싱턴DC	회장	함은선(음대 77)	703-969-3006	samlaur12010@gmail.com	
	자기회장				
워싱턴주	회장	유석진(문리 64)	425-670-9067	sckck@rocket.com	
	자기회장				
유타	회장	배유현(공대 73)	801-474-1945	you.baee@yah.edu	
	자기회장				
조지아	회장	박민(음대 80)	770-449-0000	minpakhg@yahoo.com	
	자기회장	김정호(공대 74)	770-814-0618	jhkim@nhoabank.com	
중부 텍사스	회장	최정(상대 58)	512-581-7739	267-982-1077	yjelee1023@yahoo.com
	자기회장				
필라델피아	회장	추기목(수외 88)	215-990-8717	khjoo47@yahoo.com	
	자기부회장	김정현(공대 68)	484-744-6785	hdh064@gmail.com	
플로리다	회장	박창익(농대 64)	954-599-3452	changipark@daum.net	
	자기회장				
캐롤라이나	회장	김기현(문리 51)	919-530-6451	khk@nccu.edu	
	자기회장				
하와이	회장	김윤수(수외 75)	808-394-2369	ykim@nami.edu	
	자기회장				
하틀랜드	회장	구명순(간호대 66)	913-268-0228	chungm@yaho.com	
	부회장	이상강(의대 70)	918-687-1115	918-360-9178	wanjurhade@gmail.com
휴스턴	회장	탁순덕(시대 58)	713-984-2066	taksound@yaho.com	
	자기회장	이호성(공대 72)	281-877-6584	hlee@eagle.org	
캐나다 밴쿠버	회장	이광호(농대 62)	604-250-0181	604-521-3009	khlee614@naver.com
	부회장	조석기(상대 71)	604-688-4039	서명희(미대 71)	778-322-7732
캐나다 앨버타	회장	조용희(자연 82)	403-820-8261	dahousedu@hotmail.com	
	부회장				

미주동창회 조직과 임원단

서울대 미주 동창회 제11대 회장단 및 임원

역대 회장

박윤수(문) · 김수정(의) · 이병준(상) · 오민석(법) · 이흥락(공) · 오홍조(사) · 이정택(공) · 이진구(농)

영예회장 : 송순영(문)

제11대 회장 : 김은중(상)

자기 회장 : 오인환(문)

공약위원회 부회장 : 노영호(공)

집행부 임원

사무총장 : 심주경(상)  
총무국장 : 박복자(통)  
재무국장 : 장석현(농)  
사업국장 : 이경희(통)  
섭외국장 : 이상영(농)  
감 사 : 김영(농) · 박원길(농)  
IT기술운영팀장 : 이홍도(공대)  
IT개발위원장 : 김영연(공대)

회보 임원

발 행 인 : 김은중(상)  
상임고문 : 박석현(농) · 김건진(문)  
편집위원장 : 지민수(상)  
편집주간 : 이기훈(문)  
편집위원 : 조홍준(의) · 박양준(문) · 이재원(농) · 나철삼(문) · 이홍도(공) · 김지영(사) · 김성수(문) · 이형영(문) · 김홍현(인문)

논설위원

김일환(CH) · 김기태(LA) · 조동준(LA) · 최홍환(LA) · 박순(WA, DC) · 최길원(CH) · 이형광(LA) · 정홍택(PA) · 윤상래(LA) · 김정수(NY) · 임승택(SF) · 정석진(CH) · 이석구(NY) · 정요지(LA)

기획위원회

위원장 : 서문인(공 · PA)  
위 원 = 한재윤(의) · LI · 이민연(법) · TX · 윤상재(공) · NE) · 김지영(사 · LA) · 송영남(농 · NY) · 함은선(문 · WA)

· 사진 · 취재 · 기사작성 · 편집 디자인 = 이기훈 편집주간  
snuuatimes1@gmail.com  
· 인쇄 = Ona Times Printing, INC.  
445 Hedra St., San Gabriel, CA. 91776  
Tel 626-308-2037

## A Tasty Gift From The Sea

Seaweed Snacks are versatile and can be used for a variety of dishes!

대표 이승훈(상대 74)

www.joyline.com | 888-883-7460 | 888-883-7474

facebook.com/joylinefoods | twitter.com/joylinefoods | youtube.com/user/joylinefoodnet

## “서울대 미주 동창회의 발전을 축원합니다!”

### 용수산(Yong Su San)

Traditional Korean Cuisine  
213-388-3042

950 S. Vermont Ave. LA. CA90006

www.dso.co.kr “서울대 동문에게는 10%특별할인 혜택을 드립니다” 대표이사 김혜정(문리대 82) Since 1995

## 결혼해 듀오

믿을 수 있는 한국 대표 결혼정보회사 듀오

본국에서도 미국에서도 '결혼' 하면 누구나 듀오를 떠올립니다. 듀오에는 행복의 커피를 만드는 노하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많은 사람들이 선택하는 대한민국 대표 결혼정보회사 듀오. 믿을 수 있는 듀오에서 당신의 인연을 만드세요.

### 듀오

대표이사 김혜정(문리대)

- **AMZ가 도입한 프랜차이즈 시스템**: 규약과 질, 서비스와 고객 인정하는 No.1 브랜드입니다.
- **매장 커리어/리더**: 전문적이고 믿을 수 있는 커리어/리더 소양을 갖춘 인력이 많습니다.
- **듀오의 핵심 프로그래밍**: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대형 프로그래밍으로 이상을 실현합니다.
- **한국 최대/최대**: 본국 최대/최대 인원을 운영 중인, 2만 명에서 넘는 직원 중 가장 많은 상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한국 대표 결혼정보회사 듀오 | 미주지사 213-383-0077 / 3055 Wilshire Blvd. #505 LA, CA, 90010 | 뉴욕지사 212-947-2525 • 서울대 동문에게는 10%특별할인 혜택을 드립니다. 문의 800-275-2525

SR WINDOW LLC  
13111 WILSHIRE BLVD. #505 LA, CA 90010

본사 직영 (BPI Building Construction) 계약자의 회사선 가능  
House Improvement Rebate & Incentives from Edison Co./DWP/County  
에디슨과 카운티의 에너지 절감 프로그램에 의해 최대 12,000\* 대용

## 최고급 이중창문 1999.00

### SUMMER SALE 10 WINDOWS

DUAL GLASS VINYL FRAME STANDARD SIZE / TOP QUALITY

## '윈도우'를 바꾸면 '마음의 창'도 열립니다

Window tells your personality

SR WINDOW LLC  
13111 WILSHIRE BLVD. #505 LA, CA 90010

유원 (대학원 74)

PROPERTY OF MATERIAL	UNIT	SR WINDOW		SR WINDOW	ALUM BASES
		THICKNESS	WEIGHT		
INTENSITY	Wgt/cm <sup>2</sup>	440	477	375	
IMPACT	Wgt/cm <sup>2</sup> /cm	94	100	13	
HARDNESS	Wt	95	100	65	
COLOUR	Wt	7.7	70		
WEATHER	Wt	6	4		
ADHESIVE	Wt	6.8	6.8		
WATER PENETRATION	°C	89	9	63	

IMPOSSIBLE PRICE

# MDI

GENERAL CONTRACTOR

HEALTHCARE (OSHPD) • PUBLIC FACILITIES  
EDUCATION (DSA) • PARKS & RECREATION  
PRIVATE FACILITIES • HOUSING COMPLEX

## Mackone Development Incorporated



Home

Services

Projects

Current Bids

Plans Online

Forms Online

Contacts

Employee E-mail

Prolog Access

### A New Addition to MDI's project

MDI recently acquired a new project with the City of Fullerton. The new project is for the complete rebuilding of the existing community park and recreation center in Lemon Park - Maple Center located at 701 S. Lemon St., Fullerton, CA.

Once completed, the new park will feature two new play equipment for two different age groups, a new full basketball court and a half court, expanded parking lot area to accommodate sufficient handicap slots and a fully renovated recreation center complete with activity rooms and ADA compliant restrooms. This project is expected to be completed in June 2012.



A groundbreaking ceremony was held on December 6, 2011, attended by the Honorable Mayor Pro Tem, Pat McKinley along with several City Council dignitaries. Also in photo is Dennis Hatch from Griffin Industries, the official City representative for this project. MDI was represented by its Project Superintendent, Mike Ferrin.

### COMPANY PROFILE : Mackone (Mac-cone)Development Inc. (MDI) A General Contractor

Mackone Development, Inc. (MDI) is a fully licensed (A & B), bonded and insured General Contractor in the State of California. Representing 20 years in the construction industry, we are experienced in all phases of construction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modernization, tenant improvement, renovations, new construction and design-built projects.

Our previous projects include multi-unit housing developments, Federal/State and County contracts (JOC), ranging from educational facilities (DSA), USPS offices, Fire Stations, parks and recreation centers to complex health care centers and hospital projects under the OSHPD guideline.

Our experience also includes commercial-private construction, retail shops, shopping malls and restaurants.

MDI was also involved in several military base projects requiring sensitive clearance requirements as well as with State penitentiaries, either building or modernizing penal facilities.

MDI's organizational structure is composed of experienced personnel in various construction disciplines. Our Project Management team have a combined construction experience of over 100 years from every aspect of construction trade. While our field team is composed of experienced foremen and journeymen from all trade's disciplines.

MDI's core operation is based out of our Los Angeles office and staffed with a full support group from Accounting, Human Resources, Labor Compliance and Estimating departments. We also employs a full time scheduler well-versed with Primavera/P3, Microsoft Projects and other scheduling softwares.

Our vast construction management experience enable us to efficiently deal with the owners and owner's rep., the Architect as well as with our own suppliers. We are fully aware of the owner's requirements and is committed to always deliver the desired result at a reasonable time.



Bond Capacity: Single - \$ 40M Aggregate - \$ 150M

#### REGISTER TO BECOME AN MDI SUB-CONTRACTOR

Email: Estimating Department and send your Company profile.

We are currently looking for the following subcontractors:

ELECTRICAL (HV/LV) HVAC

For urgent inquiry, email: info@mackone.com

This site is under construction - Please excuse the inconvenience.

Chairman 양은혁 (태준-상대 56)